

현안연구 2014-12-580

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Ways to Facilitate and
Support Youth Culture in Busan

오재환·임호

헌안연구 2014-12-580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오재환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임 호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지원 김미연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원

감수 강성권 경영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시장의 한계와 아이디어 지원에 인색한 지역을 떠나 보다 안정적인 활동과 자신들의 경험, 기획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큰 서울로 이동하고 있음
- 부산지역의 청년예술가들도 부산지역을 벗어나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으로 자신의 활동근거지를 이전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문화 발전과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부산시 최초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 본 연구는 이를 계기로 부산시 청년문화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을 전제로 향후 5년을 설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또한 내용적 범위는 부산의 청년문화의 개념과 범위, 관련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함
-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청년문화와 관련한 문헌조사, 관련단체 현황자료 분석, 유사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를 진단함

■ 부산지역 청년문화 현황

- 최근 부산지역은 거리공연(busking)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스트리트 댄스는 킬라몽키스, 스텝 등이 활동하고 있음. 기타 활동으로는 부산대 앞의 거리문화축제 개최, 메이드인 부산독립영화제 개최, 문화잡지 발간, 대안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다원화된 부산의 청년문화는 2000년대 이후 음악, 미술, 춤 등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안적·다원적인 형태의 문화활동들이 증가하고 있음. '반디', '문화소통단체 숨', '오픈스페이스 배', '백년어서원', '빈빈', '문화매개공간 썸', '생활문화공간 통',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프리마켓 아마존', '사회적기업 부산노리단', '미디토리' 등의 대표적인 단체와 공간들에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음
- 현재 부산지역의 청년문화는 〈회춘프로젝트〉, 〈청년문화수도〉, 〈무빙트리엔날레〉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세력들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참여와 개방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부산지역에 기반하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도시 활력과 문화역량을 강화하며 지역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 부산 청년문화관련 현황은 축제·대형행사, 문화공간, 라이브클럽, 공연예술관련 단체, 시각예술·인문학관련 단체, 잡지(출판·디자인)·영상, 포럼·세미나·네트워크 등의 분야를 총괄하여 약 90여개로 조사되었음

■ 개념 및 범위 설정

- 현재 청년문화의 개념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1)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 청년문화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과 정책대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의 오류 논의를 수용하여 기성 사회의 가치관, 규범, 행동방식을 넘어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로 재정의 하였음
- 또한, 청년문화의 범위로 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청년' 세대가 주로 운영하거나 활동하며, 독립, 인디, 서브컬처, 비주류, 대안, 다원, 언더그라운드, 대항문화 등 기존의 주류적 문화예술활동과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활동과 생활예술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그 프로그램, 2) 보통의 대학 동아리, 청년 모임이 아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매개(전시, 공연 등)하는 개인이나 단체, 공간(클럽 등 소규모 상업 공간 포함),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설정하였음

■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결과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교수,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성·파급성·시급성 차원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 그에 따라 우선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부산자체 창작프로그램 추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비전(안) 및 추진목표별 과제

-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도출되었던 바와 같이 비전 설정에 있어서 미래, 일자리, 청년문화, 지역, 네트워크, 동아리, 사회적 경제 등을 비롯한 244개의 관련 키워드를 종합한 결과,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의 비전(안)은 '창조와 다양성의 청년문화도시 부산'으로 도출하였음

- 그에 따른 4대 목표는 첫째,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둘째,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 셋째,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넷째,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총 20개의 과제들을 제시하였음
- 첫째,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에 따른 과제로는 부산지역 자체창작 프로그램,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청년문화 기금 마련, spot 릴레이공연 개최 등이 있으며, 둘째,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에 따른 과제는 청년문화 실태파악, 인력 인큐베이팅, 인력 아카데미,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 마을청년 연계 등을 제시하였음. 셋째,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과제는 청년마켓, 박람회, 포럼, 네트워크 축제,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 등이 있으며, 넷째,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에 따른 과제로는 소식지 발간, 아카이브 구축, 거점공간 육성, 권역별 공간 조성,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 등의 사업을 도출하였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사회적 가치와 활동이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향은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음
- 그에 따라 첫째, '청년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장', 둘째, '청년문화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 셋째, '청년문화활동에서 문화와 예술영역의 분류 및 문화영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 확장', 넷째, '청년문화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목표·과제 설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소통의 구조 마련'이 필요함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연구의 주요 내용	4

II. 청년문화의 개념 및 동향

1. 청년문화의 흐름과 가능성	7
2. 청년문화의 개념적 정의	10
3.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	12
4. 국내 사례	14
1) 서울프린지네트워크	14
2) 뮤지션유니온	16
3) 우사단단	18

III. 부산지역 청년문화 분야별 현황

1. 축제·대형행사	23
1) 개요	23
2) 현황	23
2. 문화공간	24
1) 개요	24

2) 현황	26
3. 라이브클럽	30
1) 개요	30
2) 현황	32
4. 공연예술관련 단체	33
1) 개요	33
2) 현황	34
5. 시각예술·인문학 관련 단체	42
1) 개요	42
2) 현황	43
6. 잡지(출판·디자인)·영상	43
1) 개요	43
2) 현황	44
7. 포럼·세미나·네트워크	45
1) 개요	45
2) 현황	45

IV. 전문가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49
1) 조사 목적	49
2) 조사 설계	49
3) 응답자 특성	50
2. 주요 조사결과	54
1) 부산지역 청년문화 개념 및 범위	54

2)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9
3)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65
3. 추진 우선순서	67
1) 항목별 추진 우선순서	67
2) 과제별 추진 우선순서	69
4. 시사점	72

V.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1. 비전 및 추진목표	77
1) 비전(안) 설정	77
2) 추진목표	78
2. 추진목표별 과제	80
1)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80
2)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	85
3)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90
4)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	95
3. 추진 로드맵	100

VI. 결론

1. 요약	103
2. 정책제언	104

Abstract	107
----------	-----

참고문헌	109
------	-----

부록	111
----	-----

표목차

〈표 II-1〉 청년문화의 창작과 개입의 정도에 따른 분류	13
〈표 II-2〉 수익성과 공공성에 따른 청년문화의 분류	13
〈표 II-3〉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연혁	14
〈표 II-4〉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주요 활동	15
〈표 III-1〉 부산지역 축제·대형행사 현황	24
〈표 III-2〉 부산지역 문화공간 현황	29
〈표 III-3〉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현황	33
〈표 III-4〉 부산지역 인디록페스티벌 출연자	38
〈표 III-5〉 부산지역 인디뮤지션단체 현황	39
〈표 III-6〉 부산지역 힙합·DJ·댄스팀 현황	41
〈표 III-7〉 부산지역 시각예술·인문학 현황	43
〈표 III-8〉 부산지역 잡지(출판·디자인)·영상 현황	44
〈표 III-9〉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현황	45
〈표 IV-1〉 전문가설문 응답자 성별	50
〈표 IV-2〉 전문가설문 응답자 연령	50
〈표 IV-3〉 전문가설문 응답자 소속	51
〈표 IV-4〉 전문가설문 응답자 관련분야	51
〈표 IV-5〉 전문가설문 응답자 근무연수	52
〈표 IV-6〉 전문가 설문_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3
〈표 IV-7〉 부산시 조례의 '청년문화'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54
〈표 IV-8〉 청년문화의 비전 설정에 포함되어야 키워드	58
〈표 IV-9〉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5점 평균 비교	59

〈표 IV-10〉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방안 5점 평균 비교	63
〈표 V-1〉 부산지역 자체창작 프로그램 지원 기본 개요	80
〈표 V-2〉 타 장르 융·복합 예술 지원 기본 개요	81
〈표 V-3〉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기본 개요	82
〈표 V-4〉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기본 개요	83
〈표 V-5〉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 기본 개요	84
〈표 V-6〉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기본 개요	85
〈표 V-7〉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기본 개요	86
〈표 V-8〉 부산지역 청년문화육성 아카데미 기본 개요	87
〈표 V-9〉 부산지역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 기본 개요	88
〈표 V-10〉 부산지역 마을청년 연계 기본 개요	89
〈표 V-11〉 부산지역 청년마켓 기본 개요	90
〈표 V-12〉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기본 개요	91
〈표 V-13〉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기본 개요	92
〈표 V-14〉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기본 개요	93
〈표 V-15〉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 기본 개요	94
〈표 V-16〉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기본 개요	95
〈표 V-17〉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기본 개요	96
〈표 V-18〉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기본 개요	97
〈표 V-19〉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조성 기본 개요	98
〈표 V-20〉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기본 개요	99
〈표 V-21〉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로드맵	100
〈표 부록-1〉 2014년 기획안 및 기본 개요	111
〈표 부록-2〉 2013년 기획안 및 결과	111

그림 목차

〈그림 II-1〉 서울프런지네트워크 조직도(2014년)	15
〈그림 II-2〉 뮤지션유니온 조직도(2014년)	17
〈그림 II-3〉 우사단단 조직도(2014년)	18
〈그림 II-4〉 우사단마을 홍보를 위한 SNS활동	19
〈그림 IV-1〉 전문가설문 응답자 성별	50
〈그림 IV-2〉 전문가설문 응답자 연령	50
〈그림 IV-3〉 전문가설문 응답자 소속	51
〈그림 IV-4〉 전문가설문 응답자 관련분야	51
〈그림 IV-5〉 전문가설문 응답자 근무연수	52
〈그림 IV-6〉 부산시 조례의 '청년문화'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54
〈그림 IV-7〉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다중응답)	56
〈그림 IV-8〉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5점 평균 비교	60
〈그림 IV-9〉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방안 5점 평균 비교	64
〈그림 IV-10〉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65
〈그림 IV-11〉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중요성 5점 평균 비교	66
〈그림 IV-12〉 항목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	67
〈그림 IV-13〉 항목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	68
〈그림 IV-14〉 과제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	69
〈그림 IV-15〉 과제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	71
〈그림 IV-16〉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의 4가지 방향	72
〈그림 V-1〉 부산지역 청년문화 비전(안)	77
〈그림 V-2〉 부산지역 청년문화 비전·목표·추진과제	7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산지역은 청년문화의 거점이자 활동력 있는 청년들의 도시이다. 청년문화는 문화 다양성과 지역적 삶의 현장을 지켜주는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도권 외곽의 팽창은 지방도시들의 자생적 발전의 성장왜곡을 가져왔다. 블랙홀과 같이 흡수되어 사라져 가는 분야에는 문화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시장의 한계와 아이디어 지원에 인색한 지역을 떠나 보다 안정적인 활동과 자신들의 경험, 기획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큰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의 모습은 상업적 문화활동의 이면에 보여지는 지역의 현실을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젊은 청년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에서 인구유출은 지역경쟁력 상실의 주요요인이며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청년들의 외부 유출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인구유출의 원인은 타지역으로의 대학진학 및 취업 등 개인진로에 의한 영향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청년예술가들조차도 부산지역을 벗어나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으로 자신의 활동근거지를 이전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몇 년 전 폐쇄된 대안공간 '반디'는 이러한 부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의 활력이 죽어가는 도시 부산, 과거의 청년문화의 메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지역 문화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계기가 된 사건이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년 5월 22일)' 제정이다.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

화 발전과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계기로 부산시의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실태 점검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의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을 전제로 향후 5년을 설정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는 부산의 청년문화의 개념과 범위, 관련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또한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청년문화와 관련한 문헌조사, 관련단체 현황 자료 분석, 유사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였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문화의 개념 및 범위 설정과 둘째,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분야별 현황, 셋째,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넷째, 비전 제시 및 목표별 과제 도출, 다섯째,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비전(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 목표와 2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II. 청년문화의 개념 및 동향

1. 청년문화의 흐름과 가능성
2. 청년문화의 개념적 정의
3.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
4. 국내 사례

II. 청년문화의 개념 및 동향

1. 청년문화의 흐름과 가능성

청년문화는 주류, 자본, 기성세대 등의 개념과 배치되는 하위문화적 특성을 가진 문화이다. 1960년대 서구사회의 문화적 혁명은 기성세대가 가진 이념적 성향의 주류 문화에 반하여 대항문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로 성장해 왔다. 다소 거칠거나 반항적인 문화적 성향을 가진 청년문화는 비주류적 성격(사회적 담론에서 주류에서 벗어난)의 문화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비주류적 성격의 하위문화인 청년문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미국식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아 포크송, 장발, 미니스커트 등 억압된 사회구조를 풍자하거나 밝은 미래를 '꿈'으로 표현하는 등의 시대정신을 담고자 하였다. 이렇게 발현된 청년문화는 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계승, 새로운 저항가요의 탄생, 학생운동의 이념성을 담은 소비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장르로서의 청년문화로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퍼져나갔다. 이른바 7080문화로 대변되는 당시의 문화는 현재에도 그 당시의 시대적 정서가 표현되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 이념의 퇴조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근대에 대한 반성 등으로 신주류적 성격의 청년문화는 산업과 결합되면서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매김 하였다. 1990년대 청년문화는 '독립', '인디', '언더그라운드'로 상징되는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문화창작과 활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념과 사회운동의 다변화로 인한 문화활동이 문화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젊음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창작적 기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서울 홍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주류 상업 문화와의 구별짓기가 가

능한 로컬 씬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1990년대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다양화, 경제적 성장의 혜택이 가져다 준 한국사회의 변화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 문화적 영역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하게 된다. 특히 창작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변하였던 흐름에서 벗어나 문화연대의 결성, 새로운 문화의 수용을 통한 일상적 변화를 기획하는 신세대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장되었다. 문화수용에서 문화생산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한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지형은 흥대의 하위문화로 대별되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청년문화는 문화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인디'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청년문화의 새로운 흐름은 밴드, 클럽, 힙합 등의 문화적 현상으로 탄생하였고,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확장에서 부산지역의 역할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다양한 영역(인디밴드, 그래피티, 스트리트 댄스, 대안공간, 독립영화 등)에서 창작자 및 기획자를 배출하는 등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하위문화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굳혀 왔다. 부산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외국문화와의 교류와 이를 수용하는 해양성의 감수성은 얼리 어댑터로서의 문화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창적인 문화활동은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영향력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부산의 활동과 명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저력은 뮤지션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록 음악의 메카로 불리었다. 1990년대 중반 부산의 인디씬을 이루었던 상당수 밴드들이 흥대로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기 시작했다. 클럽 및 레이블의 경우, 1990년대 부산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자체 음반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레이블들도 하나 둘 생겨났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밴드들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차츰 사라져간 클럽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산대와 경성대를 중심으로 클럽공연 및 클럽데이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리공연(busking)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스트리트 댄스는 킬라몽키스, 스템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댄스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영화제와 축제, 기타 활동으로는 부산대 앞의 거리문화축제, 메이드인 부산독립영화제, 문화잡지, 대안공간에서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청년문화는 특정한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대안적·다원적인 형태의 문화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써 '반디', '문화소통단체 숨', '오픈스페이스 배', '백년어서원', '빈빈', '문화매개공간 썸', '생활문화공간 통',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프리마켓 아마존', '사회적기업 부산노리단', '미디토리' 등의 대표적인 단체와 공간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청년문화·예술활동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부산지역의 청년문화는 각양각이한 주체들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참여와 개방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도시 활력과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회춘프로젝트〉, 〈청년문화수도〉, 〈무빙트리엔탈레〉 등을 통해 지난 2-3년간 가시화된 청년문화의 실험적, 저항적, 창조적 속성은 지역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청년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대안적이고 독립적이며, 지역과 생활문화에 기초하는 문화적 실천들은 천편일률적인 현대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다채로운 문화적 색깔을 덧입히며 창조적인 활력을 도시에 불어넣고 있다. 나아가 이는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부터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문화의 변화가 확인될 수 있으며 대중문화, 수도권 중심의 단일된 문화적 감수성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의 성장가능성을 지닌 청년문화는 개인들의 삶을 표현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여러 가지 경로를 확보하게 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연대함으로써 생활공간의 문화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 확장을 가져와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구현할 발판이 될 수 있다.

2. 청년문화의 개념적 정의

현재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1.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를 재해석하면 크게 창작활동과 문화적 형성이라는 두 가지 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창작활동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문화적 장르나 창작과 구별되는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는 문화활동으로 재정의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권력이나 자본의 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새로운 가치와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항문화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년문화의 기초가 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문화적 형성의 측면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라는 내용에서 문화의 속성인 공유성의 가치를 수용하고, 개별화된 창작활동이 아닌 시대나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하위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청년문화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은 정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설정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는 모든 문화로 인식한다면 기존의 장르에서 이

투어지는 아방가르드적 예술도 청년문화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재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청년과 문화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청년을 생물학적 연령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문화를 통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개념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청년문화의 성격으로 창조성, 다양성과 함께 저항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다양성으로 포함해해서는 청년문화의 성격이 희석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청년문화를 재정의하면 '기성 사회의 가치관, 규범, 행동 방식을 넘어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에서 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생산, 연주, 공연자, 작가, 비평가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한 범위에서 기존의 장르를 포함하고 예시를 적시하거나 예시를 포함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인 정의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

청년문화는 고급문화를 일반 문화향유층에 전파하는 문화민주화의 의미를 넘어 기존의 기성문화에 대항하는 하위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청년문화는 문화민주주의적 패러다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문화민주주의란 문화의 흐름을 일방향의 수직적인 구조를 넘어 수평적인 구조 및 쌍방향적 소통의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즉, 청년문화는 문화향유자이자 창조자인 문화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청년문화는 협업적 구조로써 단순히 자신들만의 장르를 넘어서 타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거나 기성의 주류적인 문화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흐름의 문화적 소통을 꿈꾸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을 위해 청년문화의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정책대상으로서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문화의 개념은 역사와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성과 활동을 근거로 하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문화의 특성으로는 창조성, 다양성, 융합성, 저항성이 발현되는 문화이다. 이러한 특성은 ①특정 시기나 세대, 특정 장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시대정신이자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실천적인 문화적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문화와 공동체이며, ②비주류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문화적 활동을 추구하는 문화활동가들로 재정의 될 수 있다.

둘째, 활동은 ①다양한 장르, 실험적 성격의 문화예술을 통하여 관성화, 대형화되어가는 기성 예술계에 대한 대안문화활동, ②일반적으로 대중적이고 주류적인 장르의 문화예술과 달리 융·복합적 장르나 청년적 특성이 강한 젊은 층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사회적 개입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II-1)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자기만족적 성향이 강한 반면, 사회적 수

준에서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이해에 개입하여 도시재생이나 창조적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청년문화의 창작과 개입의 정도에 따른 분류

개인적 수준	개인적 + 사회적	사회적 수준
자기만족/자기개발	살롱문화/커뮤니티	공동체와 지역
	사회적기업/스타트업	

이를 수익성의 측면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표 II-2〉와 같이 그 범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클럽이나 밴드 활동은 인디문화 중에서도 대중성을 지닌 상업적 성격이 강한 문화활동이며, 대안공간이나 커뮤니티 아트 등은 사회적 실천이 강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문화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도식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표 II-2〉 수익성과 공공성에 따른 청년문화의 분류

수익성(상업적)	복합적	공공성
클럽/밴드	복합공간 + 사회적기업	대안공간/커뮤니티
		대안적 실천

마지막으로 청년문화의 범위는 앞서 말한 특성과 활동을 종합하여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청년문화의 범위로는 ①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청년’ 세대가 주로 운영하거나 활동하며, 독립, 인디, 서브컬처, 비주류, 대안, 다원, 언더그라운드, 대항문화 등 기존의 주류적 문화예술활동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활동과 생활예술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그 프로그램, ②보통의 대학 동아리, 청년 모임이 아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매개(전시, 공연 등)하는 개인이나 단체, 공간(클럽 등 소규모 상업 공간 포함),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국내 사례

1) 서울프린지네트워크

(1) 주요 개요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1998년 독립예술제로 시작한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이다. 1998년부터 독립예술제를 운영하다 2002년부터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명칭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에딘버러페스티벌에 선정되지 못한 예술가들의 공연인 프린지페스티벌을 모델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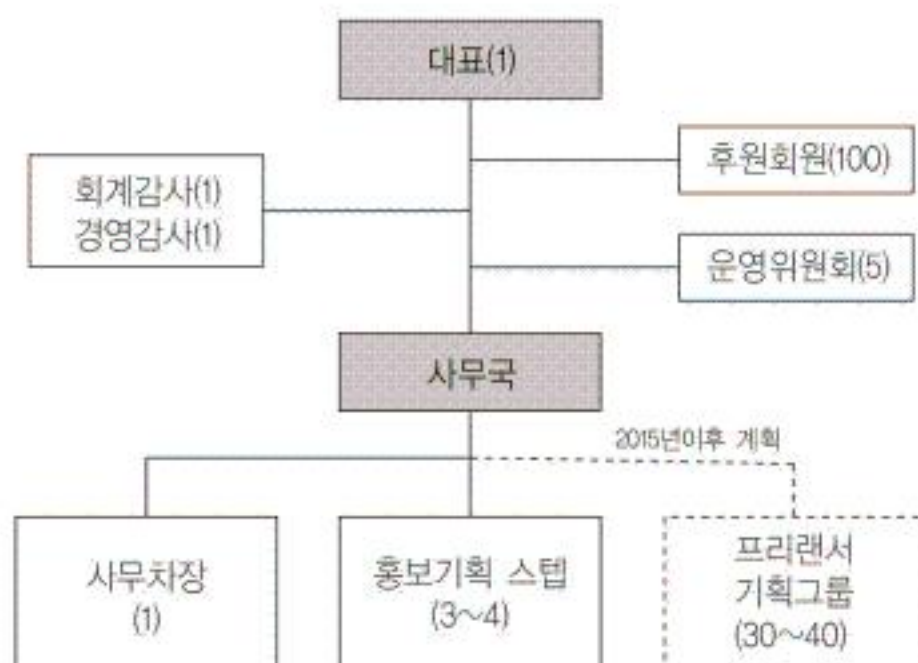
〈표 Ⅱ-3〉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연혁

구분	내용
1998년	제 1회 독립예술 개최 및 독립예술제집행위원회 발족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특별시 제81호)
2002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축제 이름 변경 〈서울프린지네트워크〉로 조직 이름 변경
2007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10주년 기념 연구 보고서 및 에세이 발간
2010년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 제 2010-134호)

(2) 인력 및 재정

현재 대표를 포함하여 5-6명이 상근 근무 중이며 행사 시 스텝 15명 정도가 추가 투입되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참여한 선유도거리예술마켓,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등 활동의 대부분은 행사준비로 인한 지출로 사용되며 기획수수료 2-3%가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 중 가장 큰 지출부분은 상근직원 급여이며 그 외 임대료, 기타 관리비 등으로 소요된다.

하지만 상근자들의 단기적인 근무기간으로 인한 중간관리자들의 생성 부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프리랜서기획그룹(안)을 마련하여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림 Ⅱ-1〉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조직도(2014년)

(3) 주요 활동

예술가 및 기획자들이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축제 제작, 독립예술 비평, 문화행사 기획 컨설팅, 예술매개공간 운영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주사업으로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개최, 공정무역페스티벌 운영, 청년문화예술 자원 활동가 지원, 마을만들기 축제 참여 등이 있으며 2009년부터 “달려라, 프린지” 운영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들에게 공연을 들고 찾아가는 배달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는 매년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지역 외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표 Ⅱ-4〉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주요 활동

구분	내용
1988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구 독립예술제) 개최
2007년~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운영 및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2007~2012년	프린지스튜디오 운영
2011년~	예술공작소 F(워크숍·포럼 외) 운영

2) 뮤지션유니온

(1) 주요 개요

뮤지션유니온은 '음악인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음악가들의 노동조합이다. 2011-2012년 음원 가격 및 음원징액제가 이슈화되는 등 음악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최초의 뮤지션참여라 할 수 있는 유데이페스티벌의 개최를 계기로 뮤지션유니온의 창립준비가 촉발되었고 2013년 9월 8일 첫 창립총회 개최하였다. 뮤지션유니온의 목표는 예술가이자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진 음악인들이 모여 음악과 음악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음악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개선과 음악인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뮤지션유니온은 단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음악산업의 법, 제도적 장치 개선과 음악인들의 정당한 사회, 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각 산업 당사자들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AFM: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이나 영국 (Musicians' Union)의 경우 이미 100여년 전에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 중이며, 일본의 음악인 노동조합(Musicians Union of Japan)은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국제음악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Musicians)이라는 음악인 노동조합 및 단체의 국제적 연합체 또한 1948년에 이미 결성되어 전세계 음악인 노동조합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인력 및 재정

10여명의 준비위원으로 시작한 뮤지션유니온은 현재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18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있다.(상근자 부재) 조합원들은 마포구 창전동에 마련된 뮤지션유니온을 위한 공간인 '유니온하우스'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그림 Ⅱ-2〉 뮤지션유니온 조직도(2014년)

(3) 주요 활동

현재까지 뮤지션유니온의 활동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음악 산업의 법·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예를 들면 2013년 7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음악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참여, 서울시 인디음악 창작공간 지원 사업 자문회의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음악 창작 지원 공간 운영위원회 참여 등이 있다. 둘째,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써 2013년 10월 마포의료생협과 연대하여 조합원 대상 무료건강검진 진행이 있으며 셋째, 뮤지션유니온 자체 공연 이벤트 주최 활동으로 조합원 출연 기획 공연 Union's Night Live 진행, 2013년 10월 잔다리 페스타 유니온 스테이지 We are the MU 진행, 2014년 1월 EBS 스페이스 공감 축소 반대 공연 '공감하고 싶어요' 진행 등 음악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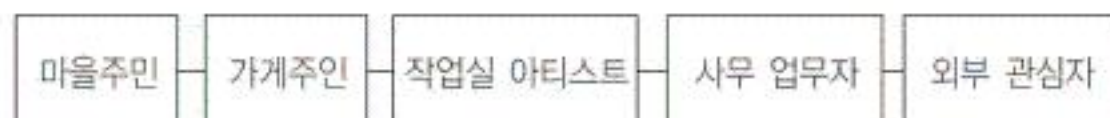
3) 우사단단

(1) 주요 개요

우사단단은 이태원 이슬람 사원부근에 위치한 우사단마을의 청년공동체이다. 청년장사꾼은 이태원에 아티스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재미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할 만한 마을 컨텐츠가 풍부하다는 판단 하에 우사단마을에 들어가 공동체 '우사단단'을 만들게 되었다. 청년공동체(청년장사꾼)는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체로써 오프라인으로 매장 운영을 시작했던 청년장사꾼은 현재 문화프로젝트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지역의 문화를 부흥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2) 인력 및 재정

구성원 모두가 대표(수평구조)인 우사단단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운영비용으로 마을의 고질적 문제들을 유쾌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홍보는 SNS(페이스북)로 진행되며 제작물 또한 거의 없다. 2012년부터 발행된 마을신문(격월간 우사단)은 우리마을프로젝트(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상가마을공동체지원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타 여비로 장터(계단장)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최근 마을신문을 장당 500원씩 판매(마을주민 제외)하지만 특별한 수익모델을 개발하진 않고 있다.



〈그림 Ⅱ-3〉 우사단단 조직도(2014년)

(3) 주요 활동

우사단단은 두가지 큰 원칙 속에서 운영된다. 첫째, "우리가 즐겁고 동네주민이 즐거워야 한다", 둘째, "우리가 너무 수고스럽지 않아야 한다"이다. 즉,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일을 만들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사단단은 구성원들에게 활동의 강제를 두지 않으며 개인의 직업 활동을 존중해 벌칙이나 규율 등을 세워 구성원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운영방식은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동에 최대한 부담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마을을 위해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 속에서 마을신문 '월간 우사단'을 발행(현재는 격월간)하여 마을 소개 및 소식들을 참신한 방식으로 공유하였다. 뒤이어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계단에서 사고 파는 '이태원 계단장'이라는 장터를 매달 마지막 토요일 진행하였다. 이는 수수료 및 자릿세를 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터이기보다 마을 잔치와 같은 개념인 것이다. 이후 이를 계기로 점차 마을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고 상권도 활성화되자 현재 '우사단마을 열린 가게 들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외부인들을 마을 내로 유입시키는 등 크고 작은 마을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Ⅱ-4〉 우사단마을 홍보를 위한 SNS활동

Ⅲ. 부산지역 청년문화 분야별 현황

1. 축제·대형행사
2. 문화공간
3. 라이브클럽
4. 공연예술관련 단체
5. 시각예술·인문학관련 단체
6. 잡지(출판·디자인)·영상
7. 포럼·세미나·네트워크

Ⅲ. 부산지역 청년문화 분야별 현황

1. 축제·대형행사

1) 개요

부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청년문화를 표방하는 공식·대형 축제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유일하다. 특히 새롭고, 실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청년문화의 특성상 국내·국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경우 부산시지원 국제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3-5억원의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문화 장르의 대형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청년문화활동과 연계하는 행사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012년, 2014년의 경우,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을 통하여 〈2011청년문화·예술생태계활성화 프로젝트_부산회춘프로젝트〉, 〈2012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2014무빙트리엔날레_메이드인부산〉이 1억 8-9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차원의 경우 부산선셋라이트, 제로페스티벌, 부산인디록페스티벌, 해운대프린지페스티벌, 거리예술페스타 등이 부산에서 청년문화 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2) 현황

부산지역 축제·대형행사 관련 현황은 총 6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1〉 부산지역 축제·대형행사 현황

구분		내용
1	제로페스티벌	옛 부산독립예술제로 금정구 예술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운영
2	선셋라이브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 배'로부터 시작된 인디뮤직 페스티벌
3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의 인디씬 발전 도모
4	부산회춘프로젝트	부산문화재단 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
5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부산문화재단 2012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
6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	부산문화재단 2014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

2. 문화공간

1) 개요

(1) 청년문화 관련공간

최근 10년 사이에 부산에서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대안, 독립, 청년, 비주류, 문화공간,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부산의 문화 지형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안공간 반디(2002, 구 대안공간 섬)', '인디고서원(2004)', '꽃마울 아트인네이처(2005)', '공간초록(2006)', '오픈스페이스 배(2006)', '대안문화공간 자인(2008)', '독립문화매개공간 아지트(2008)', '수이제(2008)', '문화매개공간 썸(2009)', '백년어서원(2009)',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2010)', '문화공간 빈빈'(2011), '카페 헤세이터(2011)', '생활기획공간 통(2011)', '금정공연예술지원센터(2012)', '주례문화O터(2012)', '사상인디스테이션(사상구, 2013)',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수영구, 2013)', '창조문화 활력센터 스트릿 624 (북구, 2013)', '도모(2014)' 등의 문화공간들이 속속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체제·주류 문화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이며, 동시에 상업·소비 중심의 자본주의적 문화로부터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담론은 '청년문화'로 이를 개념화하고,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지역문화를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신선한 자극으로 평가하며, 선 굵은 정책과 지원들을 점차 시행하고 있다. 청년문화가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공간들이 최근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2011년 대안공간 반디의 폐관에 이어 2012년 5월 극단 새벽의 소극장실천무대, 가마골소극장의 폐관·이전 되었으며, 2014년 독립문화공간 아지트가 폐관되었으나 다행히 장전동 장성시장으로 이전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활기획공간 통은 월세 등의 문제로 같은 건물 5층으로 이전한 상황이다.¹⁾

(2) 거리 등 야외공간에서의 움직임

근래 부산문화예술의 현장 상황도 시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이자 장소로서 '거리'에 초점을 두는 상황들도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포착된다. 하나는 중구, 동구, 서구 등 부산의 원(구)도심 일대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사업, 근대문화유산 등의 역사적 발전, 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문화마을, 매축지 마을 등 실제 생활세계가 이루어지는 골목과 거리가 무대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주류와 구분되는 비주류의 문화적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기성의 주류 장르, 대학교육 등에서 밀려나는 문화예술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에 두면서 거리로 나오는 경우이다. (이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용두산공원의 비보이, 온천천의 그래피티) 특히 부산의 원(구)도심 일대를 비롯하여 대학 주변, 골목 등 생활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리에서 전시, 공연, 예술마켓, 소소한 축제 등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거리와 관련된 지역의 청년문화공간·단체의 움직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위

1) 송교성, 2012, “지역문화선(Local Scene)의 가능성 : 부산 청년문화를 중심으로”에서 발췌하였다.

문화의 특유의 폐쇄적이거나 소수의 취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개방을 통하여 지역에 뿌리박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청년문화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일상적인 '거리'를 문화적으로 재구축하면서 공공성을 획득해내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²⁾

2) 현황

(1) 부산대학교 앞

본래 부산대학교 앞거리(이하 부대 앞거리)는 서울에 대학로가 있다면 부산에는 '부대 앞'이 있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청년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술값이 싸고 놀기 좋은 곳으로 인식된 부대 앞은 또한 자생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결집지역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문 앞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장소로 애용하는 상징성 강한 곳으로 인접성과 유동인구가 많았던 만큼, 역사적으로는 10.16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등 기존 체제에 저항하던 대학생들의 집회나 시위 등이 많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서점, 막걸리와 토론으로 상징되는 등 1970-1980년대 부대 앞은 정치의 공론장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엔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들어서고 음식점과 주점들도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등이 되면서 상업·소비공간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에도 대학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정문 앞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인디·독립·대안문화, 라이브클럽 등 청년문화의 거점으로서 부산의 대학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광장이자, 주변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가 여전히 다양하게 진행되는 공연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급속한 침투로 점점 거리 전체가 상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 때 왕성했던 라이브클럽이나 서점들도 사라져가고,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청년문화·예술인들도 생계의 어려움, 지역의 한계에 부딪

2) 송교성, 2012, “지역문화선(Local Scene)의 가능성 : 부산 청년문화들 중심으로”에서 발췌하였다.

혀 부대 앞을 떠나기 시작했다³⁾. 급기야 대학교의 정문에 대형 쇼퍼몰이 들어서면서 대학거리가 지냈던 문화적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⁴⁾

(2) 경성대 앞

경성대학교 인근의 클럽문화는 라이브클럽보다는 힙합이나 디제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경성대 앞의 클럽은 유흥의 장소에 가까웠다. 하지만 부산에서 라이브클럽씬을 주도했던 부산대 인근 클럽들의 역할이 서면과 경성대 지역으로 끌고루 분포되기 시작하면서 경성대 앞 클럽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마니아들이 있고, 공연이 빈번하게 열려 인지도 면에서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선 재즈클럽 몽크는 이번이 없는 한 경성대 앞의 클럽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 앞의 라이브클럽을 대표하는 곳으로는 바이닐언더그라운드와 리얼라이즈가 있다. 바이닐언더그라운드는 지역밴드와 전국 단위의 공연을 함께 진행한다. 리얼라이즈는 지역밴드를 중심으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경성대 앞 라이브클럽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는 디제이 플레이가 진행되고 힙합공연이나 간단한 라이브 공연도 가능한 올모스트페이머스, 패브릭, 15언더핏 등이 있다. 이 세 클럽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교류를 위한 장소로 더 부각된다. 경성대 앞의 클럽문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내부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클럽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간에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서면과 해운대의 클럽들이 점점 대규모화 되어 상업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반해 경대의 클럽문화는 아직은 각 공간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다.

3) “2003-2007년 사이 부산대 앞의 분위기는 그런대로 좋았다. 그 후 상업성에 밀려 많은 문화기획자와 활동가들이 떠났다. 생활고 때문이었다. ... (국제신문 2011-05-30)”

“... 부산의 문화를 지탱하는 한 축인 젊은 독립문화인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 부산대와 경성대·부경대를 비롯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밴드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세계무대에서 평가받던 독립 영화감독들과 제작진들도 부산을 떠나 충무로로 진출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수가 늘어났다. ... 왜 떠나고 떠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좋아하는 일과 생활이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 (특히 ‘비주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은 그야말로 이중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 2009-8-25)

4) 송교성, 2014, “지역,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악동”에서 발췌하였다.

(3) 서면 일대

클럽이라 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 홍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라이브클럽, 즉 라이브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들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최근 클럽데이가 생겨났다는 서면은 라이브클럽이라기 보다는 라운지클럽, 즉 디제이들의 플레이에 맞춰 춤추는 클럽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이 클럽데이에는 부산의 청년들이 모여들어 그 열기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북적이는 풍경이다.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와 달리 과거 서면은 부산을 대표하는 라이브클럽 625가 있었던 지역이다. 625는 1999년 서면에 문을 연 이후 다양한 활동들과 자체 컴필레이션 음반(블루호텔 vol.1)까지 발매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2003년에 문을 닫았다. 이후 서면에서는 특이할 만한 라이브클럽의 활동이 없었으나, 2012년 11월에 OZ HALL이 문을 열면서, 서면의 라이브클럽이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600명 규모의 스탠딩공연이 가능한 이 공연장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뮤지션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이나 인근 경남에는 소형 공연장과 초대형 공연장 사이에 인디뮤지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 공연장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개관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OZ HALL에서 열렸던 다양한 공연들과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공연들은 그동안 지역 뮤지션들이 공연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갈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서면은 대형 라운지 클럽과 라이브 홀이 생겨나면서 여느 대학거리보다 더 청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리가 되고 있다. 부산 최대의 중심가라는 점과 클럽들의 개장이 맞물리는 와중에 최근 부산진구청에서도 서면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길거리 공연 등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지역 문화공간 관련 현황은 총 18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2〉 부산지역 문화공간 현황

구분		내용
1	재미난 복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2003년 결성된 '재미난 복수'가 부산지역 독립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마련
2	생활기획공간 통	이웃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삶·일상생활을 기획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생성 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
3	루츠, 스카워이커스	인디밴드 스카워이커스가 부산대 앞에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공간 마련
4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금정구 내의 다양한 예술단체의 교류를 지원
5	인디고서원	부산의 유일한 청소년 인문학공간
6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부산문화재단이 인디문화 인큐베이팅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젊은 문화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7	공간초록	학술·독서 모임의 청년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강연회, 영화제, 음악회 등을 진행
8	스트릿824, 문화소통단체 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적, 지식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창조문화활력센터'
9	사상인디스테이션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컨테이너 27개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시설
10	생각다방산책극장	공연을 포함한 일상적인 예술활동과 교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단체
11	국도&가람예술관	가람아트홀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독립영화 전용관
12	모퉁이극장	작품중심의 기존 영상문화의 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시민 관객'층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13	크리틱, 크리틱 아트 스토어	부산을 대표하는 MC로서 부산의 힙합 레이블인 ALIVE MUSIC 소속
14	오픈스페이스 배	지역에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공간
15	대안공간반디	부산을 대표하는 청년문화 대안미술 공간
16	Cafe 나무	청년들의 마을활동을 지원
17	오월열한시	음악, 독서 등을 매개로 사람들이 어울리는 소셜클럽
18	잘자리	서울 빈집 프로젝트에서 기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공동주거 공간

3. 라이브클럽

1) 개요

부산에 최초로 생긴 라이브클럽은 1992년 고 김성환 씨가 부산대 앞에서 시작한 재즈클럽 'MONK(몽크)'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셀로나우스 몽크'에서 이름을 붙인 몽크는 전국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재즈클럽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차인표가 색소폰을 연주했던 이태원 근처의 '올댓재즈'와 재즈 1세대 박성연 씨가 34년째 운영하고 있는 '아누스' 등이다. 지방인 부산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은 라이브 클럽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의 음악 씬이 활발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몽크는 재즈 음악을 많이 들어주던 곳이었지만 서울과 외국 뮤지션, 그리고 록 밴드까지 공연하기도 했다. 지역 KBS나 MBC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인터뷰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러나 클럽 규제 정책에 따른 잦은 영업정지와 IMF 경제위축, 그에 따른 재정악화로 안타깝게도 1998년 즈음 문을 닫게 됐다.

이후에 몽크는 두 개로 나뉘어 부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moo MONK(무몽크)'다. 부산대 근처에서 어쿠스틱 공연, 록&재즈 음악을 들어주는 '무(無)'라는 작은 클럽을 운영하던 허현웅에게 선배인 김성환이 서울로 가면서 몽크 경영을 맡겼고, 이후 기존 클럽을 처분하고 통합해 하나로 운영하면서 탄생했다. 보통은 '부산대 몽크' 내지 '부대 몽크'로 많이 불리고 있다. 이후 '클럽 6·25'와 함께 부산 록 씬의 메카가 되었고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하나의 몽크는 고 김성환이 '부산대 몽크'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 일하다 갑자기 별세한 뒤, 그의 유품들(악기, 음향장비, 음반)을 물려받은 부산재즈클럽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경성대 앞에 1999년 문을 연 곳이다. 2001년 현재 위치인 경성대 근처로 이전했다. 의사, 교수, PD, 회사원 등으로 이뤄진 부산재즈클럽 회원 20여 명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감미로

운 재즈 향연이 이어진다. 명실공히 부산 재즈 씬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이나 국외 뮤지션의 연주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산의 또 다른 대표적인 라이브클럽은 '락클럽625'다. 1999년 6월 25일 서울 중심의 인디문화 집중현상에 대한 부산 록씬의 부흥을 꿈꾼다는 취지하에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문을 열었다. 전국의 수많은 밴드가 이곳을 거쳐 갔고 '부산 록씬'하면 '락클럽625'가 떠오를 만큼 상징적인 존재였다. 2001년에는 녹음스튜디오 'U2'와 함께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별한 11개 밴드가 참여한 '블루호텔vol.1'이라는 부산 최초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건물 사정으로 쫓겨나 다시피 문을 닫게 됐고, 부산대 앞 '퀵'과 함께 손잡고 그 명성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여건은 좋지 않았다. 현재는 음반 레이블과 녹음 스튜디오를 부산대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부산에서 밴드들이 자주 연주하던 라이브 클럽이 아닌 공연장은 서면에 있는 '부산적십자회관', '시민회관 소강당', '반공회관', '양정청소년회관' 등이었다. 광안리 'SAY 소극장'에서도 록밴드 공연이 자주 이뤄졌다.

사직동에 처음 문을 열었던 '뮤직뱅크'는 광안리 바닷가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부산 밴드 음악을 성장시키려 노력했던 라이브 클럽이었다. 레몬크러쉬, SIP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초기의 피아, Kyster, 레이니션의 김태진, 김대현 그리고 캐스커의 이준오 등이 정기적으로 공연하던 곳이었지만 생각보다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그 외 부산대 근처 '섬씽포넛씽', '쥘바' 등에서 자주 록 밴드들의 공연이 있었고, 그 밖에 양정동 'Blues'를 비롯해 광안리와 해운대에도 라이브 연주를 하는 클럽들이 있었다.

이후 부산대학교 앞을 중심으로 라이브 클럽이 많이 생겨났는데, 당시 식품위생법에는 '룸살롱, 나이트클럽에서만 2인 이상 연주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인 연주가 불가능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단속했고 클럽들은 어렵게 운영을 해 가는 실정이었다.

'라이브 클럽 합법화'를 위해 윤도현, 안치환, 강산에 같은 유명 가수들과 록 밴드

들이 지속적으로 전국 100여 개의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했고, 그 결과 1999년 식품 위생법 개정으로 라이브 클럽 공연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클럽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휴업하는 일이 발생했다. 클럽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공연을 하지 않게 되자 밴드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꿈을 좇아 서울로 상경하는 밴드들이 많아졌다.

라이브 클럽 합법화 이후 부산대 근처 라이브 클럽들은 다시 일어서게 됐다. '소울트레인', '퀸', '일출(Daybreak)', '스테레오포닉' 같은 클럽에 많은 인디밴드들이 성지처럼 방문해 연주했고, 거리공연도 하면서 서울 홍대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속해서 공연하는 클럽은 무몽크와 인터플레이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음악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라이브 클럽은 다양한 뮤지션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 음악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꾸준히 창작돼야 한다.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하던 뮤지션들이 TV나 라디오 방송의 세션으로 참여하고, 영화, 드라마 음악에 자신들의 곡이 사용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음악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기존의 유행하는 음악이 아닌 새로운 시도,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음악들을 이미 많은 인디 밴드들이 해 오고 있다. 그들이 설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라이브 클럽이다. 국민 가수 윤도현도 라이브 클럽 출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⁵⁾⁶⁾

2) 현황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관련 현황은 총 10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5) 부산일보, 김종균이 본 부산 밴드 어제와 오늘 : 부산의 라이브 클럽

6) 부산일보, 김종균이 본 부산 밴드 어제와 오늘 : 지난했던 라이브 클럽 합법화

〈표 Ⅲ-3〉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현황

구분		내용
1	무몽크	부산의 인디 밴드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악 클럽 중 하나
2	인터플레이클럽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대관공연만 진행
3	부산대학교 클럽투어	2003년 1월부터 총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서면825, 부산대 무몽크, 인터플레이, 일출, 킨을 돌아다니며 열린 행사
4	재즈클럽 몽크	1978년 올댓재즈, 1978년 아누스 이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재즈클럽
5	클럽 리얼라이즈	리얼라이즈레코드에서 출발해서 클럽까지 운영
6	레블, 아우라지, 얼라이브 뮤직	'여러 갈래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을 의미한다는 아우라지는 2007년에 결성된 부산 로컬 힙합 크루로, 부산은 물론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공연 및 기획 활동
7	올모스트퍼이머스	부산의 편협한 음악 공간, 로컬 DJ와 뮤지션들의 공연장
8	15 feet under	언더그라운드 뮤직클럽
9	드림홀(구, 오즈홀)	라이브전용극장
10	비온드개러지	부산의 서브 컬처 신을 만드는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파티, 패션 브랜드의 론칭 행사와 팝업 스토어 개최

4. 공연예술관련 단체

1) 개요

서브컬처 문화 자체가 주류 문화에 비해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업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적 조건과 함께 언론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서도 흥미위주로 다루거나 행사의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등 청년문화예술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서브컬처 문화를 중심에 둔 전문적인 공연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연 그 자체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결국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적 측면에서의 창작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기획에 있어서의 고민 지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서 2000년대를 지나오며 증가되던 플레이어의 수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급격히 감소하거나 이탈하고 있다는 것도 지역 문화의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최근 활동하는 부산지역 청년문화관련 공연예술팀의 특징으로는 장르의 다양화를 들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 행사에 결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 단위 행사,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이 작은 지역 행사에서도 인디뮤지션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사라진 공연공간도 많지만, 새로운 공간들이 등장하고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 센터와 같은 공공매개시설이 생겨나면서 무대의 폭도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하고 지역의 스튜디오나 레이블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여 음반을 제작, 기획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서울에서처럼 클럽 등지에서의 자유로운 음반의 유통이나 팬진(fan-zine)의 발행 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과 홍보에서도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공연이나 지인을 통해 판매하며, 몇몇 단체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연예술관련 단체로 뮤지션, 힙합크루, 댄스팀 중 지역에서 활동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개인, 단체를 살펴본다. 단, 앞의 공간과 라이브클럽에서 다룬 팀들을 참고하길 바란다.⁷⁾

2) 현황

(1) 부산 인디뮤지션 현황

부산 인디뮤지션의 근황은 2013년 발매된 컴필레이션 음반 〈특별시부산〉의 소개글(방호정)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인디 indie’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홍대 앞’을 연상시킨다. 허나 트렌드를 쫓아 주류 제도권에 진입하려 경

7) 인디밴드 관련 역사 자료는 부산발전연구원, 2009, 「부산독립문화를 말하다」를 인용하였다.

쟁하는 팀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디의 경계조차 흐릿하고 무색해지고 있는 홍대 앞 인디 씬을 둘러보면, 미국의 LA, 씨애틀, 영국의 맨체스터, 브리스톨처럼 어딘지 다른 색깔과 냄새, 감성을 품은 건강한 로컬 씬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 현재 항구도시 부산을 기반으로 매스미디어의 열화와 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하지만 치열하게 자신들의 음악을 펼쳐오고 있는 10개의 로컬 팀이 참여한 부산인디 컴필레이션 앨범 '특별시 부산'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인디 씬이 형성되기 이전 1980년대 헤비메탈 전성기 때부터 대표적인 락 씬터의 명성을 떨쳐왔던 부산은 1990년대 후반 부산 1세대 인디밴드들의 연합 '갈매기 공화국'을 결성해 과거 British Invasion을 연상시키는 서울침공을 시작했다. 공중파 TV 프로그램 탐 밴드2의 우승팀이자 각종 대형 락 페스티벌의 종결자인 피아, 두장의 명반을 발매하고 2013년 두 개의 대중음악상을 차지한 정차식이 보컬로 활동했던 귀족메탈의 전설 레이니 씬, 수많은 히트 드라마 O.S.T 작업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에브리싱글데이, 10여년 만에 깜짝 재결성 되어 건재함을 과시한 밴드 앤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특별시 부산'에 참여하고 있는 10개의 부산 로컬 밴드와 싱어 송 라이터들 역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화적 메인스트림인 서울침공에 성공했던 '갈매기 공화국' 선배들보다 훨씬 더 발칙한 반란을 꿈꾸고 있다. 그들의 고향 부산을 또 다른 '메인스트림'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들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⁸⁾

(2) 부산 록밴드의 역사

TV에선 김태원이나 신대철 등이 출연해 1980-1990년대의 록을 이야기한다. 그때는 소위 록의 부흥기로, 부활이나 시나위, 백두산 같은 대형 밴드가 주류였다. 이때 부산출신 밴드의 등장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록 음악의 메카는 서울보다 부산과

8) 해묵은 오해와 편견에 대한 대한민국 인디 록별시 부산의 대답. - '특별시 부산'

인천이란 인식이 컸고, 부산과 인천 출신 뮤지션들이 실력으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1987년 결성된 '프라즈마'는 대도레코드에서 당시 파격적으로 제작한 국내 록 밴드 모음집 'Friday Afternoon' 2집(1989)에 곡이 수록되면서 그 실력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보컬 이승철(후에 이시영으로 개명), 신해철의 '빅스트'와 '노바소닉'에서 드러머로 활동한 이수용, 빅스트의 초기 기타리스트이자 컴퓨터음악 관련 회사 '이코시스템' 대표인 임창수 등이 멤버였다.

1989년에는 국내 최초의 바르크메탈을 표방한 '디오니소스'가 1집을 발표했다. 녹음상태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배재범의 잉베이 맘스틴에 버금가는 스윙 피킹, 속주, 작곡 실력, 이시영의 파워풀한 보이스는 당시 국내 록 마니아들의 호응을 얻을 만했다. 1집에서 세션으로 참여한 이시영, 유원석, 박오식이 정식멤버로 들어오면서 1990년엔 보다 안정적인 사운드와 완성도로 2집을 발매한다. 그해 가을, 배재범과는 또 다른 감성을 지닌 테크니션 기타리스트 임덕규가 정통 헤비메탈과 네오_클래식컬 메탈적 요소를 지닌 '스트레인저'를 결성해 1집을 발매했다. 이 앨범은 음악성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성공도 거두면서 부산 밴드의 저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임덕규는 이후 '스트레인저' 2집을 발매하고 현재 '나는 가수다' 출연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임재범과 함께 '재규어'란 그룹을 결성해 왕성히 활동했다.

디오니소스와 스트레인저의 활동을 기반으로 기타리스트 김정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드러머 중 하나인 박철우 등이 속한 '아마게돈'(1990), 이시영, 박철우와 '활화산' 출신의 서안상, 안희태가 참여한 '미스테리'(1993) 등이 그 계보를 이어갔다.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밴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활동 영역을 넓혀갔고, 서울의 유명 밴드 못지않은 인지도를 쌓는 계기가 됐다.

소위 잘나가던 밴드 멤버들은 유독 대학 밴드 동아리 출신이 많았다. 이시영은 부산대학교 미케닉스 출신이며, 김정태와 박철우는 동아대학교 ACE, 임덕규는 다른 동아리인 옥타브에서 활동했었다. 이런 까닭에 대학 밴드 동아리는 가입할 때 높은 경쟁률의 오디션을 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그만큼 수준 높은 연주자도 많았다. 기성세대들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건 어느

정도 묵인해 준 것도 인기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당시 대학 밴드 동아리는 정기연주회가 되면 400-5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IMF 이후 밀어닥친 경제난은 대학 밴드 쇠퇴로 이어졌고, 실용음악과의 신설로 쇠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다. 현재 대학 밴드 동아리는 그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부산 출신 밴드들의 활동 뒤에는 기획사이자 밴드들의 연습실이기도 했던 메탈라이브와 조 베이스(조국일)가 있었다. 양정의 한 지하연습실에서 밴드 합주실 겸 학생들의 악기교습소로 시작하면서 문을 연 메탈라이브는 이후 부산진역 근처에 자리를 잡고 디오니소스, 스트레인저, 아마게돈 같은 앞서 소개한 밴드들을 배출하게 된다. 아마게돈 1집 표지에 '부산 메탈라이브 1기 출신의 아마게돈'이라는 문구를 넣을 만큼 메탈라이브의 영향력은 컸다. 이후 메탈라이브는 부산대학교 앞으로 옮겼다가 이내 서면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때가 1993년이었는데 미스터리, C.O.B, 와일드 로즈 같은 밴드가 메탈라이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된다.

부산 록 씬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밴드들은 짧지만 굵은 발자취를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에도 박철우, 이덕산, 이수용은 음악계에서 꽤 이름 있는 연주자로 활동 중이며, 이시영, 김정태, 임덕규, 박오식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쓰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⁹⁾

(3) 부산 인디락페스티벌

부산인디록페스티벌은 매년 축제적인 행사 차원에서 부산 인디록 페스티벌 공연을 유치함에 있어 상업적인 모색을 탈피하여 밴드와 클럽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음악적 교류와 상호간의 협력적인 차원에서 갈수록 어려운 부산 록공

9) <부산일보, 김종군이 본 부산 밴드 어제와 오늘 : 부산 록 밴드의 역사>

연에 획일적인 돌파구 마련으로 그 취지를 삼고 있다. 2000년 10월 17일(화) 부산 시민회관에서 제1회 인디락페스티벌 인 부산 공연이 첫 시작이었으며, 2003년 2회 개최 이후 2009년 까지 이어지다가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12년 제 8회 인디록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부산인디 록페스티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의 지원 없이 부산의 록밴드 발전은 위해서라는 교감만으로 부산 지역의 공연관련 업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출연밴드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진정한 인디 정신을 이어가는 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부산밴드발전협의회 주최, 알파사운드, 셋업악기, 조인조명 주관, Rock Mania가 기획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부산인디록페스티벌 홈페이지(카페)에 정리된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안더 문화와 부산 락 음악의 저변성 확대
- 획일화 되어 가는 공연문화의 새로운 시발점 모색
- 록 음악을 즐기는 10대와 20대의 매니아층 모색
- 침체되어 가는 록 클럽과 점점 획일화되어 가는 음악주류에 대한 경계심 고취
- 인디(언더) 문화의 체계적인 공연문화 정착
- 수도권에 집중된 락 공연에 대한 지방공연의 새로운 출발점

인디록페스티벌 출연자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부산지역 인디록페스티벌 출연자

구분	내용
2000년 10월	빨간왜지, 레몬크러쉬, 점핑 플라워, 앤, 주드, 허디마마, 퍼플 헤이즈, 유테로, 내린비피, 번사체, 런캐럿, 노트래쉬, 스타벅스, 파머스, 파인타부, 스무키드, 데릭, 신디케이트
2003년 12월	언체인드, 바운스, 노트래쉬, 주드, P.K, 컨텐더스, 니폴하임, 엑소더스, 개차반, 리온
2004년 12월	컨텐더스, 노트래쉬, 신디케이트, 언체인드, 데프, P.K, 니폴하임, 헬디스타임, 리트머스, 21스캇
2008년 12월	노트래쉬, 마라, 컨텐더스, 언체인드, 21스캇, 블루 아일랜드, 리트머스, 버진 클레이, 루키도그스타즈

구분	내용
2007년 12월	21스캇, 데릭, 라루나, 망각화, 리트머스, 언체인드, 노트래쉬
2008년 12월	언체인드, 사우스베이, 21스캇, 노트래쉬, 판다즈, 비바체, 나비맛, 문사출, 슬로스, 크로스펜던트
2009년 12월	DC밴드, 우주농담, 바나, 판다즈, 언체인드, 마이너리티그룹, 마마손, 나쵸푸파, 사우스베이, 문사출, 데릭
2012년 11월	21Scott, 경교밴드, 옐로로코, 키키, 판다즈, 허츠, D.H.M.P, 몽키비츠, 에브리싱글데이, 과매기, 데미지아, 문사출, 미래락, 보니파이, 신디케이트, 언체인드, 진리프로젝트, 피버독스, 히든히어로, H2O, 디아블로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인디뮤지션 단체 현황은 총 26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5〉 부산지역 인디뮤지션단체 현황

구분	내용
1	21Scott 2001년 런캐럿 밴드에서 활동하는 이태훈, 남상준과 스티브스 김성훈이 만나 결성
2	경교밴드 최근 2012 슈퍼스타K 시즌4 슈퍼위크에 진출하여 주목
3	옐로로코 스캇 펑크, 락앤롤 장르를 구사하는 4인 펑크 밴드
4	판다즈 2005년 부산에서 결성된 4인조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밴드
5	과매기 부산을 기점으로 전국, 나아가 해외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메탈·하드코어 성향의 밴드
6	언체인드 2005년에 진저 레코드(Ginger Records)를 설립하고, 로컬 밴드들의 앨범 제작 및 기획을 총괄
7	김일두 부산에서 가장 핫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펑크 록 밴드 '지니어스'의 보컬
8	김태춘 데뷔음반 [가축병원블루스]는 컨트리, 포크 블루스에 뿌리를 두고있음
9	피버독스 2009년 9월 부산인디씬의 중고 산인들이 모여 결성
10	핫퍼퍼파스타 남미 분위기의 펑키한 재즈밴드
11	STONED(스톤드) 다양한 장르의 펑크락 음악을 연주

구분		내용
12	곰창카레	통기타, 하모니카, 비보이 댄스를 중심으로 주로 해운대 동지에서 버스킹
13	유미	부산에서 활동중인 여성 싱어송라이터
14	문센트	4인조 어쿠스틱 밴드
15	개차반	한국적인 그루브와 핑키한 사운드를 추구
16	매닉시브	산을 근간으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을 누비며 클럽 및 여러 기획 공연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
17	버 BURR	부산과 대구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록밴드로 2013년 〈시잇 골디스커버리〉, 〈제로퍼스티벌〉, 〈아트캠핑퍼스티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클럽 공연에 참여
18	이내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기타와 목소리로 노래
19	나까 NACCA	도쿄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20	스카워이커스	'부산국제락퍼스티벌'을 비롯한 부산을 대표하는 수많은 축제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울산, 제주, 후쿠오카 등 국내·외 주요도시에서 공연
21	하퍼스	로큰롤(Rock 'n' Roll) 초창기 음악 스타일 가운데 하나인 로커빌리(Rockabilly)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로 활동
22	SIDECAR(사이드캐)	부산 핑크 밴드
23	허르츠	2011년 결성된 밴드로 주로 부산에서 활동중이며, Alternative Rock 또는 Post-Grunge 성향의 음악을 연주
24	진리프로젝트	4인조 모던락 밴드
25	허드터너	감성락밴드
26	배드트리거 (Bad Trigger)	포스트락에 사이키델릭 성향을 가미한 독특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

이밖에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힙합, DJ, 댄스팀 현황은 총 11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6〉 부산지역 힙합 DJ·댄스팀 현황

구분		내용
1	OVERFLOW	부산의 힙합 레이블 ALIVE MUSIC 소속
2	MASSTIGE	ALIVE MUSIC 소속 뮤지션
3	GST	ALIVE MUSIC 소속 뮤지션이자 영상 감독
4	부두 크루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아닌 부산 로컬 중심의 영향력있는 아티스트 및 스트릿 피플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
5	Che 先生 JU	'Sound Bombin'과 most Infamous를 통해 시대성을 넘나들며 소울, 힙크, 힙합 음악들을 선보이고 있음
6	Dusty Dols	빅슈가와 올모스트퍼이머스 레지던트 DJ로 활동 중
7	건봉, 건봉스튜디오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즐거운 잔치문화 조성
8	젊은풍류	공연연주단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악 클래식 현대음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
9	킬리몽키즈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모아 발전적이고 보다 즐거운 길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
10	M-note 현대 무용단	현대 무용단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창작 활동
11	부산노리단&달록	부산의 자원들을 활용한 해양, 생태, 다문화, 글로벌 축제 등의 아이템을 기획하고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준비 중

5. 시각예술·인문학 관련 단체

1) 개요

해외 작가들도 찾아올 만큼 명소가 되었던 온천천 그래피티 현장이 관청의 물이 해로 사라진 경우, 디자인·일러스트·만화·수공예품·타투 등 창작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아직 부족한 지역 사회(특히, 인건비 등), 지역 내에서 비슷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부족(서울 등으로 이탈) 시각예술 분야의 젊은 청년문화 인들은 지역 이탈을 고민하는 현실적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작가들 스스로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서로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변하는 매체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성장해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의 인식 전환과 부천의 만화 지원센터와 같은 적극적인 공적지원이 지역 내 시각예술 분야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중요지점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청년문화관련 대표적인 시각예술, 인문학단체의 경우 활동의 특성상 주로 소규모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대안공간 반디, 오픈스페이스 배, 독립문화공간 아지트가 그러한데, 반디의 경우는 사라졌으며, 배의 경우도 아파트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아지트의 경우 본래 위치했던 건물에서 최근 재래시장 주변 주택으로 이주하였으나, 원룸 건축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처럼 역사성있는 주요한 청년문화관련 시각단체들이 예산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공간을 제대로 확보·운영하고 있지 못하면서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위 3개 단체와 함께 아래에 소개되는 꽃마을, 비아트협동조합들도 각자의 공간을 통해 전시는 물론 국내·외 작가들과의 레지던스, 강좌 프로그램, 잡지 발간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실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시각문화예술을 선보이고 있지만 공간 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실정이다.

2) 현황

부산지역 시각예술·인문학 관련 현황은 총 5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7〉 부산지역 시각예술·인문학 현황

구분		내용
1	부산자연예술인협회, 꽃마을아트스튜디오	현대미술의 저변 확대와 이해 증진을 이루고자 노력
2	비아트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 도모
3	온천천 그래피티	온천천 산책로 벽면 약 2km는 '그래피티 메카, 성지'로 조성
4	생활예술모임 공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2013년 7월, 문학평론가 김대성과 미술작가 송진희가 연 모임
5	부대프리마켓 아마존, 도모	온천천에서 매주 일요일 이루어지는 프리마켓

6. 잡지(출판·디자인)·영상

1) 개요

독립출판이란 대량 시스템이 아닌 1인, 소수 출판 체제로 디자인, 인쇄, 유통 등 기획에서 제작까지 전부 맡아 진행하는 소규모의 창작 출판물을 말하며 소규모 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지역 잡지의 중요성은 지역의 젊은 인재 발굴 및 문화정보의 아카이빙 및 전달, 그리고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간과하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명을 통하여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잡지, 영상의 특징은 그동안 주류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실험적이고, 소규모적인 청년문화활동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비평하면서 지역사회에 적

국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사회에 부족했던 젊은 비평가의 발굴을 통한 비평문화의 확산과 홍보, 출판 등의 디자이너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층을 두텁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정보지 '보일라'에서부터 최근 발행되기 시작한 '안녕 광안리'까지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문제 및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겪고 있다.

2) 현황

부산지역 잡지(출판·디자인)·영상 관련 현황은 총 10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8〉 부산지역 잡지(출판·디자인)·영상 현황

구분		내용
1	문화잡지 보일라	신인예술가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 문화예술 잡지
2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광안리와 부산문화의 숨겨진 속살을 찾아내서 새롭게 조망
3	개념미디어 바삭	예술가들과 대학생, 직장인 등이 모여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귀 기울이며 응원하는 수다집단
4	호랑이출판사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담아냄
5	부산독립출판연구소	부산의 유일한 독립출판 교육 및 연구단체
6	함께가는 예술인	부산민여흥에서 발행하는 지역문화예술잡지
7	그린그림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8	그래픽크 제이	지역문화기반 디자인 및 아트 그룹
9	미디어토리 협동조합	시민들이 공공미디어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활동을 지원
10	부산독립영화협회	1999년부터 부산에서 독립영화의 상영, 배급을 담당하고 부산영화정책을 제언하며 일반인들에게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7. 포럼·세미나·네트워크

1) 개요

부산인디포럼, 부산청년포럼 등이 있으나 서울의 문화연대와 같은 포럼, 세미나 등의 왕성한 활동을 진행 중인 단체나 프로그램은 없다.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형태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산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축제 행사 등을 통하여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2) 현황

포럼·세미나·네트워크 관련 현황은 총 6개가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다룬다.

〈표 Ⅲ-9〉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현황

구분		내용
1	부산청년포럼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일발장전	장전동 지역을 배경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팀
3	대학생문화나눔공동체 소울	부산에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꿈꿀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팀
4	청소년문화예술커넥션 studio54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스터디 이자 네트워킹 커넥션
5	청소년 문화단체 [사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성장해나가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6	히어로스토리	사회적기업 ㈜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과 협업하여 청소년·대학생 프로그램을 진행 중

IV. 전문가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결과
3. 추진 우선순서
4. 시사점

IV. 전문가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교수,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청년문화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부산 청년문화 사업관련 중요성·과급성·시급성 정도, 부산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함으로써, 부산의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장기적인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조사 설계

(1) 표본 설계

- 조사 대상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교수,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종사자 등)
- 표본 크기 : 102명
- 표본추출방법 : 임의 표집

(2) 자료수집 방법

- 자료수집도구 : 조사목적에 맞게 작성된 설문지
- 조사 방법 : 방문면접, E-mail, 팩스 조사를 포함한 복합조사
- 조사 기간 : 2014년 10월 20일 - 11월 7일

3) 응답자 특성

(1) 성별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64.0%, 여성 36.0%로 나타났다.

〈표 IV-1〉 전문가설문 응답자 성별

항목	빈도	%
남성	64	64.0
여성	36	36.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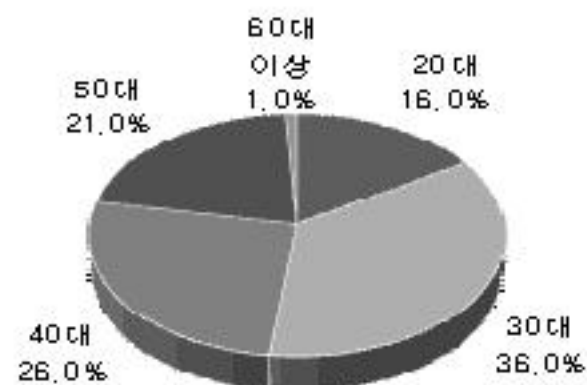
〈그림 IV-1〉 전문가설문 응답자 성별

(2) 연령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16.0%, 30대 36.0%, 40대 26.0%, 50대 21.0%, 60대 이상 1.0%로 30대(36.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 전문가설문 응답자 연령

항목	빈도	%
20대	16	16.0
30대	36	36.0
40대	26	26.0
50대	21	21.0
60대 이상	1	1.0
합계	100	100.0



〈그림 IV-2〉 전문가설문 응답자 연령

(3) 소속

응답자의 소속은 공공기관이 4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련협회·단체 26.0%,

민간기업 12.0%, 대학교 11.0%, 연구기관 4.0%, 언론 2.0%, 시민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전문가설문 응답자 소속

항목	빈도	%
대학교	11	11.0
연구기관	4	4.0
공공기관	44	44.0
관련협회/단체	28	28.0
민간기업	12	12.0
언론	2	2.0
시민단체	1	1.0
합계	100	100.0



〈그림 IV-3〉 전문가설문 응답자 소속

(4) 관련분야

응답자의 관련분야는 사회·문화가 5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획·연출 16.0%, 연극·영화·영상 11.0%, 예술가 7.0%, 전시·컨벤션·이벤트 4.0%, 광고·홍보 3.0%, 공연·연주, 기타 각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전문가설문 응답자 관련분야

항목	빈도	%
전시/컨벤션/이벤트	4	4.0
기획/연출	18	18.0
연극/영화/영상	11	11.0
광고/홍보	3	3.0
사회/문화	55	55.0
공연/연주	2	2.0
예술가	7	7.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그림 IV-4〉 전문가설문 응답자 관련분야

(5) 근무연수

응답자의 근무연수는 5년 미만 48.0%, 5년~10년 미만 17.0%, 10년~15년 미만 11.0%, 15년~20년 미만 9.0%, 20년~25년 미만 7.0%, 25년 이상 8.0%로 5년 미만 (48.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 전문가설문 응답자 근무연수

항목	빈도	%
5년 미만	48	48.0
5년~10년 미만	17	17.0
10년~15년 미만	11	11.0
15년~20년 미만	9	9.0
20년~25년 미만	7	7.0
25년 이상	8	8.0
합계	100	100.0



〈그림 IV-5〉 전문가설문 응답자 근무연수

〈표 IV-6〉 전문가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64	64.0
	여성	36	36.0
연령대	20대	18	18.0
	30대	36	36.0
	40대	28	28.0
	50대	21	21.0
	60대 이상	1	1.0
소속	대학교	11	11.0
	연구기관	4	4.0
	공공기관	44	44.0
	관련협회/단체	28	28.0
	민간기업	12	12.0
	언론	2	2.0
	시민단체	1	1.0
관련분야	전시/컨벤션/이벤트	4	4.0
	기획/연출	18	18.0
	연극/영화/영상	11	11.0
	광고/홍보	3	3.0
	사회/문화	55	55.0
	공연/연주	2	2.0
	예술가	7	7.0
	기타	2	2.0
근무연수	5년 미만	48	48.0
	5년~10년 미만	17	17.0
	10년~15년 미만	11	11.0
	15년~20년 미만	9	9.0
	20년~25년 미만	7	7.0
	25년 이상	8	8.0
합계		100	100.0

2. 주요 조사결과

1) 부산지역 청년문화 개념 및 범위

(1) 부산시 조례의 '청년문화'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청년문화'의 정의¹⁰⁾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동의한다 76.0%, 동의하지 않는다 24.0%로 정의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7〉 부산시 조례의 '청년문화'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항목	빈도	%
동의한다	76	76.0
동의하지 않는다	24	24.0
합계	100	100.0



〈그림 IV-6〉 부산시 조례의 '청년문화'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청년문화'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의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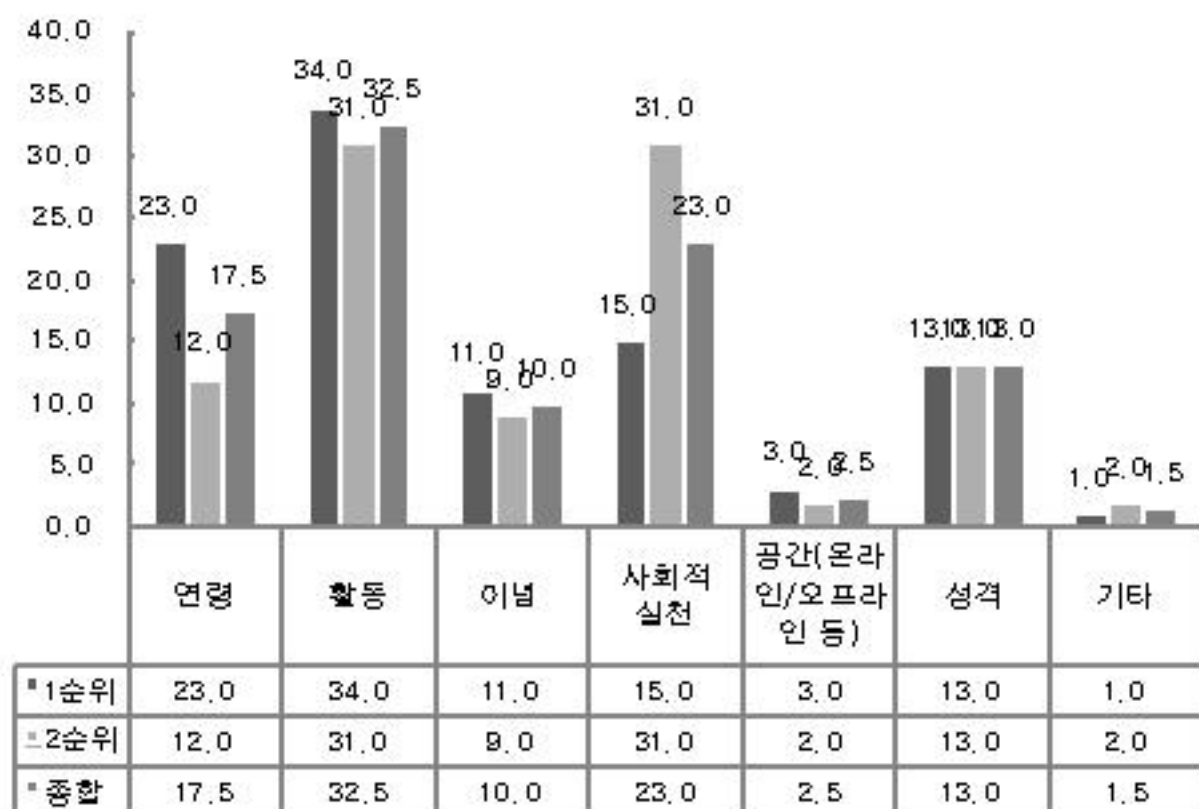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은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례에서의 청년문화는 문화예술활동의 주체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
- '청년문화'를 정의할 때 '청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학적으로 청년을 몇 살 정도까지 등에 관한 근거아래 청년문화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년이 아닌 사람도 새롭고 다양한 창조를 지향할 수 있으므로 '청년문화' 개념 설정이 모호하다. 기본적으로 청년문화라는 개념에는 도전적·완성 가능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더 성숙된 문화의 발전을 보이는 전인차 역할을 하는 중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만을 창조한다고 해서 '청년문화'라 정의 할 순 없다.
-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는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특정 연령을 지칭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 청년문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인 것 뿐 아니라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청년문화라 할 수 있다. 현재 조례에는 주어가 없으므로 원로예술인들도 새로운 다양한 것을 창조하면 '청년문화'로 해석할 수 있다.
- '청년'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지만 장년보다 세상물정에 이기적 판단이 계산적이라면, 또는 행동양식이 현실적인 이익에 안주한다면 청년문화라고 규정할 수 없다. 명확한 정의를 보충하여 규정지어야 한다.
- 특별히 '청년문화'라는 이슈가 등장한 배경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적 지향점, 활동 패턴 등의 차이로) 기독권을 가진 집단 및 부류 속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인디펜던트'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2)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순위 응답은 활동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령 23.0%, 사회적 실천 15.0%, 성격 13.0%, 이념 11.0%, 공간(온라인·오프라인 등) 3.0%,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활동과 사회적 실천이 각 3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격 13.0%, 연령 12.0%, 이념 9.0%, 공간(온라인·오프라인 등), 기타 각 2.0% 순으로 평가되었다.

1, 2순위 종합결과(200case)는 활동이 3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실천 23.0%, 연령 17.5%, 성격 13.0%, 이념 10.0%, 공간(온라인·오프라인 등) 2.5%,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미안드, 분야, 고용형태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7〉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다중응답)

(3) 청년문화의 비전 설정에 포함되어야 키워드

제시된 보기 이외에 청년문화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하는 키워드는 총 85명의 응답자가 244건의 키워드를 응답하였다.

응답된 키워드는 도전이 11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의성 10건, 실험 9건, 소통 8건, 다양성, 창조성 각 6건, 공감, 공유 각 5건, 변화, 역동성, 혁신 각 4건, 공동체, 독립성, 실천, 융·복합, 일상, 자유, 저항, 존중 각 3건, 가치관, 개방, 개성, 글로벌, 나눔, 봉사, 상상력, 실험예술, 연대, 열정, 예술, 자립, 젊음, 정체성, 진보, 진취성, 커뮤니티, 패기, 협동, 협력 각 2건으로 나타났다.

1건씩 응답된 키워드는 1인활동, 가능성, 가족, 가치, 가치지향적 삶과 실천, 개방성, 경험, 관계, 관용, 관용성, 교류, 국제적 교류, 균형잡힌 지성, 기본소득, 기획, 다원성, 단합, 대안, 대안공간, 대안문화, 대학(초중고) 예술교육, 독창성, 디자인, 리더쉽, 마을, 마인드, 문화공유, 문화교육, 문화다양성, 문화발전기여, 문화복지, 문화예술, 문화의이해, 문화적 지역국가, 문화축매, 문화컨텐츠, 미래예술인 발굴, 민주, 발굴, 배려, 보람, 비전, 비주류예술, 비판의식, 비판적 시각, 사회공헌, 사회융합,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사회적 활동, 사회포용, 새로운 문화주도, 새로운 시도, 생성, 생존, 생활, 서브컬처, 선도적, 성취감, 세대간 교류, 소속, 순환, 시민성, 시민의 협조성, 신선했, 실패를 인정, 완성 지향, 육성, 융합성, 인디, 인문학, 인문학적 실천, 인식, 인정, 자발성, 자아실현, 자율성, 장르, 재미, 전문가 양성, 전통, 정신문화유산의 가능성, 정체감, 주거지원, 즐거운삶, 지속적 발전, 지역행사 참여, 지원, 차별성, 창의적 가치실현, 창조문화, 철학, 청년들의 욕구 대변, 청년정신, 청년주거, 최저임금인상, 탈경계성, 탈기성성, 탈위계성, 행동, 현재, 협업, 화합, 환기(re-fresh), 활동, 활동 공간, 활성화, 희망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V-8〉 청년문화의 비전 설정에 포함되어야 키워드

항목	응답수	%
도전	11	4.5
창의성	10	4.1
실험	9	3.7
소통	8	3.3
다양성 / 창조성	각 6	각 2.5
공감 / 공유	각 5	각 2.0
변화 / 역동성 / 혁신	각 4	각 1.6
공동체 / 독립성 / 실천 / 융·복합 / 일상 / 자유 / 저항 / 존중	각 3	각 1.2
가치관 / 개방 / 개성 / 글로벌 / 나눔 / 봉사 / 상상력 / 실험예술 / 연대 / 열정 / 예술 / 자립 / 젊음 / 정체성 / 진보 / 진취성 / 커뮤니티 / 패기 / 협동 / 협력	각 2	각 0.8
1인활동 / 가능성 / 가족 / 가치 / 가치지향적 삶과 실천 / 개방성 / 경험 / 관계 / 관용 / 관용성 / 교류 / 국제적 교류 / 균형잡힌 지성 / 기본소득 / 기획 / 다원성 / 단합 / 대안 / 대안공간 / 대안문화 / 대해(초중고) 예술 교육 / 독창성 / 디자인 / 리더십 / 마을 / 마인드 / 문화공유 / 문화교육 / 문화다양성 / 문화발전기여 / 문화복지 / 문화예술 / 문화의이해 / 문화적 지역국가 / 문화축매 / 문화컨텐츠 / 미래예술인 발굴 / 민주 / 발굴 / 배려 / 보람 / 비전 / 비주류예술 / 비판의식 / 비판적 시각 / 사회공헌 / 사회융합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활동 / 사회포용 / 새로운 문화주도 / 새로운 시도 / 생성 / 생존 / 생활 / 서브컬처 / 선도적 / 성취감 / 세대간 교류 / 소속 / 순환 / 시민성 / 시민의 협조성 / 신선함 / 실패를 인정 / 완성 지향 / 육성 / 융합성 / 인디 / 인문학 / 인문학적 실천 / 인식 / 인정 / 자발성 / 자아실현 / 자율성 / 장르 / 재미 / 전문가 양성 / 전통 / 정신문화유산의 가능성 / 정체감 / 주거지원 / 즐거운삶 / 지속적 발전 / 지역행사 참여 / 지원 / 차별성 / 창의적 가치실현 / 창조문화 / 철학 / 청년들의 욕구 대변 / 청년정신 / 청년주거 / 최저임금인상 / 탈경계성 / 탈가상성 / 탈위계성 / 행동 / 현재 / 협업 / 화합 / 환기(re-fresh) / 활동 / 활동 공간 / 활성화 / 희망	각 1	각 0.4
합계	244	100.0

2)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1)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의 중요성·파급성·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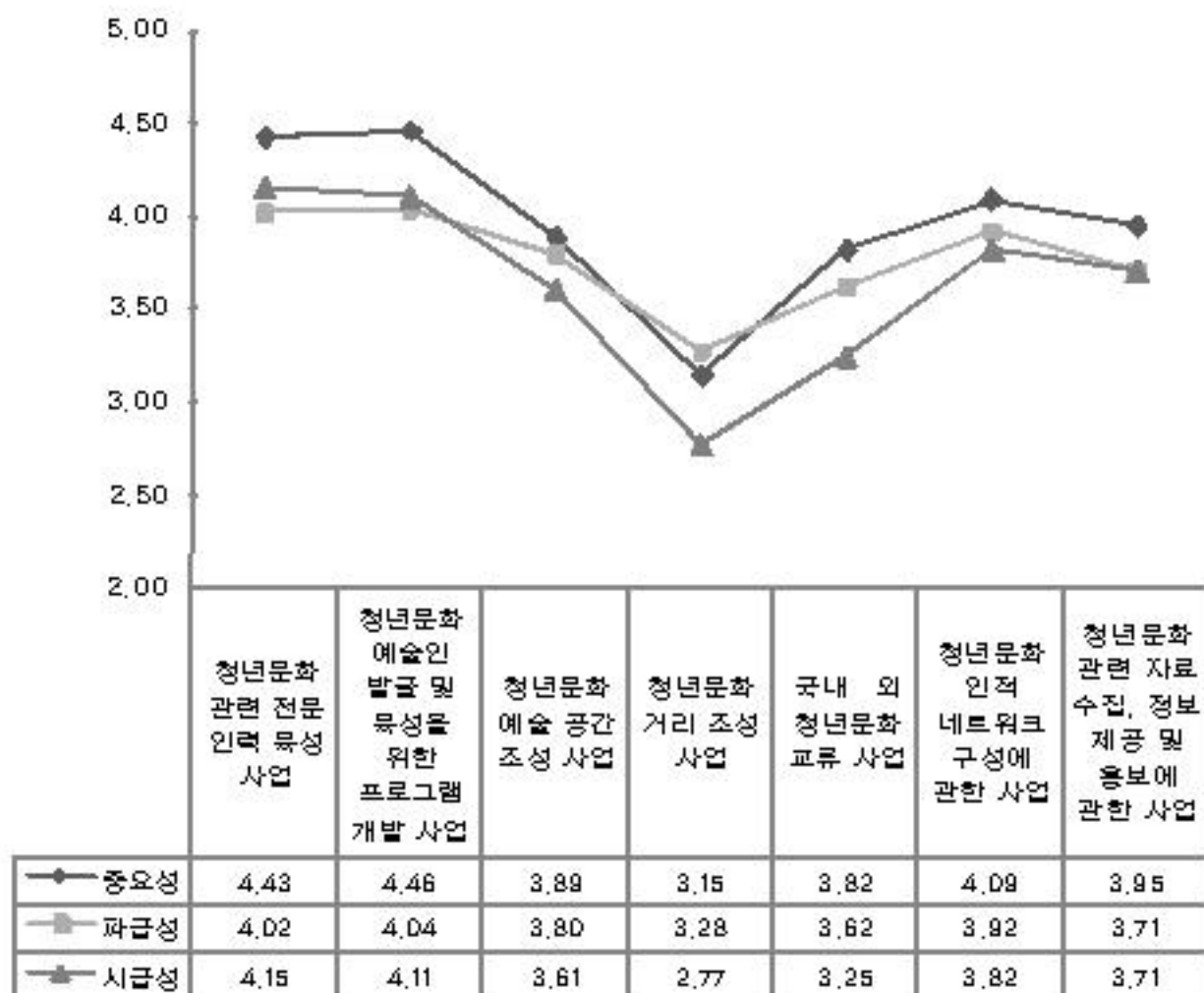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중 먼저 중요성차원에서 5점 척도 평균은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4.46),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4.43),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4.09),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3.95),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3.89),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3.82),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3.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5점 평균 비교

항목	중요성		파급성		시급성	
	5점 평균	표준 편차	5점 평균	표준 편차	5점 평균	표준 편차
1)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4.43	0.820	4.02	0.943	4.15	0.938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4.46	0.688	4.04	0.862	4.11	0.827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3.89	1.043	3.80	1.035	3.61	1.100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3.15	1.095	3.28	1.138	2.77	1.072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3.82	0.978	3.62	1.013	3.25	0.989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4.09	0.877	3.92	0.849	3.82	0.938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95	0.889	3.71	0.935	3.71	0.998

둘째, 파급성차원에서는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4.04),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4.02),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3.92),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3.80),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3.71),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

업'(3.62),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3.28)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급성차원은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4.15),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4.11),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3.82),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3.71),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3.61),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3.25),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2.7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8〉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5점 평균 비교

(2)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청년문화사업 항목¹¹⁾ 이외의 청년문화 및 지원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이 응답되었다.

- '청년문화 수도사업'과 같이 공공차원의 청년문화 활성화사업이 상시화 되어야 한다.
- 모델화 작업 등 이미 직·간접적으로 청년문화 사업이나 활동을 주도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단체(조직) 또는 개인의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 정책적 지원과 조직적 후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문화 개발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중 직장인이거나 소속이 있는 경우 그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금전적 지원과 해당 소속처에 대한 협조·후원 요청이 필요하다.
- 지역을 토대로 한 생산 및 창작 활동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 청년문화 아트마켓 사업 등 교류와 유통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경제적 자립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 문화예술 인문학 교육 사업과 같이 사회와 문화예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관점을 키워준다면 보다 양질의 청년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다.
-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서 컨설팅 등의 양성보조 사업이나 재원조성(재원, 인력, 조직 구성 등)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1) 제7조(청년문화사업)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중요성·파급성·시급성별 사업 발굴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연구의 1차 자문회의 결과 도출된 사업 중 첫째, 중요성차원은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4.14),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4.12),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4.10), '부산지역 거점 공간 육성 사업'(3.94), '부산 자체창작 프로그램 추진 사업'(3.92),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상호 교류'(3.80),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3.73),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사업'(3.72),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3.61), '부산지역 청년 문화 네트워크 축제 개최'(3.59),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개최'(3.55), '부산지역 청년마켓 사업'(3.41),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3.40),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3.32), '부산지역 spot릴레이공연 사업'(3.31),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3.26),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2.9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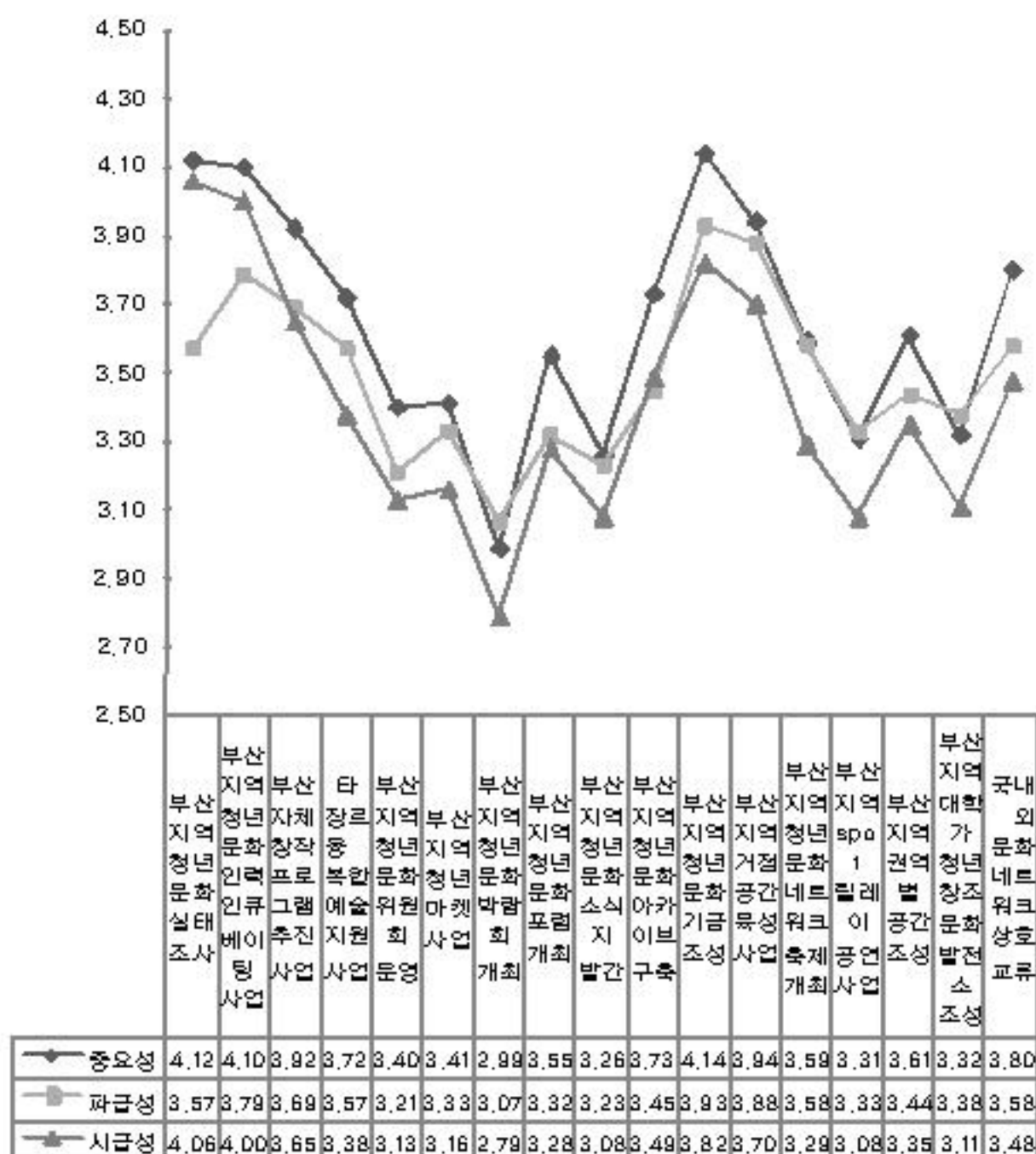
둘째, 파급성차원에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3.93),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사업'(3.88),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3.79), '부산 자체창작 프로그램 추진 사업'(3.69),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개최'(3.58),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상호 교류'(3.58),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3.57),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사업'(3.57),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3.45),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3.44),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3.38), '부산지역 청년마켓 사업'(3.33), '부산지역 spot릴레이공연 사업'(3.33),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개최'(3.32),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3.23),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3.21),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3.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업의 시급성은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4.06),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4.00),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3.82), '부산지역 거점 공간 육성 사업'(3.70), '부산 자체창작 프로그램 추진 사업'(3.65), '부산지역 청년 문화 아카이브 구축'(3.49),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상호 교류'(3.48),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사업'(3.38),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3.35), '부산지역 청년

〈표 IV-10〉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방안 5점 평균 비교

항목	중요성		파급성		시급성	
	5점 평균	표준 편차	5점 평균	표준 편차	5점 평균	표준 편차
1)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4.12	0.924	3.57	0.998	4.08	0.983
2)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	4.10	0.948	3.79	0.988	4.00	0.953
3) 부산 자체창작 프로그램 추진 사업	3.92	0.907	3.69	0.895	3.65	0.914
4)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사업	3.72	0.830	3.57	0.902	3.38	0.874
5)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3.40	1.025	3.21	1.038	3.13	1.143
6) 부산지역 청년마켓 사업	3.41	0.954	3.33	0.933	3.16	0.982
7)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	2.99	1.087	3.07	1.121	2.79	1.157
8)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개최	3.55	1.123	3.32	1.043	3.28	1.138
9)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	3.28	0.895	3.23	0.983	3.08	0.961
10)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3.73	1.100	3.45	1.038	3.49	1.030
11)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	4.14	0.910	3.93	0.924	3.82	1.067
12)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사업	3.94	0.919	3.88	0.913	3.70	0.980
13)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개최	3.59	1.074	3.58	1.046	3.29	1.018
14) 부산지역 spot릴레이공연 사업	3.31	1.107	3.33	1.138	3.08	1.041
15)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	3.61	1.004	3.44	1.028	3.35	1.067
16)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	3.32	1.091	3.38	1.042	3.11	1.063
17)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상호 교류	3.80	0.985	3.58	0.978	3.48	1.000

문화 네트워크 축제 개최'(3.29),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개최'(3.28), '부산지역 청년마켓 사업'(3.16),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3.13),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3.11),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3.08), '부산지역 spot릴레이공연 사업'(3.08),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2.79)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9〉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방안 5점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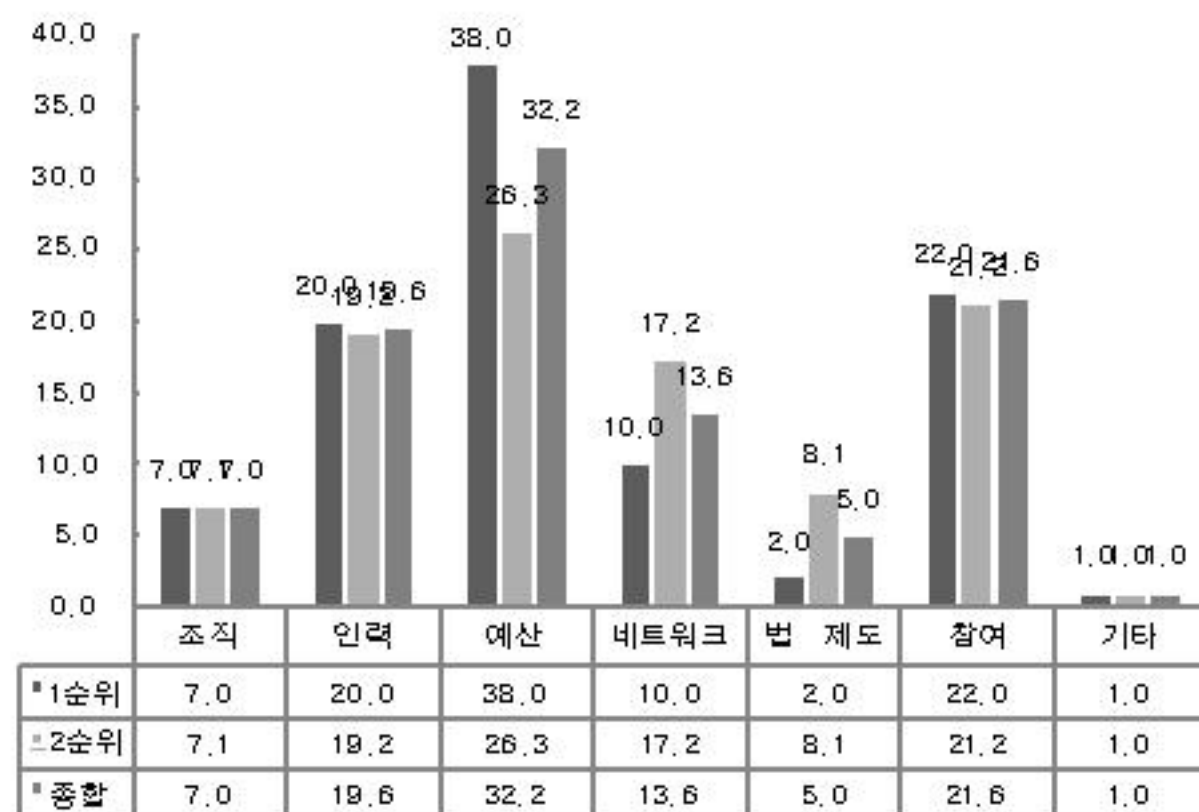
3)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1)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 응답은 예산이 3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참여 22.0%, 인력 20.0%, 네트워크 10.0%, 조직 7.0%, 법·제도 2.0%,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예산이 2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참여 21.2%, 인력 19.2%, 네트워크 17.2%, 법·제도 8.1%, 조직 7.1%,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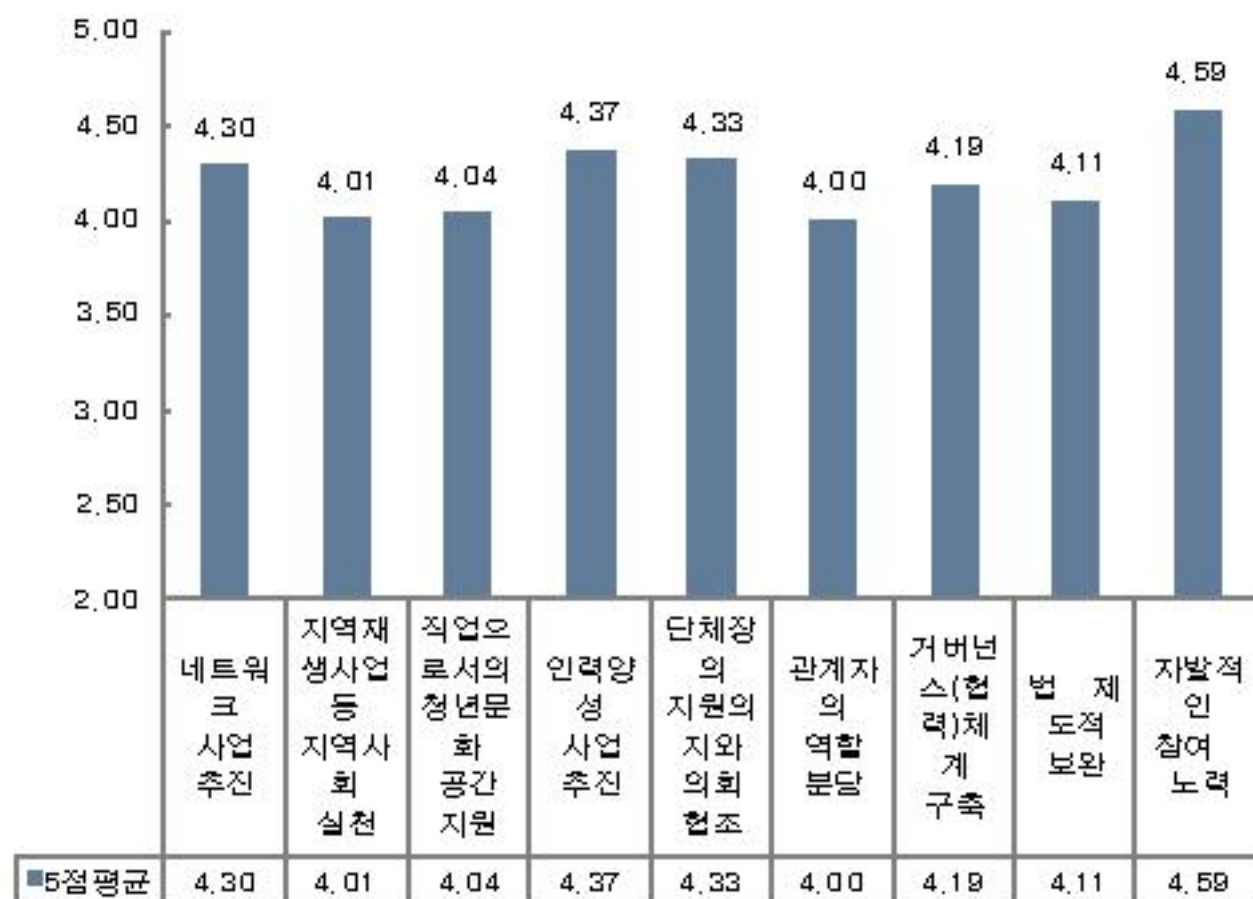
1, 2순위 종합결과(199case)는 예산이 3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참여 21.6%, 인력 19.6%, 네트워크 13.6%, 조직 7.0%, 법·제도 5.0%, 기타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0〉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2)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중요성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의 중요성 5점 척도 평균은 '자발적인 참여·노력'(4.59), '인력양성 사업 추진'(4.37), '단체장의 지원의지와 의회 협조'는 4.33, '네트워크 사업 추진'(4.30), '거버넌스(협력)체계 구축'(4.19), '법·제도적 보완'(4.11), '직업으로서의 청년문화공간 지원'(4.04), '지역재생사업 등 지역사회 실천'(4.01), '관계자의 역할 분담'(4.00)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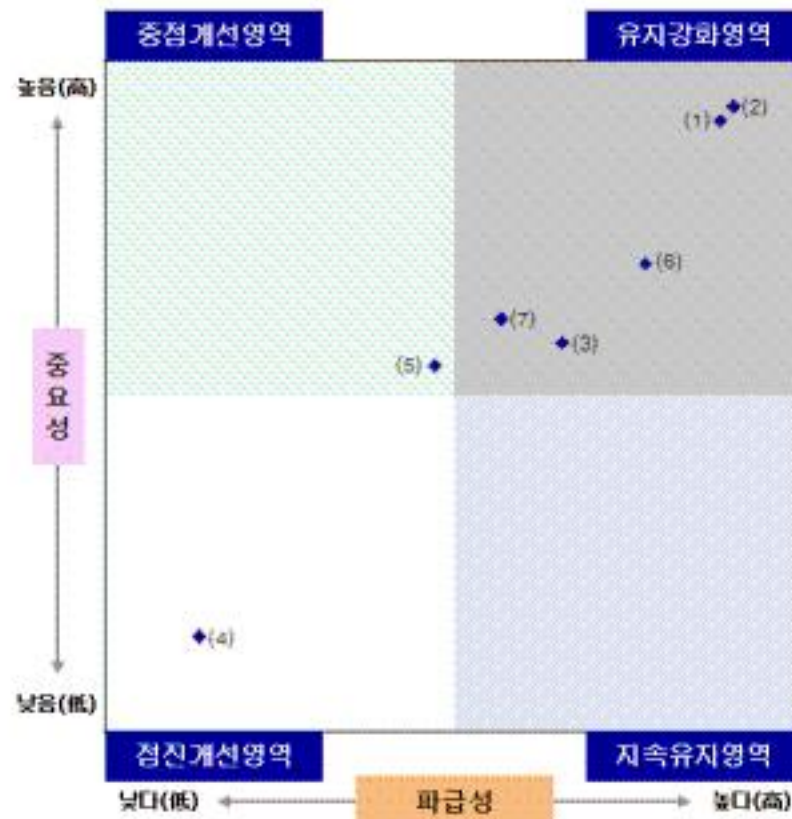
〈그림 IV-11〉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중요성 5점 평균 비교

3. 추진 우선순서

1) 항목별 추진 우선순서

(1) 중요성 및 파급성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 사업 중 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결과는 〈그림 IV-12〉와 같이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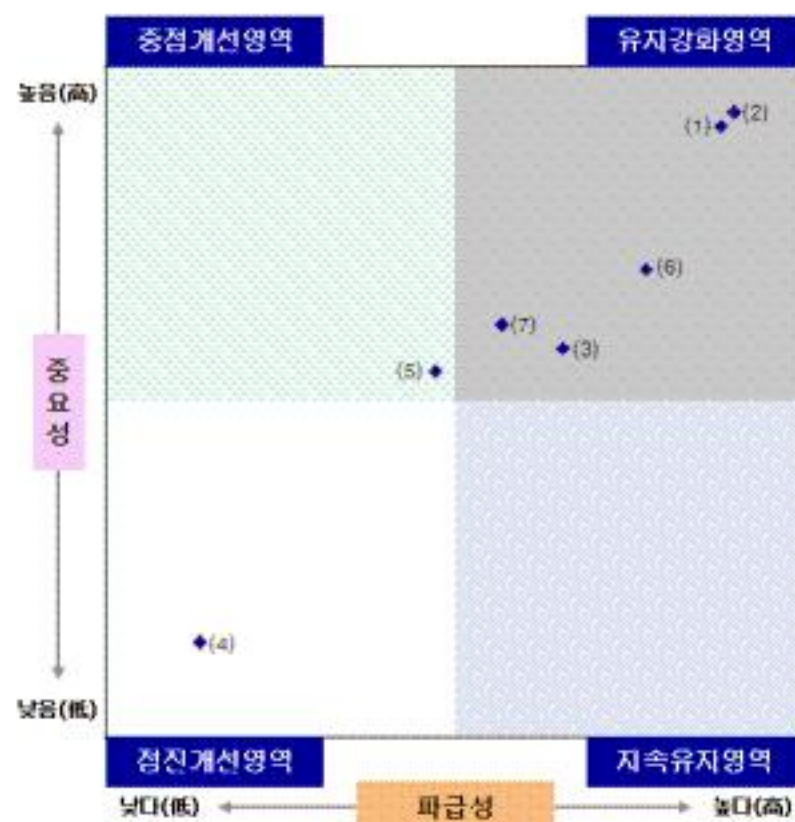
- ◆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 ◆ (2) 청년문화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 ◆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 ◆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 ◆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 ◆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그림 IV-12〉 항목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

로그래밍 개발 사업 및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 높은 결과치를 보이고 있고,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은 낮은 결과치로 조사되었다.

(2) 중요성 및 시급성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 사업 중 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IV-13〉와 같이 '중요성 및 파급성'과 유사한 결과값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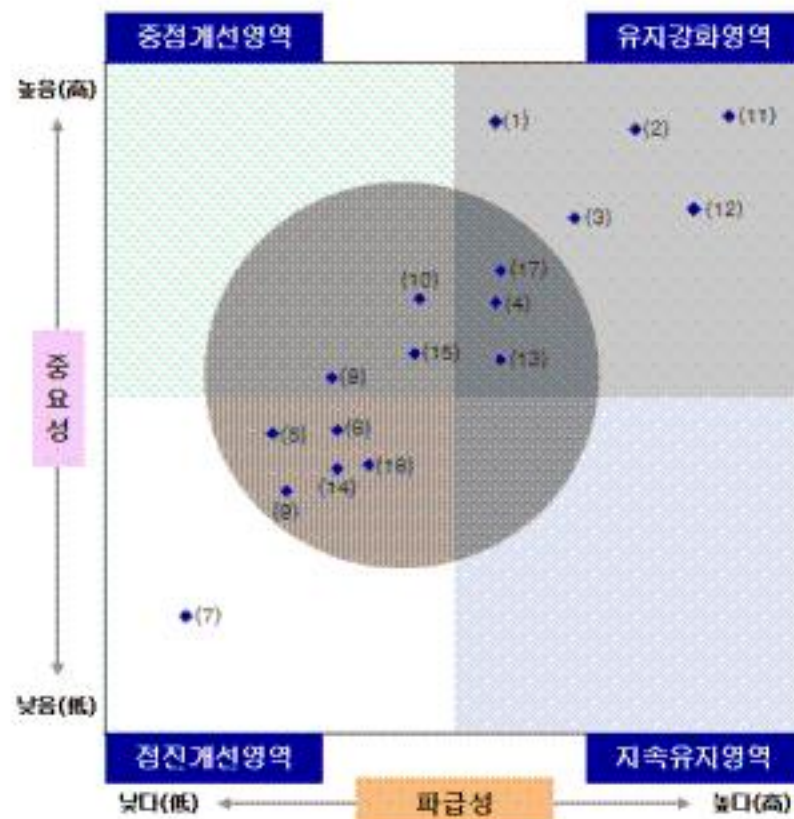
- ◆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 ◆ (2) 청년문화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 ◆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 ◆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 ◆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 ◆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그림 IV-13〉 항목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

2) 과제별 추진 우선순서

(1) 중요성 및 파급성

설문결과로 도출된 17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을 한 결과, 매우 중요한 사업들은 대부분은 유지 강화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 | | |
|-------------------------|---------------------------|
| ◆ (1) 부산지역청년문화실태조사 | ◆ (10) 부산지역청년문화아카데미구축 |
| ◆ (2) 부산지역청년문화인력인큐베이팅사업 | ◆ (11) 부산지역청년문화기금조성 |
| ◆ (3) 부산지역청년문화프로그램추진사업 | ◆ (12) 부산지역가정공간육성사업 |
| ◆ (4) 타장르 융·복합예술지원사업 | ◆ (13) 부산지역청년문화네트워크축제개최 |
| ◆ (5) 부산지역청년문화위원회운영 | ◆ (14) 부산지역spot 릴레이공연사업 |
| ◆ (6) 부산지역청년마켓사업 | ◆ (15) 부산지역광역별공간조성 |
| ◆ (7) 부산지역청년문화박물관개최 | ◆ (16) 부산지역대학가청년창조문화발전소조성 |
| ◆ (8) 부산지역청년문화포럼개최 | ◆ (17) 국내·외문화네트워크 상호 교류 |
| ◆ (9) 부산지역청년문화소식지발간 | |

〈그림 IV-14〉 과제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

당되는 사업은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 부산 자체창작 프로그램 추진사업,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사업,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사업이 해당되었다. 즉, 대부분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및 지원들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중 중점개선사업으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개최,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 등이 나타났으며, 파급성이 낮은 사업으로는 부산지역청년문화위원회 운영, 부산지역 청년마켓사업,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 부산지역 spot릴레이 공연사업,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의 경우 중요성과 파급성 모든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반면 일시적인 프로젝트성 지원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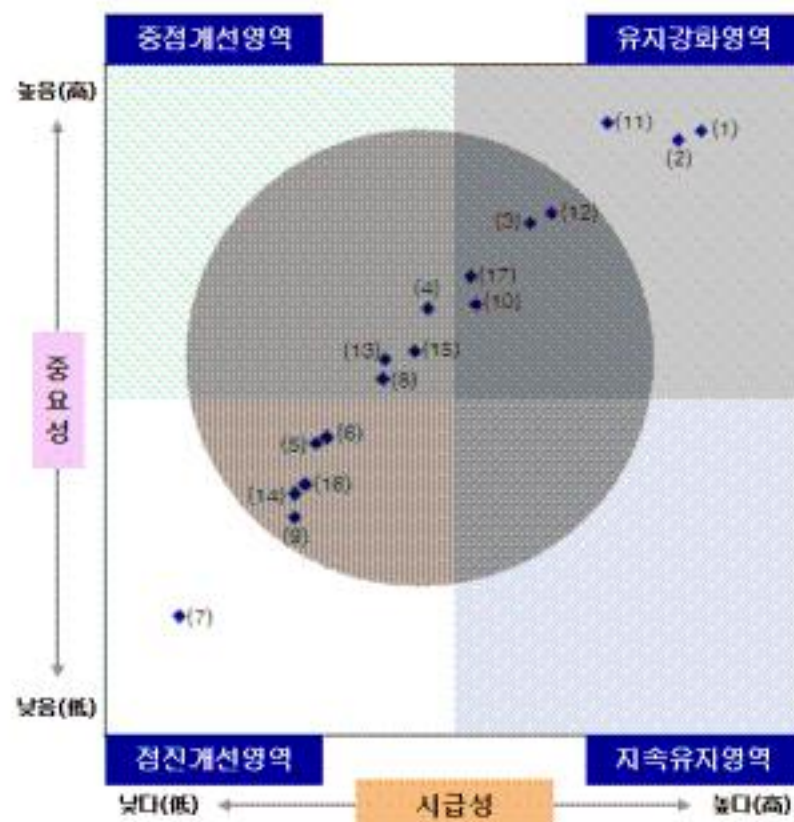
(2) 중요성 및 시급성

설문결과로 도출된 17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을 한 결과,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조성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중요성 및 파급성 분석과 일부 중복된 결과 값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들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부산지역 청년마켓 사업,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 부산지역spot릴레이 공연 사업,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 등의 사업들은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는 중요성 및 시급성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파급성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일시적인 행사기획이나 물리적인

zoom형성 등의 단기 사업적 특징이 뚜렷한 사업들을 지원의 대상에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타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사업,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개최,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개최, 부산지역별 공간 조성 등이 중점개선사업으로 조사되었다.



- | | |
|-------------------------|----------------------------|
| ◆ (1) 부산지역청년문화실태조사 | ◆ (10) 부산지역청년문화이커버 구축 |
| ◆ (2) 부산지역청년문화인력인큐베이팅사업 | ◆ (11) 부산지역청년문화기금 조성 |
| ◆ (3) 부산지역청년문화프로그램추진사업 | ◆ (12) 부산지역거점공간육성사업 |
| ◆ (4) 타장르 융·복합 예술지원사업 | ◆ (13) 부산지역청년문화네트워크 축제개최 |
| ◆ (5) 부산지역청년문화위원회운영 | ◆ (14) 부산지역spot 릴레이공연사업 |
| ◆ (6) 부산지역청년마켓사업 | ◆ (15) 부산지역광역별 공간 조성 |
| ◆ (7) 부산지역청년문화박람회개최 | ◆ (16) 부산지역대구가청년창조문화발전소 조성 |
| ◆ (8) 부산지역청년문화포럼개최 | ◆ (17) 국내·외문화네트워크 상호 교류 |
| ◆ (9) 부산지역청년문화소식지발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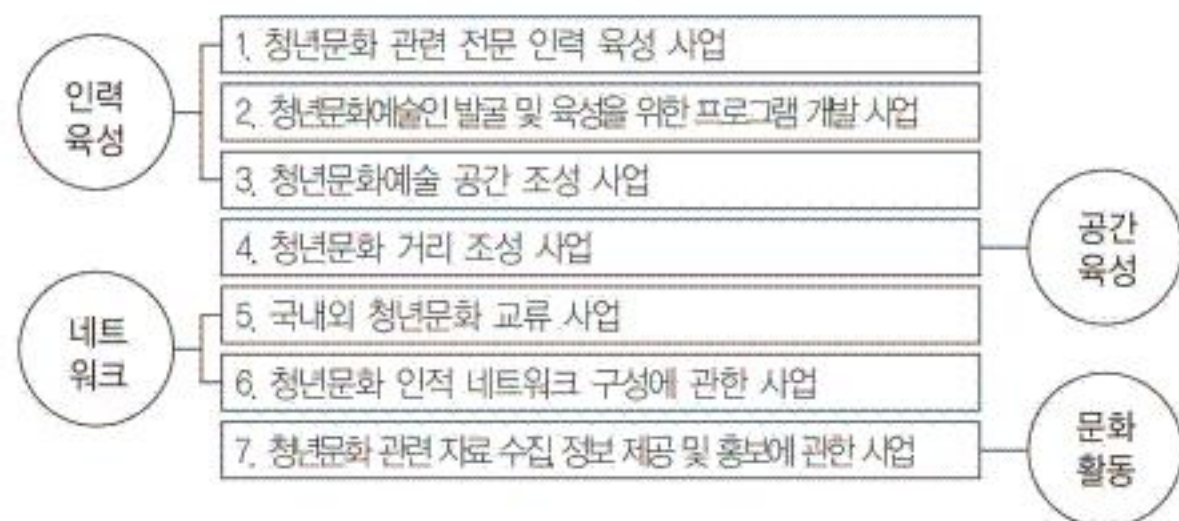
〈그림 IV-15〉 과제별 추진 우선순서_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

4. 시사점

앞서 '중요성 및 파급성' 및 '중요성 및 시급성' 분석 결과, 공통된 항목이 같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급성이 높은 사업과 시급성 높은 사업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청년문화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정보제공·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문화 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사업은 중요성·파급성·시급성차원에서 모두 낮은 결과값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문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크게 3가지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년문화'는 '창조'와 '다양성'이라는 2가지 키워드와 함께 융합하여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보다 기존의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성을 추구한다는 뜻이며, 다양성이란 다양한 주체간의 공감과 공동체간 개방적·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부산 청년문화의 비전(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6〉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의 4가지 방향

둘째,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의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 차원에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①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정보제공·홍보 등 기반마련을 위한 '문화활동', ②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예술인 발굴 등을 위한 '인력육성', ③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및 인적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④청년문화 공간 및 거리 조성 등을 위한 '공간육성'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청년문화의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공간 육성 보다 네트워킹, 아카이빙, 프로그래밍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단기적인 프로젝트형 지원보다 주체간의 신뢰 속에서 상호 보완·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20개의 사업들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의 추진로드맵을 제시한다.

V.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1. 비전 및 추진목표
2. 추진목표별 과제
3.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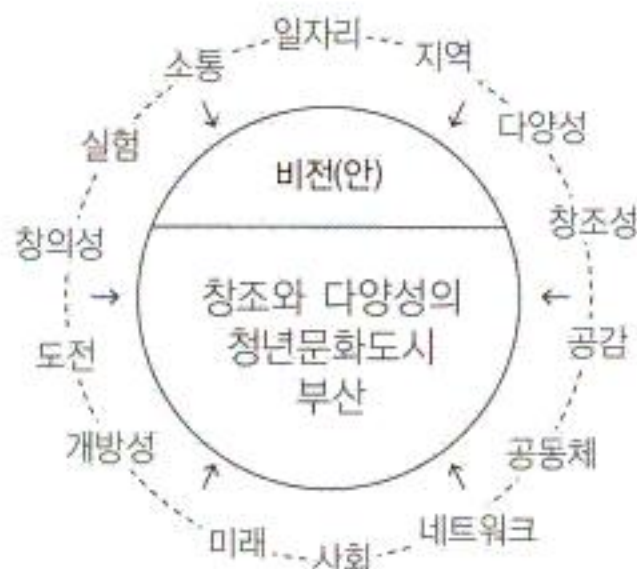
V.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1. 비전 및 추진목표

1) 비전(안) 설정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도출되었던 바와 같이¹²⁾ 비전 설정에 있어서 미래, 일자리, 청년문화, 지역, 네트워크, 동아리, 사회적 경제 등을 비롯한 244개의 관련 키워드들을 종합한 결과,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의 비전(안)은 '창조와 다양성의 청년문화도시 부산'으로 도출하였다.

여기서 창조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의 가치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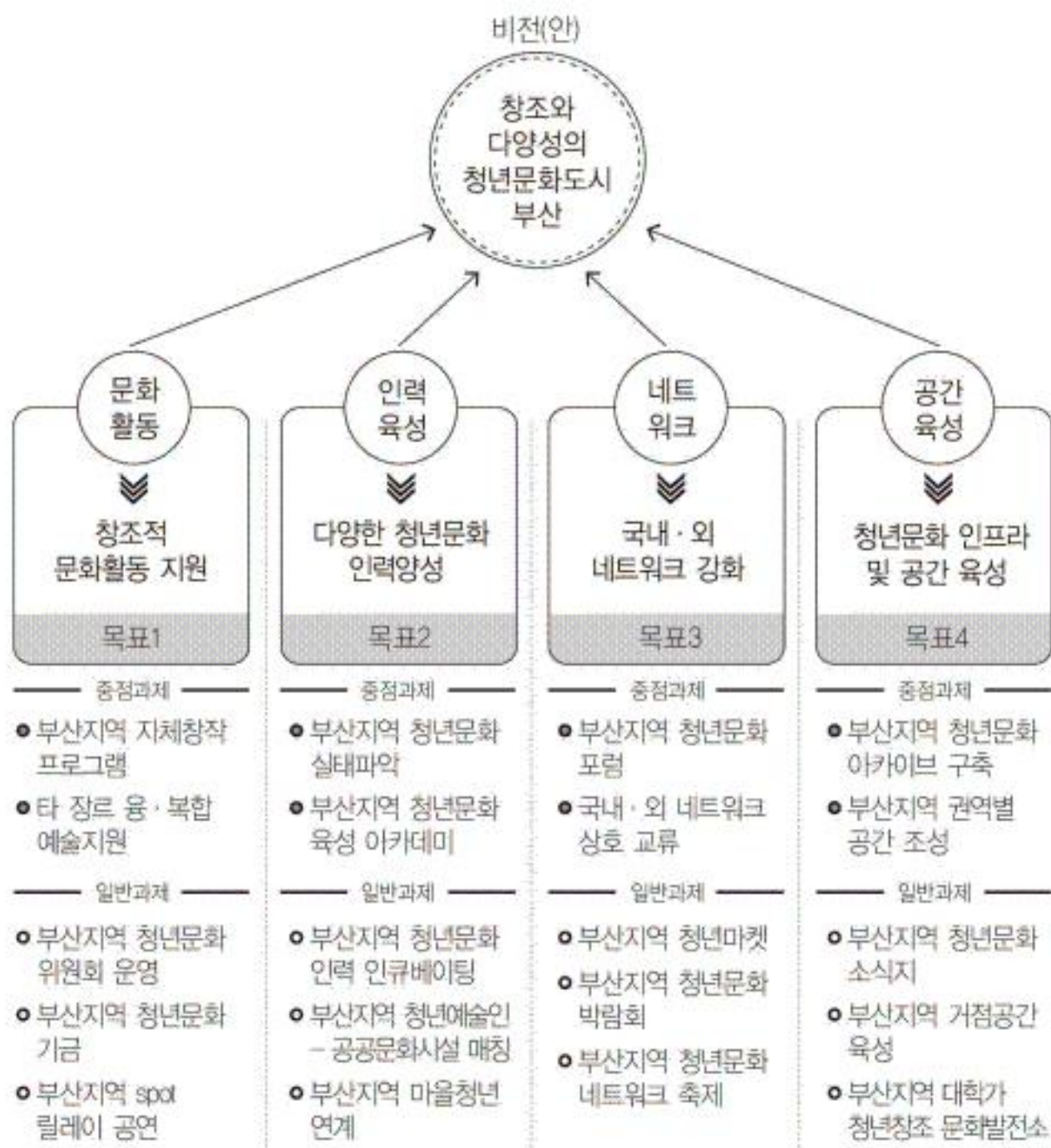


〈그림 V-1〉 부산지역 청년문화 비전(안)

12) 〈VI장 2절〉 전문가 조사결과 및 시사점 (3)청년문화의 비전 설정에 포함되어야 할 키워드 참고

2) 추진목표

‘창조와 다양성의 청년문화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추진목표를 제안 할 수 있다.



〈그림 V-2〉 부산지역 청년문화 비전·목표·추진과제

추진목표로는 첫째,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둘째,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 셋째,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넷째,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이다. 각 목표별 과제는 중요성·파급성·시급성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5년 중장기 계획으로써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와 그 이후에 시행할 일반과제로 구분한다.

첫째,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에 따른 추진과제 중 중점과제는 '부산지역 자체프로그램',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이며, 일반과제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을 제시하였다.

둘째,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에 따른 추진과제 중 중점과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파악'과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아카데미'이며, 일반과제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부산지역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 '부산지역 마을청년 연계' 사업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추진과제 중 중점과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과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이며, 일반과제로는 '부산지역 청년마켓',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넷째,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육성'에 따른 추진과제 중 중점과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이며, 일반과제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부산지역 대화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를 제시하였다.

2. 추진목표별 과제

4가지 추진목표별 과제는 전문가 조사결과로 도출된 기타사업 3가지를 포함하여 총 20개로 제안 할 수 있다.

1)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1) 부산지역 자체창작 프로그램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자체창작 프로그램’은 부산지역에서 청년문화예술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창작품들을 기획에서 제작, 발표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다원예술 분야의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이고 탁월한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청년문화활동 생태계의 다양화, 활성화 및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V-1〉 부산지역 자체창작 프로그램 지원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2015년 ~ 계속
대상	순수예술활동이 주목적인 개인 및 단체
주체	부산문화재단
예산	프로그램 (5백만원~10백만원)

(2) 타 장르 융·복합 예술 지원

· 추진 목적

‘타 장르 융·복합 예술 지원’에서 융·복합예술이란 다원적 예술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과 비예술 영역(인문사회, 과학기술 등)의 적극적인 융·합적 예술 창작활동을 뜻하며,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융·복합형 예술의 담론생산과 창작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개별 장르 간(비예술포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형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청년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인 모색을 적극적 실천하는 실현가능한 프로젝트 또는 다양한 연결(융합)과 확장이 가능한 프로젝트, 융합을 통한 오픈소스 개발 및 자료공유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융·복합 예술활동을 추구하는 단체 또는 융·복합 예술활동을 위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및 인문학 등 타분야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V-2〉 타 장르 융·복합 예술 지원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8년 ~ 계속,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최장 2년 이내
대상	• 융·복합 예술활동을 추구하는 단체 • 융·복합 예술활동을 위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및 인문학 등 타분야의 단체
주체	• 예술단체와 부산시 협력, 공동사업 추진
예산	• 과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10백만원~50백만원)

(3)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 추진 목적

‘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는 청년문화활동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청년 문화정책 자문 및 공간조성, 컨설팅, 기획 심의 및 조정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청년문화의 육성·지원을 위한 심의를 담당한다. 그에 관한 사항은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청년문화·예술활동·창작활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청년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는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현재 부산시의 구성(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청년문화기획, 문화일반,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상콘텐츠, 축제관광) 등으로 총 15명 이내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2년 임기로 한다.

〈표 V-3〉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6년 ~ 계속
대상	• 부산시
주체	•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 10백만원

(4)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¹³⁾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은 청년문화관련 단체의 자조적이고 자활적인 활동 촉진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을 통해 기부자의 소중한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부산지역의 청년문화 이미지 제고, 문화예술마케팅, 재능기부 등에 기여하여 청년문화의 재조명에 힘쓰고자 한다.

기부금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제도(예를 들어, 순수기부금, 조건부기부금, 실명제기부금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청년문화 및 예술 사업에 전액 지원하여 국내·외 청년문화·예술사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채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V-4〉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상시
대상	• 개인 및 단체
주체	•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 부산 청년문화위원회 • 부산시 청년문화지원센터
예산	• 1천억원

13) ‘청년문화허브 무한’ 회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문화아지트 ‘행자 하우스’는 전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를 함께 즐기고 배우고 창조하고 싶은 광주 청년들이 제일 목말라 한 것은 문화 활동, 문화 아지트, 문화의 집 같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행자 하우스는 ‘행자 하우스’에서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청년문화허브 무한의 기본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유유자적 문화토크’가 개최되며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5)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

• 추진 목적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이란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업¹⁴⁾에서 진행된 바 있었던 공연으로 도심의 주요 공간에서 지역의 청년문화 예술가들의 예술공연을 릴레이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활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발표기회 제공 등 생활문화 확산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공연(퓨전창작 국악, 가요, 랩 코믹인형극) 등을 릴레이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의 ‘부산스러움’을 강조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의 접근성을 유연하게 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 축제라고 볼 수 있다.

유명가수(배우) 초청 등을 통한 일시성·단발성 공연을 지양하여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표 V-5〉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8년 ~ 계속, 매년 1회, 7월~1달
대상	• 개인 및 단체
주체	•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 부산문화재단
예산	• 8백만원

14) 지역문화 예술 지원사업으로 열리는 도시공공예술 축제로써 2011년 ‘부산화춘 프로젝트’, 2012년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에 이어 지난해에는 ‘에코 DIY 프로젝트 in 사상’이 각각 선정된 바 있으며 부산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올해 도시공공예술 축제 프로그램으로 부산자연예술인협회와 지역 예술단체가 공동기획한 ‘에이드 인 부산’이 선정됐다.

2)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

(1)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¹⁵⁾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는 청년세대의 일과 노동 및 생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슈들을 연구하고, 당사자적 시각에서 청년문화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이다. 즉, 부산 청년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시설, 인력, 활동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로써 궁극적으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부산지역 청년문화관련자들의 공간현황, 경제현황, 활동분야 및 범위, 문제점, 대책수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로써 이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의 장기적인 계획의 기반으로 삼아 부산 청년문화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표 V-6〉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3년 주기
대상	• 청년문화 관련 종사자 개인 및 단체
주체	•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 50백만원

15) 문화부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지만, 조사 대상지는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예총)의 회원 협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관련 협회의 회원 명단을 기초로 작성된 10개 장르 2천 명의 문화예술인에 불과하다. 즉, 청년(인디)뮤지션들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디뮤지션의 현실에 대한 생토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고조됨에 따라 2011년 12월 3일 제2회 유테이퍼스티벌 시 총 221명의 청년뮤지션을 대상으로 ‘청년뮤지션 생활환경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경제생활 및 활동, 음악활동, 대책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고정수입은 평균 69만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48%는 음악활동을 통해 버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2)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은 부산지역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말한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단기적 운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 추진한 청년문화 기반 조성, 기획자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¹⁶⁾

• 주요 내용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재 이슈에 기반하여 지역주민, 청소년 등 특정지역 또는 특정그룹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인력 인큐베이팅, 문화 예술 공연, 기획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형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과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시장형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장르의 인력 인큐베이팅이 가능하다.

〈표 V-7〉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 청년문화 관련 종사자 개인 및 단체
주체	•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 부산문화재단
예산	• 50백만원

16)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장구 개설 및 청년담론 수렴 및 구상, 실행을 위한 기구 필요하다.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지원프로그램과 문화단체들을 매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전문가가 필요하며 시민문화·인더문화·다문화·예술영역 등 각 분야의 동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문화단체들과 문화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동향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요청된다.

(3)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아카데미

• 추진 목적

현재 부산 청년문화·예술 지형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소비자'의 부재이다. 이른바 '끼리끼리'만나 형성된 청년문화의 특징을 해소하기 위해 창작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기획자(매개자)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아카데미'란 청년문화에 관심을 가진 예비 문화기획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상상력과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의 및 실무와 관련된 아카데미로써 부산문화의 정체성 형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문화기획자(매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단편적인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과 강사(교수 등)의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의 예비 문화기획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후배를 양성하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청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잠재인력을 발굴하여 성장시켜 부산 청년문화의 생태계 구축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 인력 파견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표 V-8〉 부산지역 청년문화육성 아카데미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 청년문화에 관심있는 개인
주체	• 부산문화재단
예산	• 50백만원

(4) 부산지역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은 부산지역 문화회관, 시민회관 미술관 및 각 구 소재 문화관련 등 공공문화시설¹⁷⁾, 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형 축제 프로그램과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매칭 자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타 장르와 청년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 주요 내용

다양한 지역축제에 청년문화와의 접점을 마련, 지역의 우수한 청년문화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지자체별 문화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행을 추진한다. 특히 공간과 기존 민간문화단체와의 협업·공동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표 V-9〉 부산지역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8년 ~ 계속
대상	• 타 장르와 청년문화의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단체 및 예술가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공공문화시설
주체	• 공공문화시설과 청년문화위원회 협력, 공동사업 추진
예산	• 1억원

17) 부산시의 공공 문화회관으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 직영 사업소 형태의 부산문화회관(1988년 9월 3일 개관)과 시민회관(1973년 10월 10일 개관)이 있으며,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으로는 동래문화회관(1999년 10월 22일 개관), 금정문화회관(2000년 5월 19일 개관), 을숙도문화회관(2002년 10월 5일 개관), 해운대문화회관(2007년 3월 30일 개관), 북구 문화빙상센터(2005년 7월 13일 개관)가 대표적이다.

(5) 부산지역 마을청년 연계

• 추진 목적

‘부산지역 마을청년 연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자원, 스토리, 도시 콘텐츠를 청년조사원들이 직접 조사·아카이빙하여 새로운 마을의 비전과 이슈를 찾고 이를 해결하여 마을의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마을활동가 및 마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돕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본 교육 기간을 거쳐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의 물리적·비물리적 환경 조사 및 문헌조사,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을의 총체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로써 부산 마을만들기 대상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마을아카이브를 조성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의 매뉴얼을 재조명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와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 발굴, 활동 등을 생산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산지역의 마을콘텐츠 발굴을 통한 공공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표 V-10〉 부산지역 마을청년 연계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8년 ~ 계속
대상	• 청년문화를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주체	• 부산시 • 부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예산	• 50백만원

3)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1) 부산지역 청년마켓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마켓’은 자신의 음반이나 음원, 창작품 등을 판매하는 마켓 사업을 말한다. 특히 부산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청년문화상점 운영, 독립출판물 판매, 독립영화 상영, 비보이 공연, 창작품 판매, 프리마켓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버스킹이나 거리문화 확대, 청년문화공간 소개를 위해 지역의 약 100여개 공간을 테마별로 청년클럽투어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표 V-11〉 부산지역 청년마켓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8년 ~ 계속, 상시 또는 매년 1회
대상	• 청년문화를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관련 경험 정보 등 교류 중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시 • 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예산	• 80백만원

(2)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란 청년문화 박람회를 부산지역에서 개최하여 전국의 청년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박람회를 통해 청년문화수도 또는 메카라는 부산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청년문화공간과 청년들 간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청년문화 캠프의 형식으로써 특정장소에서의 개최가 아니라 지역 내 매력적인 문화공간에서 청년문화와 관련한 특화사업을 소개하는 등 대외적인 소식전파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공연, 체험 등을 진행한다.

〈표 V-12〉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있거나 일자리의 욕구가 있는 개인 단체 • 청년문화관련 경험 정보 등 교류 중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시 • 부산문화재단
예산	• 1억원

(3)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된 청년 아이디어 발굴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청년 당사자들의 교류·협력·자원·공유·문제해결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으로 자발적인 청년 포럼이 일자리, 청년정책, 라이프스타일 등의 주제로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요 내용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시대 당사자 그룹(청년사회적기업가들 등)의 실질적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 공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단체들의 생활과 활동 현장·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소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 및 연대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이슈화되는 주제 또는 분야별 소모임 등을 통해 특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3〉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6년 ~ 계속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있거나 일자리의 욕구가 있는 개인 단체 • 청년문화관련 경험 정보 등 교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예산	• 30백만원

(4)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는 다양한 청년문화를 소개·공유하고, 공간 및 단체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프린지 형태의 페스티벌과 기획 등을 통해 서로간의 지식·정보·기술·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행사이다.

• 주요 내용

단순 프로그램 참여로 진행되는 기존 네트워크 사업과 달리 자기 활동을 기반으로 한 청년그룹 스스로의 교류로 쌍방향 워크숍 참여 등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그룹의 니즈 파악 및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밖에 국내·외 현장탐방, 해외인사 초청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양방향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표 V-14〉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매년 1회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있거나 일자리의 욕구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관련 경험 정보 등 교류 중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시 • 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예산	• 20백만원

(5)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¹⁸⁾

· 추진 목적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는 청년문화의 장르 및 활동을 해외 기관 또는 단체들과 교류하여 사례 탐구 및 교류 증진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광범위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청년문화단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청년문화 전문 홍보·마케팅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추진한다. 서로 간의 홍보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진행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기획자, 예비 예술가, 기획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매개 프로그램, 행사들을 활발히 진행한다.¹⁹⁾

〈표 V-15〉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있거나 일자리의 욕구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관련 경험 정보 등 교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시 • 부산문화재단
예산	• 1억원(레지던시 사업 확대)

18) 2012년 12월 14일 설립된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15대 중점과제 중 ‘청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미래 혁신 직업 발굴·육성’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경영지원팀, 기획연구팀, 교육협력팀과 일자리사업단(사업운영파트, 활동지원파트)로 운영된다. 2013년 기준 예산은 총 3,026백만원이며 청년 네트워크 및 코워킹 활성화, 정보·지식·경험의 공유 촉진, 청년단체(업체) 인큐베이팅, 청년들의 자활적 활동의 계기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 특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센터나 기관이 필요하다. 서울의 청년허브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지역을 위한 생각과 의견들로부터 지역의 활기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탐들의 수요 파악 및 지원 등의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4)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

(1)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은 부산지역의 청년문화활동의 소식을 전파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매개체이다.

• 주요 내용

최근 홍보의 방법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SNS활용법을 벗어나 부산 청년문화의 신선한 이슈들을 소식지의 형태로 공유하고 각각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날로그적 소통체이다.

각 청년문화장르의 소개와 논평, 이벤트, 행사, 기금 등의 정보를 신문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V-16〉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6년 ~ 계속, 월간지
대상	• 청년문화관련 인프라 및 공간 육성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광역시 • 공모사업을 통한 주체 설정
예산	• 80백만원

(2)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 추진 목적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는 지역의 청년문화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젊음과 열기의 부산 청년문화를 재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청년문화 생태계 구축을 통한 문화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젊은 예술이 공감되는 도시 부산, 시민의 창조적 역량과 공생하는 도시 부산, 문화예술의 가치가 공유되는 도시 부산, 다양한 문화예술 인력이 공존하는 도시 부산 등의 이미지 메이킹과 그로 인한 도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대한다.

〈표 V-17〉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8년 ~ 계속
대상	• 청년문화관련 인프라 및 공간 육성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청년문화예술 종사자
주체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 부산문화재단
예산	• 1억원

(3)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 추진 목적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은 청년문화관련 종사자에게 사무·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동반 성장을 기획하는 거점공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²⁰⁾

· 주요 내용

현재 시민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성을 띤 건강한 문화단체일 경우 검토를 통해 실 무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²¹⁾ 이는 기존의 공모사업의 한계를 탈피한 운영비와 인건 등이 지원되는 새로운 사업지원방식²²⁾이다.

〈표 V-18〉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 청년문화관련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
주체	· 부산시 · 부산문화재단
예산	· 2억원

20) 현재 사상인디스테이션, 스트릿624 등이 청년문화를 상징하며 설립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청년문화공간도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자립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예산이 보다 유연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사업 자체에만 지원되는 실정으로 기획자와 스텝에게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간의 물리적 운영에만 지원될 뿐 공간운영자가 지원받을 여지가 없는 현실이다.

21) 이로 인해 단체의 성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비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기획자 자신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 사업이나 다른 작가만을 지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단체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과 거리가 먼 활동을 통해 단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22) 청년문화는 수익성을 낼 수 없는 분야 중 하나로써 학계에 비유하면 기초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청년문화를 비영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생력을 높이라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자생력을 높이려면 상업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 ‘예술하기가 어렵게 된다.(송교성, 2012, “지역문화선(Local Scene)의 가능성 : 부산 청년문화를 중심으로”에서 발췌) 부산국제영화제는 대중적인 작품을 상영하지 않지만 성공하였고 아시아 영화라는 틈새를 공략하고 규모 있게 투자했기 때문에 청년문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실험적인 장르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다면 다른 지역문화와는 차별화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

• 추진 목적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은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거리문화 및 공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청년문화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 육성하여 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거점별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주요 내용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부산의 문화·예술공간(또따또가, 시민공원, 광안리, 다대포 등)을 3대 권역(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문화시설 창조공간을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공간을 지정·육성하여 청년문화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표 V-19〉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조성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 청년문화관련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
주체	•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 부산문화재단
예산	• 2억원

(5)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 추진 목적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은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24개에 달하는 대학(대학가)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한 사업으로써 권역별로 공통의 관심사 등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 ‘창조와 소통’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부산 대학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뉜 권역 내 대학의 특성을 살린 ‘대학가 창조문화발전소’라는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는 대학 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젊은 청년들의 창작문화 또는 공간을 대학 밖으로 끌어내 시민과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이며 권역별 대학의 공통분모를 특성화함으로써 특화된 대학가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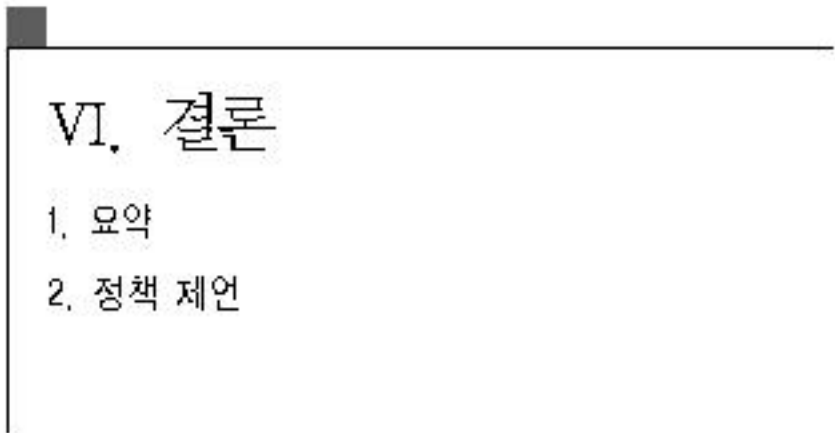
〈표 V-20〉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15년 ~ 계속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권(금정과 해운대구)은 부산대, 외국어대, 가톨릭대,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영산대, 동부산대 등 • 서부권(사상과 북구)은 동의대, 동서대, 신리대, 인제대, 과학기술대, 경남정보대, 디지털대, 폴리텍대 등 • 동부권(남구)은 경상대,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 부산여술대 등 • 남부권(영도와 사하구)은 한국해양대, 고신대, 동아대, 동주대 등
주체	• 부산시
예산	• 5억원

3. 추진 로드맵

〈표 V-21〉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로드맵

추진 목표	추진 과제		2015	2016	2017	2018	2019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01	부산지역 자체장착 프로그램					
	02	타 장르 융 복합 예술지원					
	03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04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05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06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패파악					
	07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08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아카데미					
	09	부산지역 청년예술인 공공문화시설 매칭					
	10	부산지역 마을청년 연계					
광범위 네트워크 강화	11	부산지역 청년마켓					
	12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13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14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15	국내 외 네트워크 상호 교류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	16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17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18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19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					
	20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VI.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VI. 결론

1. 요약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문화 사업 5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의해 진행된 본 연구는 현재 부산 청년문화의 흐름과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청년문화란 '기성 사회의 가치관, 규범, 행동방식을 넘어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로 재정의 하였으며 그에 따른 활동의 범위를 보다 광의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부산 청년문화관련 현황은 축제·대형행사, 문화공간, 라이브클럽, 공연예술관련 단체, 시각예술·인문학관련 단체, 잡지(출판·디자인)·영상, 포럼·세미나·네트워크 등의 분야를 총괄하여 약 90여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교수,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및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중요성·과급성·시급성 차원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우선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부산자체 창작프로그램 추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비전(안)으로 '창조와 다양성의 청년문화 도시 부산'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화활동, 인력육성, 네트워크, 공간육성 차원에서의 4가지 목표에 따른 20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2. 정책제언

부산지역 청년문화는 자생력과 창조적 활동력을 가진 청년활동가들의 활력을 계고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한 협력적 기반을 조성한다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청년문화는 기존의 문화적 관성을 뛰어 넘어서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활동에서부터 사회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과 연대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문화귀촌이나 문화를 통한 공동체 복원 및 형성 과정에서의 실천적 개입은 단순히 사회적 공익성을 넘어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특히 대안문화공간을 통한 지역과의 소통이나 인문학 공간을 통한 지역민들과의 공유 등은 생활문화의 확산과 인문정신의 가치를 통한 문화융성이라는 문화융성위원회의 가치와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활동이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향은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들을 새겨들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의 정책제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베를린은 세계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국의 예술인과 동등한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문화공간에서의 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젊은 청년문화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부산의 청년문화활동가와 문화공간 간의 교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다. 일본, 홍콩, 중국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는 있으나 아시아권을 넘어 보다 많은 국가나 도시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장은 문화교류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문화의 활동과도 연관된 문제로써 부산지역의 청년문화인들이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청년문화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문화의 활동은 일정한 거점이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표현하거나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거리문화 공연) 시도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른다. 버스킹은 도로교통법이나 공연법 등의 제약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로 국한하지 않고 상시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의 제시와 함께 지원 이후 실질적인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청년문화활동에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분류하고 문화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문화는 예술의 영역에 국한되기 보다는 삶의 보편적인 생활방식인 문화의 영역으로 활동이나 수요층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예술이라는 고전적 장르에서 벗어나 문화적 확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의 폭을 확장해가야 미래의 실천적 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 즉 기술혁신을 통한 IT와의 결합, 미디어의 확장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표현과 창작에서의 활용, 청년문화활동에서 스포츠와 결합된 문화적 활동 등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지원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장르간 융·복합을 넘어 활동간 융·복합이나 창조가 가능한 청년문화의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송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퍼들과 음악, 미디어 융합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문화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 목표, 과제 설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 조만간 설치되는 청년문화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와 활동이 가능한 인물을 선정하고 각종 청년문화 관련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그들의 눈과 목소리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성과 자

기 결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들이 또 다시 심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당하거나 주어진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도록 한다면, 부산을 떠나 제3의 공간으로의 이동을 막을 방법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ays to Facilitate and Support Youth Culture in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Developing and Supporting Youth Culture"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Busan on May 22, 2013 to promote the cultural development in Busan and prevent young people from leaving the city.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1) to prepare policy plans to facilitate and support youth culture and make master plans to implement them up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2) to investigate current conditions of youth culture in Busan and suggest policy tasks to support it.

The spatial scope of the present study is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temporal scope is to diagnose the present as of 2014 and predict the future in the next 5 years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will be operations management to facilitate future youth cultur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study involves the overal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concept and scope of youth culture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To conduct an effective study, the present study diagnosed the present by employing a number of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on youth culture, the current data analysis of the related institutions, similar case study, survey of experts and the people engaged in youth culture, and interviewing them.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experts 1) youth culture was redefined as the

innovative and future-oriented culture in which young people create a variety of new cultures and life styles beyond the values, norms, and life styles of the older generation because it was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controversy regarding the concept of youth culture which is ambiguous and there can be a fallacy in debating the scope of policy targets of youth culture, 2) By integrating a total of 244 keywords to create the vision of youth culture, the vision of Busan as the city of creative and diverse youth culture was proposed, 3) A total of 20 strategies for 4 youth culture goals were drawn by conducting overall analyses of the importance, impactness, and urgency of the promo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vision, That is, according to the 4 goals including supporting creative cultural activities, training the workforce for diverse youth culture, strengthening the network at home and abroad, and developing infrastructures for youth culture and the space for expressing youth culture, strategies including developing programs created in Busan, investigating current conditions of youth culture in Busan, hosting a forum for youth culture in Busan, and establishing archives for youth culture in Busan were proposed.

In summary, for these to happen, creating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which is centered around 1) expanding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youth culture, 2) promoting the active improvement of the systems for youth culture activities, 3)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realms of culture and art in youth culture activities and expanding the support of more possible activities in the realm of culture, and 4) youth culture activists which can dictate the direction, goals, and projects of the policies is required.

참고문헌

- 강동훈, 2011, "부산의 희망, 새로운 청년문화운동 : 청년이 있기에 부산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부산발전포럼」 130, pp.44-49.
- 고길섭, 1999, "청년문화, 혹은 소수문화론적 연구에 대하여", 「문화과학」, pp.145-172.
- 김병오, 2010, "1990년대의 청년과 노래, 확장과 순환", 「대중서사연구」, 24, pp.113-134.
- 김소연, 2013, "청년세대 문화정치 운동 :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우, 전종찬, 김영인, 2005,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패션의 기호적 해석", 「디자인학연구」, 59, pp.233-244.
- 김종효, 2009, "'Hedda'와 'Gabler'로부터 파생되는 갈등과 모순의 이미지 하바로브스크 청년문화·예술극장의 〈헤다 가블러〉", 「공연과이론」, 34, pp.236-243.
- 김창남, 2004, "특집 위기의 청년 : 청년문화의 역사와 과제", 「문화과학」, 37, pp.173-185.
- 남송우, 2012, "지역 청년문화의 부흥 도시에 새 활력 불어넣어", 「부산발전포럼」, 133, pp.1-4.
- 남재희, 2008, "'68혁명' 40주년과 청년문화론 : 대항문화의 형성이 발전의 추동력이다", 「관훈저널」, 109, pp.93-98.
- 류성효, 2012,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 찾아야", 「부산발전포럼」, 133, pp.33-50.
- 박대현, 2012, "청년문화론에서의 '문화·정치'의 경계 문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16(3), pp.419-444.

- 소영현,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화연구」, 26, pp.387-416.
- 송교성, 2012, "지역문화씬(Local Scene)의 가능성 : 부산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사회학대회」, pp.259-276.
- 송교성, 2014, "지역,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악동", 「로컬리티 인문학」, 11, pp.291-311.
- 신현준, 2002, "신현준의 지상만가 : 1970년대 청년문화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월간탈」, 192, pp.122-125.
- 오제연, 2012, "1970년대 대학문화의 형성과 학생운동 : '청년문화'와 '민속'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8, pp.77-110.
- 이상록, 2013,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화", 「역사문제연구」, 29, pp.137-182.
- 이지훈, 2011, "인문학을 통한 청년혁명 : 부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문학", 「부산발전포럼」, 129, pp.34-43.
- 장현정, 2012, "부산 청년문화, 저력 있고 자생적 움직임 활발", 「부산발전포럼」, 133, pp.5-17.
- 주창윤, 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화", 「언론과 사회」, 14(3), pp.73-105.
- 황병기, 2014, "일상에서 읽는 한국인의 정체성", 「국학연구」, 24, pp.429-466.
- 부산광역시, 201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 부산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2009, 「부산, 독립문화를 말하다」.
- 청년허브, 2013,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아이디어북」.

[부록1] 부산 청년문화 분야별 현황

1. 축제·대형행사

(1) 제로퍼스티벌

〈재미난복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정문 앞 광장, 온천천 야외 공간 및 부산대 주변 클럽 및 문화 공간에서 '부산독립예술제'란 이름으로 기획해오던 축제를 2012년부터 ZERO Festival로 명명하여, 현재까지 진행하였다.(2011년 선인장) 금정구의 다양한 예술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국내 외 단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였고, 문화적 상상력으로 기존 청년문화공간, 금정구 지역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참고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뱀)

〈표 부록-1〉 2014년 기획안 및 기본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5년 9월 18일~21일 4일간
장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일대(부산대학교 일원)
슬로건	우리가 시작입니다
주요 활동	50여개팀, 120여명의 아티스트 참가 여정-무대앞 정문 야외공연/갤러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공연 : 공간루츠, 무몽크, 댄스업, 크로스로드 심포지엄 :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주체	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
주관	
협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금정구, 부산문화재단

〈표 부록-2〉 2013년 기획안 및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13년 9월 10일~14일 5일간
장소	부산대학교 일대(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슬로건	Beyond ZERO
주요 활동	50여개팀, 120여명의 아티스트 참가 추정 관객수 : 합계 11,580 여명, 야외공연 양일간 일만 여명, 실내공연 7회 천 여명, 전시 5일간 사백 여명, 포럼 2회 육십 여명, 영화상영회 2회 백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단체들이 기획주체로 4개의 실내공간(무몽크/다즐/소울트레인/루치에서 공연 진행 티켓 : 야외공간 및 다른 프로그램은 무료, 실내공간만 입장권 있음 양일간 삼만원(여매 이만오천원, 1일권 이만원)여매 만오천원, 개별공간 만원(여매 없음)
주최	제로퍼스티벌 운영위원회
주관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협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은행 부산시, G-AUDIO
예산	약 2,000만원 + 티켓수입

[2] 선셋라이브

부산에서 선셋 라이브가 시작된 것은 2007년,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부산의 음악기획자 음향, 악기, 무대 팀이 힘을 합쳐 시작되었으며, 2014년 올해 8회째 지역 인디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부산 선셋 라이브는 '자연' '음악' '부산'을 강조하고 대기업과 관공서 지원 없이 부산 사람 힘(부산선셋크루 자비)으로 만들어 가는 민간 주도 음악 축제이다. 여타 다른 여름음악축제와 다른 분위기를 가진 부산 선셋 라이브는 음악과 함께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기장, 영도, 양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부산선셋라이브는 2012년부터 송정에 자리를 잡았다. 부산선셋라이브는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서퍼)들과도 함께 한다.(영유 직배를 시행) 2014년 주요 출연진으로는 이한철, 에브리싱글데이, 소심한오빠들, 니나노나다, 업스케일, 김종걸, 고온프로젝트, The dammit janets(US), Robscoenity(CA), 룬디마틴, 령교밴드, 아메리카노밴드, 진리프로젝트, 스카워이커스, 하퍼스, 크리틱, 태히언 등이 있다.

[3]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은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과 역사를 같이 한다. 이 행사는 2000년 10월 부산시민회관의 '제회 인디 록 페스티벌 인 부산'이 시작이다. 하루 동안 밴드 19팀이 출연했으며 주드, 신디케이트, 노트래쉬 같이 최근까지 활동하는 밴드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눈에 띄게 활동했던 앤, 빨간외지, 레몬크러쉬, 점핑폴라워, 허디마마, 타무 같은 밴드들도 출연했다. 꽤 많은 관객이 모여 부산 인디씬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듬해에는 부산 최초의 컴필레이션 앨범인 '블루호텔 vol.1'의 발매와 '2001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을 함께 기획해 동아대학교 석당홀에서 이틀간 페스티벌을 열었다. 앨범에 참여한 부산 밴드를 비롯해 당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피아', 'Neil'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2003년부터는 기획사 '매니아(지금의 락매니아)'에서 기획을 담당했다. 음향업체인 '알파사운드'와 악기대여업체인 '블루노트'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외 모든 비용은 사비를 털었다. 당연히 규모가 축소됐고, 장소는 기톨릭센터로 옮겼다. 기톨릭센터는 여전부터 록밴드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자체적으로 '수요락樂 콘서트'를 기획해 부산 인디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들은 1년에 한 번은 클럽보다 큰 무대에서 최고의 장비와 사운드로 부산 시민과 밴드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오고 있다.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은 우여곡절도 많아서 2005년에는 자금 사정으로 한 해를 쉬기도 했고, 2007년에는 부산과 서울 2회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 중 부산 공연은 무산됐지만,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 인 서울'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무모하다고 생각한 주변 우려와 달리 관객과 밴드 모두가 만족한 공연이었다. 지속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은 다른 록 페스티벌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가수가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시야가 탁 트인 야외무대나 다양한 먹거리도 없다. 그저 그 해 부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밴드들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이자, 그 시점에서 가장 역량 있는 부산 밴드의 음악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너무나 부산다운 록 페스티벌인 셈이다.

지난달에는 '사단법인 부산밴드발전협의회' 창설을 위한 예비공청회가 서면 라이브클럽 '로크하우스'에서 열렸다. 주춤한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의 향방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을 테고, '부산 국제 인디 록 페스티벌' 같은 새로운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다. 특정한 한 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부산 인디씬을 부흥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올해에는 '부산 인디 록 페스티벌'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4) 2011 청년문화생태지구축을 통한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_부산회춘프로젝트

〈부산회춘프로젝트〉는 '부산문화재단 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예술로 도시의 공공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주류적 담론에서 빚겨나 있는 청년들의 문화를 부산 청년문화의 중심지인 부산대학교 일대에서 끌어올리며, 도시민과 함께 일상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하며, 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실험'을 선택하였다. 대표단체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를 포함하여 총 15개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지역민들이 일상적인 거리나 생활영역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온천천 문화살롱〉, 〈100일 릴레이 거리공연〉, 〈공연배달〉 등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거리의 벽면을 활용한 그래피티, 자투리 유휴 공간에 청년문화의 상징인 음악코드를 가미한 벤치와 같은 작품을 설치하였다. 여기에 문화재단, 구청, 대학, 상인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문화를 지역사회와 강하게 결합시켜 나갔다. 동시에 부산에 청년문화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주류예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문화의 창작환경이나 생태적 기반 조성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5) 2012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부산문화재단 2012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회춘프로젝트〉를 통해 중병된 청년문화의 힘을 토대로, 청년세대가 미래의 주역이라는 당위적 주장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진밀보한 프로젝트이다. 〈부산청년문화수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부산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부산문화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청년문화의 역할에 대해 고민의 시작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실험과 상상력이 모이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청년문화의 중심지로서 부산문화의 미래를 꿈꾸었다. 〈회춘프로젝트〉가 작고 다양한 14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면, 〈부산청년문화수도〉는 3가지의 선 굵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문화를 상징하는 축제형 프로그램 〈사운드웨이브 퍼스티벌〉은 여름 해변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들의 상호교류를 중심에 둬으로써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거리예술 프로그램 〈그래피티 부산〉을 통해 그래피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 및 대도시의 화려함에 익숙해지고 있는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문화아카데미〉는 불붙기 시작한 지역의 청년문화담론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6) 2014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선정 문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계기로 〈무빙트리엔날레-메이드인부산〉이 개최되었다. '부산문화재단 2014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지역의 시각, 공연예술, 인문학단체들과 국내 외 문화예술단체들이 모여 만든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문화예술의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상상력을 선보이는 복합문화축제이다. 9월 27일(토)부터 10월 28일(일)까지 30일간 부산연안여객터미널, (구)중구노인복지회관, 부산지방기상청(대청동 기상관측소), 또따또가갤러리 등 부산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되는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은 전시(마지막 출구-가방, 텍스트, 사이트 프로젝트), 공연(무빙스테이지-여러가지공작소), 학술(부산문화예술생태보고서), 네트워크(하동집문화살롱)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및 국내, 해외 지역의 예술가, 문화단체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동시대 문화예술의 다양한 상상력을 선보이며 시민, 관객들과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을 시도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존의 전시장과 공연장을 벗어나 부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감과 소통을 이어가도록 기획되었다.

2. 문화공간

(1) 재미난복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²³⁾

독립문화공간 아지트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부산대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있으며, 2003년 결성된 '재미난 복수'가 부산지역 독립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외부 문화단체 및 아티스트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하는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다원문화매개공간이다. 국립 유치원을 개조하여 독립문화를 중심으로 한 창작, 전시, 작업, 사무공간을 갖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사무공간 및 뮤지션을 위한 녹음실이 있으며, 2층은 갤러리 및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이 사용하는 작업 공간이 있다. 또한 부산지역 외 아티스트들의 부산 방문 시 숙박 제공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및 파티가 가능한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및 각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교류 및 국제 교류 관련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독립문화공간 아지트는 기존 건물이 팔림에 따라 장전동 장성시장 내로 이전하였다.

(2) 생활기획공간 통²⁴⁾

생활기획공간 통은 2010명 3명의 청년이, 이웃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삶(일상생활)을 기획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생성, 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간이다. 공간 통은 단순한 문화 소비의 행태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현재는 작은 사무실 공간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2010~2014년 동안 40~50명 정도의 소규모 강좌와 공연, 그리고 작고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지역 작가·이웃들의 작품 전시,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문캠프, 문화여행 등의 워크숍 개최, 지역 출판사 연구소 시민단체 대안 공동체 등과 함께 인문학 강좌 개설, 그리고 청년 지역문화단체들과 합심하여 거리 공연과 축제를 만들어 왔다.

(3) 루츠, 스카워이커스²⁵⁾

스카와 레게음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인디밴드 스카워이커스가 부산대 앞에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2013년 상반기에 새롭게 마련했다. 공간 루츠(Roots)라고 이름 붙인 이곳에서 밴드 연습도 하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스카워이커스는 스카 레게밴드로 2007년 '웨이코업'으로 시작, 2012년 '스카워이커스' 개명하여 '부산국제레게페스티벌'을 비롯한 부산을 대표하는 수많은 축제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울산, 제주, 후쿠오카 등 국내 외 주요도시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2012년 공식 EP앨범 발매에 이어 2013년 1월 첫 번째 단독콘서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7월 싱글앨범 〈Music is Our Weapon〉을 발매했다. 2013년 '공간루츠(space roots)'를 만들어 '루츠락레게(Roots Rock Reggae)'라는 스카, 레게를 기반으로 한 기획공연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 1월 자체 레이블 '루츠레코드(roots record)'를 설립하고, 7월 1일 본 레이블을 통해 첫 정규 1집 앨범 〈Riddim of Revolt〉를 발매하였다.

23) 김진우 / 2003, 2008 / <http://blog.naver.com/agit7436> / 금정구

24) 송교성 김혜린 박진명 전혜정 / 2010 / cafe.daum.net/zzong / 금정구

25) 정서일 / 2013, 2007 / [facebook.com/SKAWAKERS](https://www.facebook.com/SKAWAKERS) / 금정구

(4) 금정여술공연지원센터²⁶⁾

금정구 내의 다양한 예술단체의 교류를 지원하는 금정여술공연지원센터는 단체 간 협력 등을 통해 창조적인 예술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공연·전사·예술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예술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간, 장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예술문화단체의 요구를 파악, 행정과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청년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장르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연·전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술 단체의 자립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경험 환경 조성하고 있다.

(5) 인디고서원²⁷⁾

부산의 유일한 청소년 인문학공간. 2004년 만들어진 인디고 서원은 청소년과 인문학이라는 조합도 신선했지만 그 발생의 시기도 다른 인문학 단체나 공간보다 빨랐다. 허아람 대표가 유럽의 책방을 둘러보다 영감을 얻어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만들었다고 한다. 책을 통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책방을 만들면서 마땅히 즐기고 놀 거리도, 인식을 확장하고 성장할 계기나 장소도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서점을 만들었다. 실제로 인디고서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주제와 변주'라는 고정 세미나,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토론인 '정세청서' 등 다양한 독서 및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 민락인디트리닝센터²⁸⁾

인디문화를 활성화하고 젊은 문화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산문화재단이 인디문화 인큐베이팅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사 내에 조성하여 운영 중인 공간이다. 개인연습실, 합주실, 다목적연습실, 휴게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입주단체가 현재 활동 중이다.

(7) 공간초록²⁹⁾

공간초록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부산교대 앞)에 위치하여 있으며, 2008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끝 자락에서 새로운 생태문화공간을 꿈꾸며 지울스님이 주축이 되어 일반주택의 형태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여타의 공간들과 달리 상주하여 관리하는 운영자가 없으며, 말 그대로 비어있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학술·독서 모임의 청년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강연회, 영화제, 음악회 등을 진행하는 등 인문·문화 생태의 공동체로 활용되고 있다.

(8) 스트릿624, 문화소통단체 숨³⁰⁾

스트릿624는 부산시가 북구 덕천로터리 인근에 문화예술을 통해 젊은이들과의 공동체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적, 지식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창조문화활력센터'로 문화소통단체 숨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으로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연극, 콘서트,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소극장과 예술, 인문학, 지역커뮤니티 등을 배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강의실, 쉬어 갈 수 있는 아트카페, 스트릿댄스를 배울수 있는 킬라몽키즈 댄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소통단체 숨은 부산의 대안문화단체로서 기존의 비보이공연(스트릿댄스) 및 공연제작, 축제기획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독립문화 예술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의 전환으로 지역 내 독립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공연제작 및 축제기획으로 문화다양성과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유출 방지와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6) 김정구청 / 2011 / <http://blog.naver.com/gasgas2014> / 김정구

27) 허아람 / 2004 / www.indigoground.net / 수영구

28) 부산문화재단 / 2013 / <http://indiecenter.or.kr/> / 수영구

29) 2006 / <http://www.spacechorok.com/home> / 연제구

30) 차재근 / 2013, 2003 / <http://www.street624.com> / 북구

(9) 사상인디스테이션³¹⁾

부산광역시의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컨테이너아트터미널(CATs)은 부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컨테이너 27개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시설로 지상 3층의 건물 2개동으로 건립되었다. 다목적 홀과 전시실로 구성된 '소란동'과 스튜디오실, 다문화센터, 레지던스, 사무실로 구성된 '도랑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젊음이 넘쳐나는 청년인디 문화 중심지로,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청년 인디 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10) 생각다방산책극장³²⁾

공연을 포함한 일상적인 예술활동과 교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세상을 좀 더 천천히 즐기면서 살고 싶던 두 사람이 2011년 4월부터 공간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남구청 뒤 골목에 있는 월세 10만원의 주택을 얻어 손수 몇 개월 손을 본 뒤 문을 연 공간이다. '백수들의 실험실'이란 부제가 붙은 다방은 2014년 동래구 칠산동으로 이전하여 소규모 인디밴드 공연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의 속도에 반대하고 개개인의 재능과 자질들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생각다방산책극장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와 같은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의 청년들과, 타지의 청년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재개발지역인 문현동에서 현재의 칠산동으로 옮겨왔으며, 산복도로, 생활예술모임 공간, 마쓰모토 하지메 등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요리, 여행, 일본어에 관심 많은 이현정과 노래 짓고 부르는 김인혜 두 사람의 활동이 큰 축이다.

(11) 국도&가람예술관³³⁾

대부분의 단관극장들이 자취를 감추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단관극장인 국도극장은 생존을 모색하며 애니메이션 전용관으로 제한 상영관으로, 그러다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계속 탈바꿈하며 간신히 유지하다가, 2008년에 이르러 남포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국도극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구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옆으로 이전하면서, 작은 공연이 열리던 가람아트홀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독립영화 전용관인 국도&가람예술관으로 탄생했다. 143개 좌석을 둔 국도예술관은 대부분의 시간에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2) 모퉁이극장³⁴⁾

모퉁이극장은 시민 관객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설립된 관객운동 단체이다. 본 단체는 작품중심의 기존 영상문화의 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시민 관객'층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시민 관객 문화 개척, 시민 관객 중심의 영상문화 생태계 구축, 문화생산자로서의 시민 관객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단체는 영화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시네마테크와 달리 관객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관객들의 목소리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시네마-피플테크'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지역영화, 독립영화, 실험영화를 소개하고, 감독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감상을 나누는 <모퉁이 정기상영회>, 시민관객들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영화를 선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퉁이관객살롱>, 관객이 직접 필진으로 참여하는 관객문화지원잡지 《모퉁이극장》 1·2호 발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공식 파트너로 시민관객 80명이 참여한 <모퉁이 관객 리뷰단> 활동,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 관객이 '관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한 해를 결산하고 응원하는 연말 네트워크 파티 <관객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단체의 활동이 이 시대의 민중문화운동이라는 문화예술계의 평가 속에서 참여하게 된 <민중미술의 새물결전> 아카이브 전시 등을 주요활동으로 꼽을 수 있다.

31) 부산문화재단 / 2013 / <http://www.catsasang.com> / 사상구

32) 이현정 / 2011 / <http://blog.naver.com/beluckysuper> / 동래구

33) <http://cafe.naver.com/gukdo> / 남구

34) 김현수 / 2012 / <http://blog.naver.com/comertheatre> / 중구

(13) 크리틱, 크리틱 아트 스토어³⁵⁾

크리틱(CRMIC)은 부산을 대표하는 MC로서 부산의 힙합 레이블인 ALIVE MUSIC에 속해있다. 그는 2011년 첫 믹스테이프인 [Travel Man]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2012년 데뷔앨범인 싱글 [Very berry Strawberry]와 EP앨범인 [PIECE OF TRAVEL, 20]을 발매하며 부산 힙합과 인디 장르를 아우르는 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2014년 중구에 크리틱 아트 스토어를 오픈하였다.

(14) 오픈스페이스 배³⁶⁾

오픈스페이스 배는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 공간이다. 2008년 부산 외곽지역인 일광에서 지역 작가 및 활동가들이 심시일반 힘을 모으고 기업 메세나 형식의 기부로 배발과 창고를 활용해 예술가들이 머물고 창작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 겸 대안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입주한 영화감독이 공포 영화<부귀영화>의 배경으로도 활용할 정도로 오픈스페이스 배가 위치한 곳은 독특한데, 부산의 외곽 일광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은 찾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이지만, 바로 그 점이 자연 속에서 예술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대안공간의 개성으로 이어진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미술아놀자>, 대학을 갓 졸업한 신진작가의 현실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과 세계를 엮는 <로컬 투 로컬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3년간 안창마을에서 시작된 <안창고 프로젝트>,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산복도로 일대에서 진행된 <산복도로 1번지 도시에는 골목길이 있다>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지역민이 협업하고,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지역 정체성에 접근한 공공미술의 좋은 선례로 남았다.

(15) 대안공간반다이

현재는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사라져서 지역에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대안공간 반다이>는 명실상부 부산을 대표하는 청년문화 대안미술 공간이다. '반다이'의 경우 1999년 개관한 대안공간 섬에서 출발하여 10년이 넘도록 새로운 실험과 미학에 도전하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창조적 역량을 지닌 신진 작가들이 데뷔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통해 지역미술문화 발전의 상당부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전반에 기여해 왔다.

(16) Cafe 나무³⁷⁾

마을카페로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자 만들어진 카페이다. 현재는 청년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다. 우쿨렐레 배우기, 사소한 강의, 청년잡지만들기,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한 작은가게, 만화인문학강의,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7) 오월열한³⁸⁾

음악, 독서 등을 매개로 사람들이 어울리는 소셜클럽이다. 서울 출신 뮤지션 겸, 문학가인 마틴이 특별히 인연이 없는 부산에 터를 잡으면서 북천동 고분 앞이라는 깊은 동네에 안착하였으며, 장소에 대한 재발견의 의미가 있다. 소셜클럽을 운영하면서 부산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 연습하고 곡을 만들어 음반을 제작, 공연이 주요 활동이다. 단체나 조직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예술가 스스로의 기획과 관심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35) 지현수 / 2014 / <http://www.facebook.com/artstorecritic> / 중구

36) 서상호 / 2006 / www.spacebae.com / 기장군

37) 김성연 / 2002 - 운영종료 / 수영구

38) 김혜정 / 2011 www.facebook.com/caferamco.5434451 / 해운대구 / 주식회사

39) 전상천(마틴) / 2013 / <https://www.facebook.com/may11am> / 동래구

(18) 잘자라⁴⁰⁾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도시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서울 빈집 프로젝트에서 기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공동주거 공간이다. 수영장 소재 공간으로 3~4인의 공동주거인들이 15만원 내외의 분담금으로 월 관리비, 식비 등을 해결하고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시농업, 공연, 글쓰기 등 다양한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먹고 공간을 꾸리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3. 라이브클럽

(1) 무몽크⁴¹⁾

메탈시티 부산답게, 메탈 장르의 음악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산의 인디 밴드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악 클럽 중 하나이다. 1995년에 생겼으니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대 앞 라이브 하우스의 터줏대감이자 부산 인디 음악 신의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무몽크로 들어서는 층계의 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과 영상이 함께하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곳에서 열린다.⁴²⁾

(2) 인터플레이클럽⁴³⁾

오픈마이크를 제외하고는 기획 공연은 없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대관공연만 진행한다. 14년째 부산대 앞을 지키고 있다. 다른 소규모 클럽들에 비해 큰 편이며 좋은 장비를 구비해 놓았다. 굴지의 부산 로컬 밴드부터 학생 밴드까지 인터플레이클럽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이 거의 매주 열린다. 무대 음향 장비에 관해서 공식 카페에 친절히 포스팅되어 있다.⁴⁴⁾

(3) 부산대학교 클럽투어

'부산클럽투어'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총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서면825, 부산대 무몽크, 인터플레이, 일출, 쿼를 돌아다니며 열린 행사였다. '클럽투어 서막'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록 마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에게도 부산 록 밴드를 알려보자는 취지를 갖고 홍보와 이벤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순수 부산 록 밴드만 출연했는데도 호응이 좋아 매주 북새통을 이뤘다.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국구 문화잡지인 '보일라', 인터넷 방송국, '조은악기'와 'G-cat' 같은 악기점의 협조가 있었다. 마지막 공연이 열린 클럽 무몽크에서는 처음 준비한 150명분의 입장권을 훌쩍 넘겨 관객 200명 이상이 입구에 늘어서기도 했다. 종이를 찢어 임시 입장권을 만들어서 줄 정도였다. 크라잉넛 단독공연 이후 최다 관객이라고 들었다.

지난 2005년 3월에는 2년간 미뤄 왔던 '부산 클럽투어'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부산대 앞 클럽 네 곳에서 동시에 시작했다. 관객들은 티켓 한 장으로 총 20여 개 밴드의 라이브를 하루 동안 즐길 수 있었다. 부산 밴드뿐 아니라 서울에서 제법 유명한 밴드와 뮤지션 그리고 일본 '스카쉬오니언', '독홀리데이' 같은 수준급 밴드도 게스트로 출연했다. '부산인디즈'라는 잡

40) 이홍수 / 2014 / 수영장

41) 허현웅 / 1995 / <http://cafe.daum.net/moomonk> / 금정구

42) Traveller, 2014년 9월호, 부산 판따라

43) 이정섭 / 2001 / <http://cafe.daum.net/interplaycafe> / 금정구

44) Traveller, 2014년 9월호, 부산 판따라

지도 발간해 밴드와 클럽 홍보에도 힘썼다.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은 점점 늘어갔고, 밴드 공연을 처음 접해보는 일반 관객도 상당히 늘어갔다. 하지만 무리한 일정과 인력 부족, 협찬사 부재와 클럽과 견해차 등으로 이듬해에 9회를 마지막으로 중단한다. 그러다가 2013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인디 밴드들의 활동에 힘입어 7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2014년 3월에는 제 13회 클럽투어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부대 앞 청년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⁴⁵⁾

(4) 재즈클럽 몽크⁴⁶⁾

아마도 1978년 올댓재즈, 1978년 아누스 이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재즈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몽크는 이제 한국재즈의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부산 재즈클럽 몽크는 외국 관광객들의 책자에 소개가 되어 오히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르는 명소가 되었다. 1992년 설립자인 김성환이 설립한 이후에 몽크는 그 뜻을 기리는 부산재즈클럽과 그 바통을 이어받은 양돈규(소아과 의사)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몽크는 부산재즈클럽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것을 양돈규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돈규씨의 본업은 소아과 의사다. 하지만 의사가 마냥 본업만은 아니다. 낮에는 의사지만 밤에는 재즈클럽 '몽크'의 운영자이자 음향엔지니어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클럽 몽크와 더불어 그는 부산 재즈의 산증인이다. 입버릇처럼 되뇌던 '제대로 된 재즈클럽 하나를 갖는 게 소원'이라던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마다 갈 곳 없는 재즈 뮤지션들을 무대에 세우는 지역 재즈음악인들의 후원자요, 재즈에 목말라하는 애호가들과의 만남을 기꺼이 주선하는 기획자다.(몽크홈페이지 소개글 중)

(5) 클럽 리얼라이즈⁴⁷⁾

부산의 홍대라 불리는 경성대·부경대 변화가에 위치한 클럽 리얼라이즈는 리얼라이즈레코드에서 출발해서 클럽까지 운영하게 된 경우이다. 현재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위주의 라이브 공연과 이벤트 파티를 열어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이뤄지는 곳이다. 락공연, 어쿠스틱, 힙합, DJ Party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며 다양한 주류와 음식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6) 레블 아우라지, 얼라이브 뮤직⁴⁸⁾

'여러 갈래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을 의미한다는 아우라지는 2007년에 결성된 부산 로컬 힙합 크루로, 부산은 물론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공연 및 기획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힙합 뮤지션이자 대표 홍기표를 중심으로 뮤지션, 기획,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원을 이룬다. 부산 유일의 힙합 레이블 '얼라이브 뮤직'(www.alivemusic.kr)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힙합뮤지션들은 물론 디자이너, VJ 등 다양한 서브컬처 아티스트들이 일상적으로 공연과 파티 등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 '레블(Revel)'을 경성대 앞에 오픈했다.

다양한 분야의 서브컬처 아티스트들이 공연과 파티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힙합 클럽을 표방하지만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퍼포먼스와 파티를 선보이고 있다. 부산 힙합 레이블 얼라이브 뮤직 홍기표와 '부두 인 개라지'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파티 문화를 만든 부두 크루의 김민호가 의기투합한 공간이다.⁴⁹⁾

45) 부산일보, 김종군이 본 부산 밴드 어제와 오늘·부산의클럽투어

46) 1992 / <http://www.livejazzclubmonk.com/> / 님구

47) 배진수 / 2010 / <https://www.facebook.com/ClubRealize/> / 님구

48) 홍기표 / 2014 / www.facebook.com/revel501, www.alivemusic.kr / 님구

49) Traveller, 2014년 9월호, 부산 판따라

(7) 올모스트페이머스⁵¹⁾

관심은 음악을 들으며 놀 공간이 없을까? 올모스트 페이머스의 대표 고혜진은 부산의 편협한 음악 공간, 로컬 DJ와 뮤지션들의 공연장 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2011년 2월 고민에 대한 답으로 라운지 바 올모스트 페이머스를 열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곳은 '부산의 힙 스폿'으로 첫째 둘째에 꼽힌다. 올모스트 페이머스가 입소문을 탄 건 화려한 DJ 라인업 덕이다. 매주 금요일엔 주로 로컬 DJ들이, 토요일엔 서울을 비롯해 해외의 유명 DJ들이 공연한다. 주 장르는 딥 하우스, 여기에 힙합, 레게, 펑크 등 트렌디한 음악들을 다룬다. 매주 다른 공연이 열리므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체크하고 방문할 것.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했다.⁵¹⁾

(8) 15 feet under⁵²⁾

언더그라운드 뮤직클럽으로써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다. 매주 주말 다양한 트랜스장르의 음악을 플레이, 15피트 언더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덤을 의미하는 영어권의 속어인 '8 feet under'에서 따왔는데 가게 높이(또는 깊이)가 15피트라 그렇게 지었다고 하며, 클럽이 추구하는 딥(deep)한 음악 색깔을 의미하기도 한다. 클럽의 주인은 독립영화 감독이자 문화공간 '다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독립영화나 일본의 실험영화의 대안 상영회도 종종 열고 있다.

(9) 드림홀(구, 오즈홀)⁵³⁾

라이브전용극장으로 2012년 부산에 제대로 된 음악 공연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중 소규모의 객석을 갖춘 이곳은 부산에서 현재 유일하다. 부산과 전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인디밴드 언체인드 1집 발매기념 공연에서부터, 이승환 전국투어 소극장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 비온드개러지⁵⁴⁾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대교 창고는 생겨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80년~7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건물이다. 원래 쌀 창고로 사용되어지다, 그 뒤 재지 창고로 운영되던 곳이다. 대교창고가 위치한곳은 부산항과 부산세관의 바로 앞 도로이며 부산항의 오랜 역사를 함께 겪어온 창고이다. 안티도트에서는 이런 대교창고를 알게된 후 이곳을 창고가 아닌 부산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의 근 현대사를 시작한 지점에서 안티도트는 중앙동의 대교창고를 통해 진짜 부산의 느낌을 살리며, 부산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갈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그래서 대교 창고는 새로운 이름인 'Beyond Garage'로 다시 태어나 한국의 대표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는 부산의 서브 컬처 신을 만드는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파티, 패션 브랜드의 론칭 행사와 팝업 스토어 등이 열린다. 비온드 개러지의 공간 활용은 파티장이나 스토어 등에서 그치지 않는다. '비온드 개러지는 어떤 용도로든 확장될 수 있는 곳이에요.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UFC 경기가 열릴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파머스 마켓을 열고 싶어요. 멋지겠죠?' 비온드 개러지 공동 대표 김석관과 서장현의 말이다.⁵⁵⁾

50) 고혜진 / 2011 / www.facebook.com/almostfamous.kyoungsang / 남구

51) Traveller, 2014년 9월호, 부산 판따라

52) 조완준 / 2012 / <https://www.facebook.com/15feetunder>

53) 고승학 / 2012 / <http://www.dreamhall.kr> / 진구

54) 김석관, 서장현 / <http://www.beyondgarage.com> / 중구

55) Traveller, 2014년 9월호

4. 공연예술관련 단체

1) 인디뮤지션

(1) 21Scott

2001년 런캐럿 밴드에서 활동하는 이태호, 남상준과 스타벅스 김성훈이 만나 결성되었다. 부산의 대표적인 3인조 펑크밴드이며, 밴드명은 스코틀랜드의 파이프음악처럼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멜로디를 만들자 라는 의미에서 2001년에 결성을 의미한 21과 SCOTT을 합쳐 21SCOTT으로 하였다.

(2) 경교밴드

보컬 이름에서 따 밴드명으로 보컬 여경교, 건반 박재민, 드럼 김용한, 기타 정용석 4인조 밴드이다. 최근 2012 슈퍼스타K 시즌4 슈퍼위크에 진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하드락과 팝을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닉 락 사운드 접목한 밴드이다.

(3) 옐로로코

스캇 펑크, 락앤롤 장르를 구사하는 4인 펑크 밴드, 보컬 양재동, 기타 옥성권, 베이스 김나경, 드럼 현성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방송과 페스티벌, 가요제에서 수상의 경력이 많은 실력파 밴드이다.

(4) 판다즈

2014년 1월 23일 정규앨범 'PANDAZ'를 발매하며 부산, 광주, 대구, 서울 전국투어를 마친 판다즈는 2005년 부산에서 결성된 4인조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밴드이다. 2012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뜨겁게 달구며 성공적으로 신교식을 친룬 판다즈는 클럽 및 각종페스티벌 공연 참가로 라이브 무대에서 그들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동시에 그들만의 음악적 기량을 한층 더 다져나가고 있다.

(5) 과메기

멤버 배진수(보컬), 김승환(기타), 박민희(베이스), 이성욱(드럼), 권태균(보컬로 구성된 과메기는 2008년에 결성되어 부산을 기점으로 전국, 나아가 해외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메탈 하드코어 성향의 밴드이다. 특히 보컬인 배진수는 부산에서 라이브클럽 Realize와 녹음스튜디오, 동명의 레이블을 운영하며, 공연기획, 밴드앨범 제작 등을 통해 부산 인디밴드들을 든든히 서포팅하고 있는 능동적인 활동가이다.

(6) 언체인드

서울 홍대 앞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밴드 룸 사이에서 부산 록 음악씬의 명맥을 터줏대감처럼 우직하게 지켜온 언체인드는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길을 뒤로 한 채, 가장 편하게 음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역 환경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과 뜻을 모아 2005년에 진저 레코드(Ginger Records)를 설립하고, 로컬 밴드들의 앨범 제작 및 기획을 총괄하면서 동반 성장을 도모했다. (포털 다음 뮤직 소개 중)

(7) 곤일두

현재 부산에서 가장 핫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펑크 록 밴드 '지니어스'의 보컬이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인 김일두는 곱게 다듬어지지 않은 노랫말과 연주록, 행복도 불행도 아닌 '생활', 그 자체를 노래한다. 총 38곡이 담긴 첫 정규 앨범 '곱고 맑은 영혼'(2013)은 별다른 음악적 장치 없이 기타와 목소리로만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그의 음악은 '날 것 그대로의 김일두'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의 귀를 집중시키는 힘을 가졌다. (EBS 스페이스 공감 삼김시대 해설 중)

(8) 곤태춘

부산을 근거지로 '일요일의 패배자들'이란 밴드를 했던 김태춘은 밴드 해체 후 솔로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데뷔음반 [가축병원블루스]는 컨트리, 포크 블루스에 뿌리를 둔 10곡이 담겨 있다. 일요일의 패배자들 시절부터 컨트리, 록큰롤, 블루스에 대해 애정을 아끼지 않았던 김태춘은 자신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은 음악을 데뷔음반에 담았다. (포털 다음 뮤직 앨범 소개 중)

(9) 피버독스

2009년 9월 부산인디씬의 중고 신인들이 모여 닭집에서 장렬히 결성된 피버독스는 결성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로컬씬에서 활동하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곳이면 무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연주해오고 있다.

(10) 핫페퍼파스타 hotpepperpasta

남미 분위기의 핑키한 재즈밴드이다.

(11) STONED(스톤드)

부산 핑크씬 최고의 악동들로 통하는 스톤드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에너지로 언제나 뜨겁게 열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팀이다. 부산 핑크씬에 기폭제되고 있다.

(12) 금창카라

이동진, 이정민 등으로 구성된 팀으로 불후의 명곡을 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통기타, 하모니카, 비보이 댄스를 중심으로 주로 해운대 동지에서 버스킹한다.

(13) 유미

부산에서 활동중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이다. 지난 2012년 2월 솔로로서의 첫 EP를 발매했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 스키모토 레이디랜드라는 밴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14) 문샷

4인조 어쿠스틱 밴드이다.

(15) 개차반

2002년 3월 결성된 4인조 락밴드이다. '개차반'이란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이라는 뜻으로,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아니다. 'ROCK'이란 단어를 키보드의 한글모드로 타이핑하면 '개차가 되는데 여기에다 '선동자, 주동자'라는 뜻을 가진 'van'이란 단어를 합성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한국적인 그루브와 핑키한 사운드를 추구하며 꽤 유니크한 곡을 연주한다.

(16) 마닉스브

새로운 밴드가 메달라 있던 부산 메탈씬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 팀으로 2013년 3월 첫 공연을 가진 팀 치고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렬하면서도 그루브 넘치는 음악으로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여성 보컬리스트 자체도 흔치 않은 이 바닥에 여성 '익스트림' 보컬리스트는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이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팀이기도 하며, 부산을 기반으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을 누비며 클럽 및 여러 기획 공연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17) 버 BURR

부산과 대구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록밴드로 2013년 <시애틀디스커버리>, <제로퍼스티벌>, <아트캠핑퍼스티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클럽 공연에 참여하였다.

(18) 이나

노래 짓고 부르는 이나, 장래희망은 할머니 포크가수이다.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기타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2014년 1월 EP 앨범 <지금 여기의 바람>을 만들어 노래여행을 시작, 새로운 사람들과 장소들을 만나 '두근두근 길 위의 노래'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9) 나까 NAOKA

도쿄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피아노와 함께 노래하고 있다. 심플한 가사와 음, 속삭임 같은 노래는 습도와 투명감이 공존하는 세계를 수면의 파도처럼 펼쳐나간다.

(20) 스카워이커스

스카 레게밴드로 2007년 '워이크업'으로 시작, 2012년 '스카워이커스' 개명하여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비롯한 부산을 대표하는 수많은 축제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울산, 제주, 후쿠오카 등 국내외 주요도시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2012년 공식 EP 앨범 발매에 이어 2013년 1월 첫 번째 단독콘서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7월 싱글앨범 <Music is Our Weapon>을 발매했다. 2014년 1월 자체 레이블 '루츠레코드(roots record)'를 설립하고, 7월 1일 본 레이블을 통해 첫 정규 1집 앨범 <Riddim of Revolt>를 발매하였다. (공간 항목 중 루츠 참조)

(21) 하프스

로큰롤(Rock 'n' Roll) 초창기 음악 스타일 가운데 하나인 로커빌리(Rockabilly)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로 활동 중인 하프스는 전국각지 펍과 클럽등지에서 그들만의 흥겨우면서도 원초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음악과 마치 80년대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퍼포먼스로 공연장을 찾은 수많은 관객들을 춤추게 하며 부산의 핫한 밴드로 떠오르고 있다.

(22) SIDECAR(사이드카)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 정교하면서도 경쾌한 비트, 3인조 구성에서 나오는 시원시원 하면서도 스트레이트한 노래들로 중무장한 부산 핑크 밴드이다.

(23) 허츠

부산표 얼터너티브락 밴드 허츠는 탄탄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곡들을 연주하는 밴드이다. '주파수'를 의미하는 Hz와 발음은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Herz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의 독일어로 허츠라 발음한다. 'Foo Fighters'의 음악에 영감을 얻은 멤버들이 모여 2011년 결성된 밴드로 주로 부산에서 활동 중이며, Alternative Rock 또는 Post-Grunge 성향의 음악을 연주한다.

(24) 잔디프로젝트

Vocal & Acoustic guitar 잔영욱, Bedric guitar & Chorus 김민철, Electric bass guitar 정우진, Drums 이호주로 이루어진 4인조 모던락 밴드이다.

(25) 허드터너

뒤돌아 볼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런 밴드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두고 있다. 기타와 베이스에서 남성 2명, 드럼과 보컬에서 여성 2명으로 이루어진 혼성밴드이다. 하드락을 기본적으로 그 위에 슬프고 감성적인 허드터너만의 색깔을 익힌 감성락밴드이다.

(26) 바드트리거 (Bad Trigger)

2013년 여름 즈음에 결성된 3인조 혼성 밴드, 포스트락에 사이키델릭 성향을 가미한 독특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로 몽환적인 공간계 기타 사운드와 원초적인 드럼 리듬, 거칠지만 매력있는 보이스로 듣는 이를 매료시키고 있다.

2) 힙합, DJ, 댄스팀

(1) OVERFLOW

부산의 힙합 레이블 ALIVE MUSIC 소속으로 다양한 앨범과 공연을 통해 음악적 입지를 다져왔다.

(2) VASSTIGE

ALIVE MUSIC 소속 뮤지션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산동에 위치한 H.C Studio를 운영하고 있으며, 힙합 뮤지션 외 다양한 앨범의 디렉팅을 맡았다.

(3) GST

ALIVE MUSIC 소속 뮤지션이자 영상 감독이다. 다양한 길거리 공연을 통해 실력을 쌓아왔으며 영상 제작 전공을 살려 ALIVE MUSIC 뮤직 비디오 비롯해 모든 영상 디렉팅을 맡고 있다.

(4) 부두 크루⁵⁶⁾

VOODOO CREW는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아닌 부산 로컬 중심의 영향력있는 아티스트 및 스트리트 파파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며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로컬이 가진 힘을 모아 새로운 느낌의 파티문화를 창출 해내고자 하는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은 중립적인 집단이다. 기획하는 파티를 통해 로컬 아티스트를 포함한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에게는 좋은 무대를 마련해주고, 문화적 이해도가 높은 파티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부산의 여러 로컬 크루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커넥션과 서브컬처에 대한 애정이 저희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기획을 응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및 업체들에게 그 보답이 되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선 순환의 고리를 만들고자 한다. VODOO의 파티는 영리만을 추구하며 쏟아지는 일회성의 기획이 아니며 부산 로컬 문화의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부두 크루는 부산의 로컬 DJ, MC, 그래피티 아티스트, 비보이를 포함한 국내 힙합 크루, 반스Vans, 파타고니아Patagonia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스트리트 브랜드, 서핑과 스케이트보드, 티투 등의 스트리트 문화 안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파티이다. 힙합 클럽 레볼의 대표 김민호, 뮤지션 크리틱과 지로, 프로듀서 스위이드, DJ 조, DJ 레브가 부두 크루의 일원으로 파티를 기획한다. 2013년 11월 부룻가의 창고를 개조한 문화 공간 '비온드 개러지'에서 첫걸음을 뗀 후 올해 3월과 6월, 두 번의 파티를 더 열었다.⁵⁷⁾⁵⁸⁾

(5) One 先生 JU

한국 힙합음악씬의 시작점이었던 90년대 중후반, Producer이자 DJ인 JU는 정통 힙합사운드에 강인한 인상을 남기며 등장했다. 이어 '가리온'의 Producer이자 홍대의 DD, 강남의 DMC, 부산의 Mary Jane 등에서의 DJ 활동을 하고, 세계적인 프로듀서인 DJ Shadow Live In Seoul, DJ Krush 내한 등에 초청되면서 힙합씬의 새로운 지형과 트렌드를 제시하였다. 이후 부산으로 옮긴 그는 Almost Famous에서 활동하며, 로컬 언더그라운드씬의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교류와 후진양성의 활동 등을 통해 로컬씬의 뿌리를 다지고 있다. 최근 JU는 'Sound Bombin'과 most Infamous를 통해 시대성을 넘나들며 소울, 펑크, 힙합 음악들을 선보이고 있다.

56) - <https://www.facebook.com/VOODOOCREW/>

57) <https://www.facebook.com/VOODOOCREW/>

58) Traveller, 2014년 9월호, 부산의 키워드를 바꾸는 남자들

(6) Dusty Dols

부산 하우스댄서 1세대로 1997년부터 Red Fox 댄스크루의 멤버이자, 1999년부터는 Polyester 하우스댄스 크루, 2002년에는 Groove Taps 하우스댄스 크루의 리더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하우스댄스뿐 아니라 부산의 언더그라운드 일렉트로닉 레이블 PLANET GROOVE의 House DJ로 활동을 시작하여 이후, 경남지역의 다양한 유명 클럽에서 부산클럽 DJ 1세대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과 행사 외에도 빅슈가와 올모스트페어머스 레지던트 DJ로 활동 중이고, 'SOUND BOMBIN' 크루 일원과 MOST INFAMOUS의 반쪽으로서 로컬 언더그라운드씬에 기여하고 있다.

(7) 건봉, 건봉스튜디오⁵⁹⁾

중학교때 외국문화에 관심이 많던 친구 네명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크루를 만든 것이 건봉의 시작이었다. 외국문화, MTV, 흑인 음악 등등 을 접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였던 댄서 가야창골을 만나게 된다. 그 시절 김프로는 디제잉을 접하고 있었는데 좀 더 다양한 문화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들은 가야창골의 제의로 2002년 건봉이라는 이름의 첫 티셔츠브랜드를 런칭하게 되고 많은 아티스트들과 교류와 소통으로 비슷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아티스트들과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결과물로 많은 이들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안에서 주체자가 되고 싶었던 그들은 좀더 프로페셔널한 기획과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 'gunbong studio'를 open하게 된다. 익숙한 음악과 술만이 즐비한 기존 파티와는 다른 '어쩌다 마주친 뮤직' 'SOUND BOMBIN' '욕구의 세련화' 같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즐거운 잔치문화를 만들게 된다.

(8) 젊은풍류

2008년 창단 된 공연연주단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악 클래식 현대음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 '젊은풍류'는 다양한 차원에서 여숭창작활동을 지향하며 주로 전통음악의 바람직한 전승과 국악의 현대화와 대중화 작업에 큰 가치를 두고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9) 킬라몽키즈⁶⁰⁾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모아 발전적이고 보다 즐거운 길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스트리트 컬처 크루이자 컴퍼니이다. 춤, 음악, 기획, 사진, 영상, 디자인, 패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및 외부 강사, 스트리트 댄스 전문 아카데미 '몽키즈 댄스 아카데미' 운영, 비보이&랩 길거리 게릴라 점프 프리스타일 스쿼드(연평균 8회), 킬라몽키즈 콘서트 '락킹정글'(연평균 3회) 등으로 활동하였다.

'자연스럽게 길거리 공연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가자 성공한다'라는 말이 가장 싫어요. 여 전엔 오히려 서울에서도 보러올 정도로 부산이 더 풍요로웠어요. 없어진 팀들 절반은 서울로 가버린 경우입니다. 이전엔 용두산공원이나 사직운동장, 지하철역 등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자꾸 통제받으니 결국 스튜디오나 학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런 공간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죠. 아이들이 춤출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지금 서면 1번가나 해운대 문화존처럼, 열린 공간에서 굳이 전문 댄서가 아니라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⁶¹⁾

59) 김프로 / 2002 / <https://www.facebook.com/gunbong07/> / 친구

60) 양문장 / 2001 / <https://www.facebook.com/killamonkeesz/> / 복귀

61) 부산일보, 2009.1.5. [김수우의 아름다운 인터뷰 <13> 비보이 '킬라 몽키즈' 리더 양문장

(10) M-note 현대 무용단⁶²⁾

2004년 창단된 M-note 현대 무용단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M은 여러 가지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 movement(움직임)와 meditation(명상)이라는 의미로 대표된다.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이자, 무용단이 사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1) 부산노리단&달록⁶³⁾

부산 노리단&달록은 2011년 8월 부산-경남지역과의 창조적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청년'의 새로운 직업전망, '문화예술'의 지속성 등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며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이다. 창단멤버들은 경남지역 17명의 청소년, 청년, 문화직업자로 노리단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알맞은 악기오브제 개발과 공연, 워크숍, 커뮤니티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의 자원들을 활용한 해양, 생태, 다문화, 글로벌 축제 등의 아이템을 기획하고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5. 시각예술·인문학 관련 단체

(1) 부산자연예술인협회, 꽃마을아트스튜디오⁶⁴⁾

부산자연예술인협회는 국내 외 각 지역의 문화적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획일화된 주류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특성을 살려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자연예술인협회가 위치한 구덕산 꽃마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생태미술을 구덕문화공원을 찾는 동산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저변 확대와 이해 증진을 이루고자 한다.

(2) 비아트협동조합⁶⁵⁾

조합원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비판 정신에 입각한 시각예술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미술문화잡지 <비아트>를 발행하고 있다. 운영공간인 <스페이스 비아트>에서는 인문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강의, 스터디 등 다양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판, 전시대관, 스터디룸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예술협동조합을 추구한다.

(3) 온천천 그래피티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아래의 온천천 산책로 벽면 약 2km는 '그래피티 메카, 성지'로 불린 곳이다. 1990년대 후반 일명 '똥다리'라 불리던 시절부터 한국의 그래피티 작가들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지역의 작가들이 몰려들어 자발적으로 그래피티를 남겼다. 이후 지역 주민에겐 일상적인 예술 공간이 되었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의 촬영 한장이 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여름 부산시는 하천정비라는 이유로 부산대역사 일부 구간만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온천천의 그래피티 구간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당시 활동하던 많은 그래피티 작가들이 서울 등지로 떠나게 되었다. (참고 : 창조도시 부산을 깨우다)

62) 신승민 / 2004 / www.facebook.com/minotedance

63) 안석희 / 2011 / <http://blog.naver.com/basnorian> / 사상구 / 사회적기업

64) 성백 / www.facebook.com/artinnature / 서구

65) facebook.com/coopbart / 해운대구

(4) 생활예술모임 공간⁶⁶⁾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2013년 7월, 문학평론가 김대성과 미술작가 송진희가 연 모임이다. 수년간 크고 작은 대안 모임에서 활동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삶이라는 생태계를 보살피는 것의 중요성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장소와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것을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다. 제도적인 후원 없이 자립하고 있는 작은 모임들을 옮겨 다니며 연계해 그 장소를 새롭게 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쉽게 잊혀지거나 망실되는 사람과 장소를 기록하고 그 이력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일상으로 끌어 올려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건사하는 데 작은 동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간 놀이 실험실 <생각다방 산책극장>, 영화관객응원 단체 <모퉁이극장>, 인문학 카페 <허세이티>, <핑크로더> 등 이와 같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공간>을 열고 있다. 특정한 장소를 활동의 거점으로 삼지 않고, 생활 속 자립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장소와 사람을 오가며 함께 <공간>을 열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과 '사건'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동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 문화를 꿈꾼다.⁶⁷⁾

(5) 부대프리마켓 아마존, 도모⁶⁸⁾

아마존은 지하철 부산대역 아래 온천천에서 매주 일요일 이루어지는 프리마켓으로, 순수창작물로 이루어진 작가와 시민과의 만남의 장이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작가, 시민, 학생, 전문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기존 문화생산과 소비의 틀을 벗어나 창작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 생활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 판매, 워크숍, 체험행사, 공연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모는 아마존이 만든 공간으로, 순수창작물로 직접 소통하고 전시, 판매,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 소규모 벼룩시장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6. 잡지(출판·디자인)·영상

(1) 문화잡지 보일라⁶⁹⁾

문화잡지 보일라는 2002년 8월에 창간한 문화잡지이며 신인예술가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 문화예술 잡지이다. 현재 발행이 중단된 상태. 2011년 10월 기준 90호, 3000부 정도 발행되었고 101곳에 배부처가 있으며, 문화예술공간, 갤러리, 시민문화단체 등 신청이 들어오면 잡지를 보내준다. '보일라'는 전국 대안공간 및 갤러리와 서점에 배부되고 있는 월간 무료잡지이다. '여기 있습니다'라는 불어 'Voilà(부왈라)'에서 의미를 빌려온 'VoiLa'는 감탄의 뜻을 담고 있다. 동시에 뜨거운 에너지로 삶을 데우는 보일라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함축한다. 그녀는 '보일라'를 발행하면서 분명한 세 가지의 뜻을 세웠다. '그속에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 독립예술가를 알려주는 것, 경제활동하고는 관계 없을 것, 그런 잡지가 생명감을 발휘해야 하는 게 바로 문화가 아닐까?'⁷⁰⁾

66) 김대성, 송진희 / 2013 / facebook.com/betweenscene

67) facebook.com/betweenscene

68) 전혜정 / 2010, 2014 / <http://facebook.com/domo20140122> / 김정구

69) 강선재 / 2002 - 발행중단 / cafe.naver.com/voila

70) 부산일보, 2009.1.26., [김수우의 아름다운 인터뷰] (16) 문화잡지 '보일라' 발행인 강선재님

(2)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⁷¹⁾

2011년 8월 창간한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하는 작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실천의 힘을 믿는 계간 무가지이다. 광안리와 부산문화의 숨겨진 속살을 찾아내서 새롭게 조망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과 일상공간의 이야기들, 여가와 생활 정보까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잡지발행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011년에는 사운드파티 〈광안리의 달〉, 2012년에는 부산청년수도프로젝트 〈사운드웨이브페스티벌〉, 〈그래피티부산〉, 〈청년문화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

(3) 기념미디어 바쌈⁷²⁾

예술가들과 대학생, 직장인 등이 모여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귀 기울이며 응원하는 수다집단이다. 이 개인의 재능과 관점을 응원하면서 거대 이슈 중심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관찰하고 기록에 남기고 있다. 엽서크기의 잡지로 시작해 다양한 형태로 잡지의 변주를 겪어 왔고, 웹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마을 활동, 공연 리뷰 등 다양한 현장과 연계한 책자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4) 호랑이출판사⁷³⁾

호랑이출판사는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조그만 팀이다. 지난 2013년 10월 김현아와 허주영이 가내수공업 그림책 〈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책 만들어서 돈 벌 생각만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리라 믿으며, 나쁠 뻔 아주 나쁘지만 좋을 뻔 한없이 좋은 롤러코스터 팀워크로 좌충우돌 함께하고 있다 〈세월호생각〉, 〈어서와, 이런 여행책은 처음이지?〉 등을 출간하였다.

(5) 부산독립출판연구소 / 소규모책방 샵메이커스 (미술비평지 크레크 달지 않은)⁷⁴⁾

부산의 유일한 독립출판 교육 연구단체이다. 연구원들은 디자인, 미술, 영상, 문학, 비평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활동 중이며, 독립출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자주 출판사를 운영하고 독립출판을 기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 샵메이커즈와 프롬더북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가진 다양한 출판 프로세스를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독립 출판 워크숍 및 부산의 다양한 문화영역의 사람들과 협업을 실행하고 있다.

(6) 함께가는 예술인⁷⁵⁾

〈함께가는 예술인〉은 부산민예총에서 발행하는 지역문화예술잡지로 예술의 사회참여현장, 문화예술 현장과 정책비평 등을 다루고 있다. 놀이가 되는 현장, 스스로 만든 놀이를 잡지에 담아낼 것을 지향하며, 문화예술판의 대안적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려고 한다. 2003년 계간지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 중이며, 현재까지 통권 50호를 발행했다. 또한 종이잡지 이외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기도 한다.

(7) 그린그람⁷⁶⁾

2009년 시작된 그린그람은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인쇄매체와 아이덴티티, 일러스트레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핸드메이드로 직접 제작하는 ggg(greengreen goods)와 금요일, 토요일만 문을 여는 작은책방 fromthebooks를 운영하고 있다.

71) 이여주 / 2011 / www.gwanganri.com / 수영구

72) 박진명 / 2012 / www.bassak.kr / 금정구

73) 김현아, 허주영 / 2013 / tigerbooks.tistory.com

74) shopmakers.kr / 금정구

75) 부산민예총 / cafe.naver.com/barsang21

76) 2009 / greengreen.co.kr / 연제구

(8) 그래픽크 제아끼

지역문화기반 디자인4아트 그룹이다. 부산지역 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기관, 문화 예술인과 소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였다.

(9) 미다토리 협동조합

미다토리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민들이 공공미디어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미디어사업 분야의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0)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단법인 부산독립영화협회는 1999년부터 부산에서 독립영화의 상영, 배급을 담당하고 부산영화정책을 제안하며 일반인들에게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영화제작교육을 활성화하며 부산 영화인력 재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부터 매년 〈메이드인부산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 부산독립영화작가론을 다룬 책자 〈인디크리틱〉을 제작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통해 영화 제작 환경과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7. 포럼·세미나·네트워크

(1) 부산청년포럼

청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현실적 조건을 탐색하고 청년들간 그 어려움을 공유하는 포럼이다. 포럼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문화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운영 중이며, 청년들이 지닌 답답함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가능성 모색하는 자리 마련한다. '부산 청년과 사회적 일자리', '부산 청년 100명의 목소리' 〈청년테이블+ '마을, 청년, 정치'〉, 〈청년테이블+ '식, 주, 휴 라이프스타일'〉 등 개최하였다.

(2) 일발장전

일발장전은 장전동 지역을 배경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다양한 모습과 역사,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장전동일대의 소식과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장전동 지역에 필요하거나 장전동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학생 등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77) 김재식 / 2011 / <http://graphiquej.blog.me/>

78) 박지선 / 2010 / www.meditory.net / 사회적기업

79) indipusan.or.kr

80) 박진명 / 2014 / <https://www.facebook.com/bsyoungforum>

81) 김정우 / 2013 / <https://www.facebook.com/oneshotjangjeon>

(3) 대학생문화나눔공동체 소울21

소울은 대학생이 모인 대학생프로젝트팀으로 부산에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 2013년을 시작으로 합창, 밴드, 댄스 등 문화나눔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에 들어서는 지역과 청년에 중심을 두어 활동을 진행 중이다. 활동으로는 문화를 통한 부산 살리기를 목적으로 '문화나눔'을 실천중이며 '소통하라 부산문화 토크콘서트'를 기획중이다.

(4) 청소년문화예술커넥션 studio54⁸²⁾

〈Studio54〉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공연과 전시를 보기도 하고 저마다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형 미래 예술가로서의 길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스튜디오이자 네트워킹 커넥션이다.

(5) 청소년 문화단체 [사이4]

경쟁적이고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환경속의 청소년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단체이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성장해나가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강연, 팟캐스트, 정보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6) 히어로스토리⁸³⁾

HERO STORY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Dream Story를 만들어가는 청년의 성장 공동체이다.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자기주도적으로 확립하고자, 꿈의 명확성, 자기능력개발, 커뮤니케이션 기법, 인간관계 증진 등 인성함양 및 자기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과 협업하여 청소년/대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자체프로그램 진행보다는 외부 프로그램(캠프, 특강, MC) 의뢰 진행을 주로 하고 있다.

82) 김성원 / 2013 / <http://cafe.naver.com/volunteeringsooul>

83) 이원경 / 2011 / <https://www.facebook.com/Studio54.kr>

84) 권현석 / 2014 / cafe.naver.com/byic

85) 김상수 / 2011 / www.herostory.co.kr

[부록2] 전문가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List
No

ID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문화 사업에 대한 5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의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장기적인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수행의 참고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 책 임 자 : (재)부산발전연구원 오재환 연구위원

▣ 담 당 자 : 김미연 연구원

▣ 조사기관 : (주)다산리서치 담당연구원 - 안상수차장 (tel : 051-882-1808,
fax : 051-882-1808) e-mail : info@dasan.re.kr

기관명			
기관주소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응답자 이름			전화번호
응답자 부서			응답자 직위

I. 응답자 특성

* 귀하께서 해당되시는 사항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소속	① 대학교 ② 연구기관 ③ 공공기관 ④ 관련협회/단체 ⑤ 민간기업 ⑥ 언론 ⑦ 시민단체 ⑧ 기타 ()		
관련 분야	① 전시/컨벤션/이벤트 ② 기획/연출 ③ 연극/영화/영상 ④ 광고/홍보 ⑤ 사회/문화 ⑥ 공연/연주 ⑦ 예술가 ⑧ 기타 ()		
근무 연수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24년 미만 ⑥ 25년 이상		

II.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개념 및 범위 설정

Q1. 귀하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청년문화'의 정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 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 ② 응답자 Q1-1로 이동

※ [조례 4870호]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정의

1.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Q1-1. (Q1 문항의 ②번 응답자만 응답)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Q2. 청년문화의 범위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보기	① 연령 ② 활동 ③ 이념 ④ 사회적 실천
	⑤ 공간(온라인/오프라인 등) ⑥ 성격 ⑦ 기타()

Q3. 귀하는 청년문화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제시된 보기 이외에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제시 키워드	미래, 일자리, 청년문화, 지역, 네트워크, 동아리, 사회적 경제 등
--------	--

제시 키워드 외 포함되어야 할 키워드



Ⅲ.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인식

Q4. 다음은 청년문화 조례에 명시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항목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중요성·파급성·시급성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성 : 이 사업내용이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한가?
- 파급성 : 이 사업내용이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파급성이 어느 정도인가?
- 시급성 : 이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얼마나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중요성	파급성	시급성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1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Q5. Q4 문항에서 제시된 항목 이외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Ⅳ.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08. 다음은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연구의 1차 지문회의 결과 도출된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중요성·파급성·시급성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중요성	파급성	시급성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낮음
1 부산지역 청년문화 실태조사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2 부산지역 청년문화 인력 인큐베이팅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3 부산 자체창작 프로그램 추진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4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5 부산지역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6 부산지역 청년마켓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7 부산지역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8 부산지역 청년문화 포럼 개최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9 부산지역 청년문화 소식지 발간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0 부산지역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1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금 조성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2 부산지역 거점공간 육성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3 부산지역 청년문화 네트워크 축제 개최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4 부산지역 spot 릴레이공연 사업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5 부산지역 권역별 공간 조성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6 부산지역 대학가 청년창조 문화발전소 조성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17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상호 교류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참고> 위 문항에 제시된 각 사업별 요약 설명입니다.

- 1번 문항 : 부산지역 청년문화 관련시설, 인력, 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함
- 2번 문항 : 부산지역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을 위함
- 3번 문항 : 부산지역에서 청년문화·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공간 마련 지원 등을 위함
- 4번 문항 : IT와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의 타 장르 융·복합 예술지원 등을 위함
- 5번 문항 : 청년문화활동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공간조성 컨설팅, 기획·심의·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함
- 6번 문항 : 지역 예술인 음반·음원·창작품 판매 거리문화 확대, 청년문화공간 소개를 위한 청년클럽 투어 등
- 7번 문항 : “청년문화 수도의 메카, 부산”이라는 상징성 강화 등을 위함
- 8번 문항 : 청년문화의 저변을 확대 및 청년 아이디어와 네트워킹 강화 등을 위함
- 9번 문항 : 청년문화 소개 및 소통의 매개 역할을 위함
- 10번 문항 : 향후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활동 축적 등을 위함
- 11번 문항 : 부산지역 청년문화 육성을 위함
- 12번 문항 : 기존 공모사업의 관계를 탈피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함
- 13번 문항 : 청년문화 페스티벌 기획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행사 추진 등을 위함
- 14번 문항 :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되었음. 생활현장에서 삼시적으로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발표기회 제공 등 생활문화 확산 효과 기대
- 15번 문항 :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유기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함
- 16번 문항 : 부산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린 청년창조 문화발전을 위함
- 17번 문항 : 청년문화의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함

V.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Q7. 부산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보기	① 조직	② 인력	③ 예산	④ 네트워크
	⑤ 법·제도	⑥ 참여	⑦ 기타()	

Q8.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와 관련한 아래의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네트워크 사업 추진	⑤	④	③	②	①
2) 지역재생사업 등 지역사회 실천	⑤	④	③	②	①
3) 직업으로서의 청년문화공간 지원	⑤	④	③	②	①
4) 인력양성 사업 추진	⑤	④	③	②	①
5) 단체장의 지원의지와 의회 협조	⑤	④	③	②	①
6) 관계자의 역할 분담	⑤	④	③	②	①
7) 거버넌스(협력)체계 구축	⑤	④	③	②	①
8) 법·제도적 보완	⑤	④	③	②	①
9) 자발적인 참여·노력	⑤	④	③	②	①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3] 국내 주요 청년문화관련 공간·단체

(1)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명실상부하게 한국 청년문화와 관련된 인력을 배출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대표적인 곳이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며, 이곳을 통해서 많은 단체 및 공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seoulfringe.net/>

(2) 이태원 우사단단 서울

이태원 이슬람사원 위쪽 길 우사단로를 명물로 만든 마을 네트워크, 젊은 아티스트 및 지역 청년들이 모여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현을 진행하는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겨운 네트워크이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젊은 힘이다.

<https://www.facebook.com/wosadan>

http://press.kookmin.ac.kr/KPRESS_DATA/KPRESS_PDF/900/900_18.pdf

<http://www.sfac.or.kr/munhwaplusseoul/html/view.asp?PubDate=201408&CateMasterCd=200&CateSubCd=334>

(3) 커먼센터 서울

대안공간이라는 형태가 더 이상 대안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공간 중 하나,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지역과의 연계성에도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http://commoncenter.kr/>

<http://artmu.mmca.go.kr/user/sub/subView.do?contentsNo=430&magazine=201407&menu=INTERVIEW>

<https://www.facebook.com/common.center.seoul>

(4) 탐골만화방 고산

미술작가이자 기획자인 양철모씨가 만든 공간이다. 미술 및 문화의 확장 형태를 다양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재미난 도전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며, 수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체류도 가능하다.

<http://blog.daum.net/hmminju/88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29285&CMPT_CD=MMORE

(5) 제주도좋아 제주도

부산 재미난복수/아지트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고, 서울에서 아주 활발하게 필름메이커로 활동했던 김승환이 주요 멤버로 있는 제주도의 가장 주목받는 문화단체이자 공간이다. 리싸이클, 환경, 커뮤니티, 지역, 대안적 기획 등등 다양한 활동 형태를 통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단체이자 공간으로서의 임지를 굳혀가고 있다. 외지에서 제주도에 정착해 아주 훌륭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매력적인 팀이다. 애정을 가지고 주목할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는 팀이다.

<http://www.jaejudojoa.com/>

<https://www.facebook.com/jaejudojoa>

(6) 무대룩_서울

부산문화재단 잡지 공감, 그리고에 직접 원고를 썼던 곳이다. 홍대 인근의 가장 핫한 공간이며, 단순한 소비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긴 시간동안 고민하고 활동했던 공간 주인의 의지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운영 철학과 형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만 하다.

www.mudaeruk.com

<http://street-h.com/magazine/45278>

<http://ecolounge.tistory.com/280>

(7) 마르셰_서울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세련된 마켓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장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자극받을만한 것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부산이 고민할 수 있는 축제형 장터, 환경과 공정무역, 문화가 섞여 있는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다.

<http://marcheat.net/>

(8) 문화로놀이짱_서울

너무 많이 버려지고, 대부분 매립, 소각되는 가구들에서 이미 유해성분이 빠져나간 건강한 목재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들을 고민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오래된 가구들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담아 할머니 품과 같은 멋스럽고 따뜻한 가구 및 소품을 제작하고, 일상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을 작업장을 운영하고, 재활용 목공 워크숍을 진행한다.

<https://www.facebook.com/norizzang>

(9) 스톤엔워터_안양

스톤엔워터는 이미 미술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곳이다. 레지던시를 비롯해 다양한 실험적 접근이 지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얼마 전에 대표가 부산 출신의 위창완씨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젊고 유쾌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양의 대표적인 다운타운인 안양번가 주변 유흥 공간이었던 공간을 개조해 문화부흥을 꾀하는 도전을 시작했다.

<http://stonenwater.org/>

<https://www.facebook.com/stonenwater>

http://www.culturein.co.kr/sub_read.html?uid=4808 블랙마켓 : 스톤엔워터의 석수시장 프로젝트

(10) 성북신나_서울

최근 성북문화재단에 김종취 대표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청년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많은 단체나 활동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한가운데에서 아주 건강한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신기할 만큼 서울 단체에 부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조합에도 중심멤버 중 한명이 부산출신이다.

<https://www.facebook.com/sinna.us>

(11) 서울스 청년허브

서울시에서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년 관련 활동들을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http://www.youthhub.kr/>

(12) 연남동

연남동은 이미 홍대의 대안이 된 곳 중 하나이다. 연남동 안쪽 골목에 대안적인 전시 공간을 자처하는 플레이스 막이 있고, 그 근처에 재래시장 공간을 개조해 주말이면 수공예 워크숍, 장터, 디제이 퍼포먼스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플레이스막 <http://www.placemak.com/>)

[부록4] 아시아지역 청년문화관련 단체

독립기획자 류성호 <2014부산문화예술컨설팅 _ 하위문화와 대안적 문화실천>

최근 몇 년간 일본이나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동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러한 기회를 연계해 단순한 이해를 넘어 좀 더 밀착된 호흡을 하고 협력 관계를 설정해 함께 어떤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 보는 리서치를 다니기도 했다. 이 리서치를 통해 발견했던 홍콩, 방콕, 호치민, 쿠알라룸푸르의 주요한 몇몇 공간이나 단체의 활동을 소개해 보며 가까운 곳에 있는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인 문화활동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1) WOOFER-TEN 活化艦

물뿌리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소통을 지향하는 실천적 현대미술 개념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정의되는 Woof-Ten은 홍콩과의 인연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곳이다.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연구자, 교육자 등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한 Woof-Ten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 의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창조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구성원 그 자체로 행동하는 Hong Kong Cultural Activist Network 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東亞諸群峰會「革命後之世界」East Asia Multitude Meeting: The world after revolution>을 2012년과 2013년에 개최하였다.

404 Shanghai Street, Kowloon, Hong Kong

<http://www.wooferten.org>

<http://woofertpost.blogspot.hk>

(2) TAK CHEONG LANE COMMUNITY SPACE

2011년 10월 15일 시작되어 2012년 9월 11일까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경제 구조와 권력 관계가 보다 더 공정하게 사회에 적용되기를 요구하며 진행된 Occupy Central은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된 Occupy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와 더불어 홍콩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 간 만남을 가속화 시켰다. 약 1년여간 진행된 Occupy Central 활동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Occupy Central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지속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조성한 곳이 Tak Cheong Lane Community Space이다.

<https://www.facebook.com/OccupyCentral>

<https://www.facebook.com/takcheonglane>

takcheonglane@gmail.com

(3) C&G ARTPARTMENT

작은 공간이다. 그러나 활동의 스케일은 작지 않다. 홍콩의 예술 생태에 대한 문제를 실감하고 대안적인 활동을 위해 Clara와 Gum이 2007년 시작한 공간이다. 사회문제, 문화적인 현상에 대응하고 미술 현장의 균열을 채우는 역할을 자처하며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천을 독려하는 공간을 만들어 왔다.

<http://www.candg-artpartment.com>

info@CandG-Artpartment.com

(4) 馬寶寶社區農場 MAPOPO COMMUNITY FARM

馬寶寶社區農場 Mapopo Community Farm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 지원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 농업에 대한 방법을 찾는 문화운동이다. 홍콩 정부가 지역 미래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비전 없이 토건 중심의 개발정책에만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고 여러 도시 구성원 및 아티스트가 참여해 그들 스스로가 지킬 농지를 확보하는 활동이 2011년에 있었다. 이후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지역 투어 프로그램, 직거래 시장 등을 운영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지와 음식, 삶의 관계를 재인식 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mapopo.wordpress.com>

mapopo.farm@gmail.com

(5) 菜苗 O-VEG

홍콩 외곽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채식레스토랑이다. 자연 속에 위치한 덕분에 고층빌딩 숲을 벗어나 이 곳에 올 때면 아주 특별한 휴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 및 기획자, 활동가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Occupy Central 때에는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동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http://o-veg.blogspot.com>

<http://www.o-veg.org>

(6) HIDDEN AGENDA

음악과 관계된 지역의 공동가치를 실현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운영되는 이 곳은 인디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해외 뮤지션들이 홍콩을 만나는 주요 창구이기도 하다. 또한 각종 영화상영 및 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를 위해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2A, Wing Fu Industrial Bldg, 15-17 Tai Yip Street, Kwun Tong, Hong Kong

hiddenagenda.hk@gmail.com

<http://hiddenagenda.hk>

(7) XXX Gallery

한마디로 언더그라운드 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얼핏 보이는 모습은 다른 클럽들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XXX Gallery는 홍콩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 주목하고 이러한 흐름이 주된 콘텐츠로 공간과 결합하는 형태를 지향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홍콩 아티스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섞이는 주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을 활용해 언더그라운드필름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하며, 여러 나라와 교류를 기반으로 한 공연/파티 및 작업에 대한 욕심도 있다. 홍콩 언더그라운드 클럽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만나보도록 하자.

B/F, 353-363 Des Voeux Road West Sai Wan, Hong Kong

<http://xxgallery.hk>

xxgalleryhk@gmail.com

(8) WHITE NOISE RECORDS

레코드숍이다. 여러 희귀 앨범을 비롯해 많은 인디뮤지션, 해외에서 들어 온 멋진 리얼 뮤지션들의 앨범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곳은 홍콩 시민과 홍콩 인디음악이 만나는 곳, 홍콩 뮤지션과 해외 뮤지션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대표인 Gary Leong은 이 레코드숍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공연을 오랫동안 기획해 오고 있기도 하며, 오랜 활동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변 뮤지션들의 프로모션이나 해외 교류채널확보, 여러 작업을 위한 매개 역할도 기꺼이 진행하고 있다.

1/F, 720 Shanghai Street, Kowloon

www.whitenoiserecords.org
whitenoiserecordshk@gmail.com
www.myspace.com/whitenoiserecordshk

(9) HEAVY HONG KONG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주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획파티를 꾸준히 만들고 있으며, 기획파티의 컨셉에 맞는 공간을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하기도 한다. 대표인 Lai Fai는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DNB 음악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리서치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살아 있는 홍콩의 파티를 경험하고 싶다면 Heavy Hong Kong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파티 일정을 확인하라.

<http://www.heavyhongkong.com>
<http://heavyhongkong.wordpress.com>
<http://www.facebook.com/heavyhongkong>
heavyhk@gmail.com

(10) 實現會社 THE COMING SOCIETY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헌책방이다. 다양한 인문 사회 예술과 관련된 중고서적을 판매하기도 하며 같은 공간 내에 음악관련 웹진 BITETONE(<http://bitetone.com>)을 운영하는 사무실과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단체의 보금자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http://thecomingsociety.wordpress.com>
comingsociety@gmail.com

(11) Hong Kong Social Movement Film Festival

사회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필름을 전방위적 장소를 통해 상영하는 페스티벌이다. 2004년 홍콩 청년들이 거리에서 공연과 뮤직비디오 상영 등의 해프닝을 시도하면서 시작된 흐름은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 8회 WTO 회의, 2007년 홍콩의 주요 노동투쟁 등을 계기로 활동가들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사회정의와 관련된 필름을 실험적인 형태로 상영하는 연례행사로 발전했다. 사회, 환경, 미래, 협력, 평화 등에 뜨거운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결합되어 있다.

8a Kamlun Building, 739 Nathan road, MongKok, Hong Kong
 Social Movement Resource Centre, hkfs (Autonomous 8A)
<http://smff.wordpress.com>
contact@smrc8a.org

(12) START FROM ZERO

홍콩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아티스트이기도 하며, 스트리트 아트에서 활용하는 스텐실 등의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디자인 스튜디오와 목작업 등을 주로 하는 스튜디오, 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에서의 작업과 사업적인 영역을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티스트들이다.

<https://www.facebook.com/pages/start-from-zero/136800738280>
<http://www.startfromzero.org>

(13) GRAPHIC AIRLINES

즐겁고 유쾌한 시각예술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 주는 팀이다. 페인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 오브제 제작, 설치, 영상 등 거침없는 변형과 확장을 실험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거리나 다른 문화공간에서도 그들의 페인팅을 목격할 수 있다.

<http://graphicairlines.com>

(14) ART STUDIO @ Industrial Area HK

상상을 초월하는 홍콩의 임대료를 보면 큰 수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아티스트들의 스튜디오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아티스트들은 불가피하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여들었으며, 그 곳이 바로 공장지대이다. 홍콩은 현재 여러 공장지대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스튜디오를 조성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HKADC)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음악 (37.3%)과 시각 예술 (37.8%)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약 47.0%가 25~39세로서 사용자의 상당 부분이 젊은 세대였다. 또한 그 중 약 80.2%가 활동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조사되었다. 주요한 공장지대는 4곳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번 리서치를 통해 가장 익숙해진 Kwun Tong, Kowloon 지역은 주로 음악과 영화영상, 스트리트 아트, 디자인 스튜디오가 몰려 있었으며 그 숫자만 해도 이 곳 한 지역에 어림잡아 500곳 이상이 넘는다고 했다. 그 외에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파인아트 스튜디오가 많아 외부에 잘 알려진 Fotan, New Territory 지역이 있으며, 연극, 무용 등의 퍼포밍 아트 스튜디오가 많은 San Po Kong, Kowloon 지역, 그리고 사진, 출판물, 디자인 스튜디오가 많은 Chai Wan, New Territory 지역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15) WTF BAR & GALLERY

현대미술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가 거의 없는 태국에서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현대미술 작가들을 후원하고 건물 내에 조성한 갤러리를 통해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드러낸다. 시각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소규모 활동이 있으며, 축제의 형태로 갤러리가 위치한 골목 인근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축제도 연계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7, Sukhumvit soi 51, Bangkok, Thailand

<http://wtfbangkok.com>

somrak@wtfbangkok.com

(16) SPEEDY GRANDMA

Lee Anantawat와 Thomas Menard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다운타운이 아닌 전형적인 로컬에 위치하고 있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대에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작품을 수용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자 한다. 유연한 기획력을 통해 유쾌하게 아티스트와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간에서 감지되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872/50-52 Soi Charoenkrung 28 Bangrak Bangrak, Bangkok, Thailand 10500

<http://www.speedygrandma.com>

(17) READING ROOM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Reading Room은 1997년 여러 나라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미술계가 2000년대 중후반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면서 이전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태국 내의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안공간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낯설게 인지되는 현대미술이 가진 교육적인 기능에 주목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해 인문학, 사회, 경제 파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방사형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4th floor, 2 Silom Soi 19, Bangkok 10500

<http://readingroombkk.org>

kyo@readingroombkk.org

(18) B-FLOOR THEATRE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실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B-Floor Theatre도 주목해 보자. B-Floor는 현대무용이라는 기본적인 형태와 연극적 요소, 타 장르와의 결합과 관련된 연출,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 구조 실험 등 의욕적인 활동을 긴 시간동안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곳이며, 세련된 화법으로 태국사회를 크리틱 하는 태도도 견지하고 있다.

85/1 Pridi Banomyong Institute, Sukhumvit 55 rd.,(Thong Lor) Wattana, Bangkok

<http://bfloortheatre.com>

(19) MAKHAMPOM THEATER GROUP

Makhampom Theater Group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연계 활동과 국제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방콕과 치앙다오에 각각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며 창작활동, 교육활동 등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의 펌퍼가 참가하는 국제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Makhampom Theater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생존해 온 태국 극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Makhampom Theatre Group〉

222-224 Suttisan Rd, Samsen-nai, Phayathai, Bangkok 10400

<http://www.makhampom.net>

makhampom3@gmail.com

〈Makhampom Living Theatre〉

477 Moo 7, Chiang Dao, Chiang Mai 50170

mkpchiangdao@hotmail.com, makhampom3@gmail.com

(20) SOL SPACE

복합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 중 흥미로웠던 곳은 일본인 디렉터 Koichi Shimizu가 운영하는 Sol Space라는 곳이었다. 이 곳은 녹음실을 운영하며 음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디렉터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술전시나 기타 문화관련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581/3 Ramkhamhaeng 39 (Thepleela 1) Prachathit Rd, Wangthonglang Bangkok

<http://www.solbkk.com>

(21) DUCKUNIT

태국은 디자인 강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러 부분에서 일상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인상적인 활동을 목격할 수 있는데 Duckunit은 이러한 태국 디자인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 주는 좋은 사례였다. Duckunit은 쉽게 설명해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워크스테이션이다.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20명 이상 모여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업을 진행하는 탄력적인 구조로 운영된다. 사실 Duckunit은 인터뷰 도중 압축 설명이 힘들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그들의 활동 환경과 에피소드, 지향점, Wit Pimkanchanapong이라는 정신적인 리더의 존재 등등 대부분의 화제가 흥미진진했다. 가능하다면 꼭 스튜디오를 방문해 만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http://duckunit.tv>

<http://bangkokkok.typepad.com/duckunit>

<https://vimeo.com/duckunit>

(22) US AND THEM

각각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던 3명(Alongkorn Makpol/패션, Wanpracha Thitipaisal/그래피티와 디자인, Pruch Eakapasawas/일러스트레이터)이 모여 2009년 시작한 올드스쿨 패션 브랜드이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형태를 디자인을 실험하고 있으며, 짜투리에 직접 운영하는 솜도 운영 중이다.

Jatujak Weekend Market 180 Section 3, Soi 44/1, Bangkok, Thailand

hello@us-n-em.com

<http://www.us-n-em.com>

(23) PHATFUNK

AZEK (FR), INSTINCT (UK), ORAWAN (TH), DELOREAN (UK), VJ GORB VISUALS (NL) 등의 멤버로 이루어진 크루이다. DRUM&BASS, OLDSKOOL HIP HOP, UKG, BREAKS 등의 음악을 플레이하는 DJ와 VJ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국의 주요한 언더그라운드 파티를 만들어 가는 유니크한 팀이다.

phatfunkbkk@gmail.com

<https://www.facebook.com/PhatFunkBKK>

(24) VERY KIND INVENTION

디자인과 문화기획을 아우르는 팀으로 Creative Consultancy and Experience Design Studio Very Kind Invention이 있다. 영국 유학시절 만난 4명의 친구 Attanon Wongluang (Gun), Petchpisut Assarasakorn (Bia), Thiyaporn Panikbutr (New), Lisa Nantatarn (Niki)가 의기투합해 운영하고 있는 Very Kind Invention은 각자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녹아 있는 유기적인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각각의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아티스트들이 교차 교류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특히 이 팀이 매력적으로 여필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련된 형태로 균형 잡힌 상업적 요소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과 호기심을 가진 대상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체계적 프로세스를 갖추는 등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3/25 Thonglor 20, 2305 Bann Chan Condo, Klongton Nue, Wattana, Bangkok 10110

info@verykindinvention.co

<http://www.verykindinvention.com>

<http://verykindinvention.wordpress.com>

(25) PANDA RECORDS

Panda Records는 1999년에 설립된 태국 인디음악의 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레이블이다. 많은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음반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Panda Records의 프로젝트로는 〈Stone Free - spiritual music festival〉, 〈Noise Market - DIY indie craft, art, street music festival〉, 〈The world may never know - take away show home vdo production, oversea band promoter Paperback - music fanzine〉, 〈Keep on the grass - indie folk music festival〉 등이 있다.

info.pandarecords@gmail.com

<http://pandarecordsbkk.blogspot.kr>

(26) ZERO STATION

ZERO STATION은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다. 디렉터인 Nguyen Nhu Huy는 10여 년 전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웹진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 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초치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역할을 즐긴다. 그리고 ZERO STATION에서 일하는 두명의 큐레이터는 베트남의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큐레이터로

알하고 있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Liar Ben은 자유롭게 여러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여행을 즐기며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고 여러 곳에 작업을 남긴다. 또 한명의 큐레이터인 Truong Minh Qu 는 젊은 영화감독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기도 하는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ZERO STATION은 구성원 형태에서 드러나듯이 미술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전시와 더불어 각종 워크숍, 프리젠테이션, 크리틱, 강좌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zerostationvietnam@gmail.com

<http://www.zerostationvn.org>

(27) SAN ART

해외로 이주한 세대의 자녀가 여술을 공부해 베트남으로 돌아와 조성한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인 San Art는 베트남에서 가장 정확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며 6개월마다 3명의 베트남 현대미술 작가와 1명의 해외 아티스트를 선정해 숙소와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시장에는 여러 현대미술 전시가 진행이 되고 공간 한 부분에 다양한 현대예술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는 Reading Room이 있다.

3 Me Linh, District Binh Thanh, Ho Chi Minh City, Viet Nam

hello@san-art.org

<http://www.san-art.org>

(28) mê phim - Passionate About Film

mê phim - Passionate About Film은 San Art 전시장을 비롯해 호치민의 여러 공간을 활용해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 라이브퍼포먼싱과 음악 공연, 아티스트 파티 등의 부대행사도 곁들여 진다. 호치민에 새롭게 등장한 젊은 세대의 문화적인 욕구가 행사로 드러나며 보다 폭넓은 대상과 호흡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https://www.facebook.com/pages/m%C3%AA-phim-passionate-about-film/114154844888>

(29) POW - Annual Graffiti Competition

최근 수년간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베트남의 그래피티 및 힙합 관련 문화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행사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2013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래피티 문화를 베트남에 수동적으로 정착시키는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무용과의 접목을 꾀하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실험적인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행사다. 그래피티는 물론 DJ, 랩퍼, 댄서 등이 참가해 풍성한 연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30) BEAT SAIGON

언더그라운드 음악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크루다. DJ Jase가 2007년에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해외 뮤지션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동 영역을 꾸준히 확장시키고 있다. 호치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파티가 궁금하다면 Beat Saigon을 만나라.

thebeats.saigon@gmail.com

<http://www.thebeats-saigon.com>

(31) Indie Music @ Vietnam

Not Being이라는 젊은 음악행사 기획자와 인터뷰를 하며 아주 다양한 베트남 내의 음악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악행사와 현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한 그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인 Nguyen Hong Giang와의 만남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면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공분야는 물론 노이즈뮤직, 힙합, 록음악 등등의 여러 장르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다른 뮤지션들의 앨범도 다수 프로듀싱한 그를 보면서 다른 베트남 뮤지션들에 대한 호기심도 동시에 커졌다.

(32) ARABESQUE

Arabesque Dance Company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으로 왕성하게 해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스튜디오 공간에 함께 마련되어 있는 소극장에서 여러 실험적인 작품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팀 자체에서 기획한 국제 무용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25 Phan Phu Tien St., Ward 10, District 5, HCMC

khai@hotmail.com / tonhu@yahoo.com / tanlocdance@gmail.com

<http://www.arabesque.com.vn>

(33) LOSTGEN'S

우리를 반겨준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적인 대안공간 Lostgen's을 보자. Lostgen's은 레지던시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첫 공간에서 재정문제로 나와야 하는 시기에 디렉터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활동력과 진정성 등등의 측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Lostgen's는 현대미술과 지역 사회의 화두를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고, 도시 및 국가간 교류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현대미술의 허브로 작동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lostgenspace@gmail.com

<http://lostgenerationspace.blogspot.kr>

(34) FINDARS

2008년 Wong Eng Leong, Tey Beng Tze, Lim Keh Soon, Wong Min Lik, Mak Wai Hoo, Puah Kah Kiat, Wang Liang Roo 등의 멤버가 모여 의기투합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자 팀이다. Findars는 쿠알라룸푸르 내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실험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은 각종 전시와 관련된 기획 및 퍼포먼스, 녹음실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진행되는 음반작업, 각종 워크숍 및 컨퍼런스,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적 현안에 대한 영상·도큐먼트 작업 등 놀라운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findars@live.com

<http://findars.blogspot.kr>

(35) THE ANNEXE GALLERY

뮤지션이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Goh Lee Kwang이 매너저로 있는 센트럴마켓 내의 문화공간 The Annexe Gallery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자체 기획보다는 대관에 의한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각종 행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치 부여가 가능하다.

2nd Floor, Central Market Annexe, Jalan Hang Kasturi, Kuala Lumpur

goh.leekwang@gmail.com

<http://www.annexegallery.com>

(36) PADANG JAWA STREET ART FESTIVAL

말레이시아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방문한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Koon Tan은 미술관 소개와 더불어 놀랍게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작한 쿠알라룸푸르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에 관한 도록을 선물해 주었다.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문화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야 어디든 유사하지만 그 범위에 적극적으로 그래피티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꽤 놀라운 발견이었다. 어쨌든 이 책을 가이드북 삼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리서치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처음 방문한 곳이 Padang Jawa였다. Lostgen's의 소개로 아티스트 및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Padang Jawa Street Art Festival의 기획자 Aisyah Baharuddin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쩌면 지역 주민이기에 가능한 형태의 기획이었던 이 행사는 마을 내부 곳곳에 페인팅 작업이 진행되는 형태로서 아티스트는 물론 마을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까지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 사례로 행사를 연례화 하려는 이야기를 기획자에게 듣고 나서 리서치 이후 가능한 교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했다.

tindakangerakasuh@gmail.com

<https://www.facebook.com/streetartfest2013pdgjawa>

(37) DISTRICT GALLERY

그래피티를 중심으로 한 쿠알라룸푸르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피티 및 힙합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숍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며,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모이고 만나는 거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대형 그래피티, 또는 스트리트 컬처와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http://www.thisisdistrict.com>

<https://www.facebook.com/district.shopgallery>

[부록5]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제2조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청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청년문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문화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문화위원회 설치)

- ①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청년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청년문화사업)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청년문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청년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7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 지원)

- ① 시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창작 활동
 2. 청년문화 관련 공연·전시 등 청년문화예술활동
 3.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등)

- ① 시장은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항 각 호의 사항

천안연구 2014-12-580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저 자 오지환, 임호

발행인 강 성 철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재 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우)614-8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전 화 |051)860-8850, FAX |051)860-8619

Homepage : <http://www.bdi.re.kr>

인쇄처 |주)대주에드 컴 |051)803-6631, FAX |051)803-6629

ISBN 978-89-5896-580-0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